

NIE(엔아이이)는 Newspaper In Education의 머리글자를 따온 말이다. 우리말로 옮기면 신문활용교육이다. NIE는 수업(학습)에 신문을

교수매체로 활용해 교육적 효과의 제고를 위한 교수법이



다. 즉 신문을 교재 또는 보조교재로 활용하여 공부하는 학습방법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NIE를 6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신문에서(신

문을 두고) 교육적인 요소를 찾아 학습하는 경우다. 둘째, 신문과(신문을

갖고) 친근해지기 위해 신문으로 다양한 표현을 하거나 공작활동을 하는

경우다. 셋째, 신문처럼(신문을 보고) 개별 또는 모둠이 신문을 만들어보

는 경우다. 넷째, 신문으로(신문을 읽고) 읽기·쓰기, 즉 언어능력을 향상

시키는 경우다. 다섯째, 신문 속에(신문을 통해) 다루어지는 정보의 종류

와 중요성을 이해하는 경우다. 정보를 다룸으로써 정보에 대한 탐색 능

력, 분석 능력, 응용 능력 등 정보 활용능력을 키울 수 있다. 여섯째, 신문

마다(신문에서 찾은) 고유한 특징이나 주장을 분석해 신문의 역할과 책

임을 이해하고 비판 능력을 배양하는 경우다. 이처럼 NIE는 교육방향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뉘지만, 공통적인 것은 바로 신문이 교육매체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이다.



신문활용교육(NIE)이라는 용어의 전신

은 1930년대부터 미국에서 사용한 NIC(Newspaper In the Classroom

: 교실에 신문 도입)이다. 이후 NIC 프로그램은 1960년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다가 1976년 NIE로 개칭했다.



사실 NIE라는 용

어를 처음 쓴 곳은 캐나다이다. 이는 학교뿐 아니라 병원·감옥·기업체

등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신문을 학습교재로 활용하던 캐나다 일간신

문발행인협회의 제안을 미국신문발행인협회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전

세계에서 널리 쓰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4년 현재 모두 950

여 개 신문사가 NIE를 실시하고, 10만여 개의 학교가 NIE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세계신문협회(WAN)의 조사에 따르면

2002년 현재 52개국이 NIE를 시행하고 있다.

신문활용 교육의 이해와 실천

수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교사용 NIE 가이드

신문활용 교육의 이해와 실천

수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교사용 NIE 가이드

발행일 / 2010년 3월 8일 초판 제1쇄 발행

지은이 / NIE 한국위원회 (최상희 · 구정화 · 심옥령 위원 대표집필)

발행인 / 장대환

펴낸곳 / 한국신문협회

주소 / 100-750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3층

전화 / (02) 733-2251~2

팩스 / (02) 720-3291

홈페이지 / www.presskorea.or.kr

디자인 · 편집 · 제작 / 에이스디자인

전화 / (02) 2277-3241

팩스 / (02) 2277-2527

후원 / 전주페이퍼 

〈비매품〉

신문활용 교육의 이해와 실천

수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교사용 NIE 가이드

CONTENTS

제1부 • NIE 이해하기

1. NIE란?	10
2. NIE의 목적과 필요성은?	12
3. NIE의 효과는?	13
4. NIE의 유형과 운영방법은?	18
5. 교육과정에서 NIE는 어떻게 강조되고 있는가?	21
6. NIE는 다른 수업모형과 어떻게 다른가?	23
7. 다른 수업모형과 NIE는 같이 할 수 없는 것일까?	25

제2부 • 학습 자료로서 신문 살펴보기

1. 신문이란 무엇인가?	28
2. 신문지면은 어떻게 꾸며져 있나?	30
3. 신문은 어떤 과정으로 나오나?	32
4. 뉴스가치는 누가 정하나?	36
5. 신문 기자는 누구인가?	38
6. 신문 기사란 무엇인가?	40
7. 시각적 신문요소란 무엇인가?	44

제3부 • NIE 수업을 위한 준비하기

1. 학습 자료로서 신문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48
2. 수업에 사용할 신문 자료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준비하도록 할까?	50
3. 신문 기사를 준비할 땐, 이런 점도 생각해야 할까?	53
4. NIE를 하고 난 후 평가는 어떻게 할까?	57

제4부 • NIE 실제하기

1. 신문을 어떻게 해야 잘 읽을 수 있을까?	61
2. 신문을 활용한 글쓰기는 어떻게 할까?	80
3. 신문 기사를 활용한 토론은 어떻게 해야 할까?	110

참고문헌

책을 내면서

이 책은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NIE(신문활용교육) 수업을 위한 안내서로 신문활용교육의 기본 원리와 실천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NIE'를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안내가 없어서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NIE'를 다루려는 선생님들이 기존의 교과나 재량활동 등 범교과 수업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NIE 관련 교사용 지도서가 드문 상황에서, 실제 교사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만든 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책은 NIE 교사, 신문 기자, 대학 교수 등 현장 경험을 가진 전문가 그룹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자들은 NIE 수업과 관련한 정보와 활용기법을 정리하면서 현장 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이 무엇일까를 먼저 고려했습니다.

한국신문협회는 이 책이 NIE를 실천하시는 선생님들께 충실한 안내서의 역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초등학교에 적합한 내용으로 꾸몄습니다만 중등학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NIE는 학생들에게 세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세상을 보는 눈을 갖도록 해줍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NIE는 시도해볼 만한 수업방식이며, 학생들의 학습능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데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한국신문협회 회원 신문사와 저자들이 이 책에 담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2010년 3월
한국신문협회

제1부

•

NIE 이해하기

1. NIE란?

NIE(엔-아이-이)는 Newspaper In Education의 머리글자를 따온 말이다. 우리말로 옮기면 신문활용교육이다. NIE는 수업(학습)에 신문을 교수매체로 활용해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교수법이다. 즉 신문을 교재 또는 보조교재로 활용하여 공부하는 학습방법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NIE를 6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신문에서(신문을 두고) 교육적인 요소를 찾아 학습하는 경우다. 둘째, 신문과(신문을 갖고) 친근해지기 위해 신문으로 다양한 표현을 하거나 공작활동을 하는 경우다. 셋째, 신문처럼(신문을 보고) 개별 또는 모둠이 신문을 만들어보는 경우다. 넷째, 신문으로(신문을 읽고) 읽기·쓰기, 즉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 경우다. 다섯째, 신문 속에(신문을 통해) 다루어지는 정보의 종류와 중요성을 이해하는 경우다. 정보를 다룸으로써 정보에 대한 탐색 능력, 분석 능력, 응용 능력 등 정보 활용능력을 키울 수 있다. 여섯째, 신문마다(신문에서 찾은) 고유한 특징이나 주장을 분석해 신문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비판 능력을 배양하는 경우다. 이처럼 NIE는 교육방향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뉘지만, 공통적인 것은 바로 신문이 교육매체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이다.

신문활용교육(NIE)이라는 용어의 전신은 1930년대부터 미국에서 사용한 NIC(Newspaper In the Classroom : 교실에 신문 도입)이다. 이후 NIC 프로그램은 1960년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다가 1976년 NIE로 개칭했다. 사실 NIE라는 용어를 처음 쓴 곳은 캐나다이다. 이는 학교뿐 아니라 병원·감옥·기업체 등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신문을 학습교재로 활용하던 캐나다 일간신문발행인협회의 제안을 미국신문발행인협회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전 세계에서 널리 쓰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4년 현재 모두 950여 개 신문사가 NIE를 실시하고, 10만여 개의 학교가 NIE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세계신문협회(WAN)의 조사에 따르면 2002년 현재 52개국이 NIE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NIE는 1985년 신문협회보 1985년 9월 15일자(제6호)를 통해 우리나라에 NIE가 처음 등장했다. 신문협회보에서는 NIE 활성화를 전제로 한 설문조사와 각국의 실례를 들어 NIE의 필요성에 대해 특집으로 다뤘다. 국내 공식행사는 1994년 4월 한국신문협회·한국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공동으로 '일본 NIE 활동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가진 세미나다. 교육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 계기는 1994년 5월 7일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교육부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학교 교육에 NIE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면서 부터이다. 같은 해 한국언론연구원(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NIE 연수를 실시했다. 1995년 4월 6일에는 중앙일보가 국내 신문사로서는 처음으로 신문지면에 NIE 코너를 마련했다.

한국신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2009년 현재 국내 31개 신문사가 NIE 프로그램을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신문사의 NIE 프로그램은 NIE 관심 및 참여도 제고를 위한 NIE 대회 ▲ NIE 저변확대를 위한 교원 직무연수 ▲ 학교 현장 활동을 통한 미래 독자 확보 프로그램 ▲ 홈페이지 개설 및 책자 발간 등 크게 4가지 영역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NIE의 변천과정은 <표 1-1>과 같이 태동기, 발전기, 도약기로 구분할 수 있다(최상희, 2003).

〈표 1-1〉 우리나라 NIE의 변천과정

구분	태동기(20세기 중반)	발전기(20세기 후반)	도약기(21세기 초)
교육대상	학생 중심	학생, 교사, 일반인(주로 학부모)	학생, 교사, 예비교사, 일반인, 교육 관련 지도자
교육목표	학습, 입시 대비	-열린 교육에 부응 -수동적인 정보 활용 교육	-삶의 일부로 신문 활용 -능동적인 정보 활용 교육
교육내용	교과내용 토대 문제 풀이	-신문과 교육과정의 연계 -신문의 역할 등 개략적 이해	-주제 중심 통합학습 -신문의 역할 등 비판적 참여
교육매체	신문(특정지면 또는 부록)	신문, 책, 인터넷(소극적 사용)	신문, 책, 전단지, 인터넷, TV, 비디오 등의 독립 또는 적극적인 결합
교육방식	문제풀이식 일방향 커뮤니케이션	교사(지도자) 중심 일방향 커뮤니케이션 (학습자와 부분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교사(지도자)-학습자-학부모의 다(多)방향 커뮤니케이션
교육공간	개별, 가정	학교, 가정, 사회단체	학교, 가정, 사회단체, 동아리, 인터넷 공간 등
교육기간	신문에서 제시한 시간(한시성)	단기간, 일회성, 이벤트성	중·장기간, 누적적, 체계적
관련학문 또는 영역	교육과정(교과서)	교육학(교육 방법 및 공학, 지도법, 교육실습), 소극적 매스커뮤니케이션(미디어 교육, 제작실습 등), 언어교육, 인성교육 등	교육학(교육철학, 교육심리, 교육방법 및 공학, 교육평가, 교육행정, 교과교육론, 지도법, 교육실습), 적극적 매스커뮤니케이션(미디어 교육, 제작실습, 미디어 분석·비판·행동실천 등), 언어교육, 인성교육, 시민교육, 사회교육 등

한편 우리나라에서 NIE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이다. NIE 관련 석·박사 학위논문은 2008년 5월 기준 총 387편이 발표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발표 내역을 살펴보면 1993년 첫 학위논문이 발표된 이후 1997년까지 7편이 나왔으며, 1998년부터는 해마다 수 십 편씩 발표되고 있다. NIE는 국내 학술지를 통해 연구논문으로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NIE와 관련한 각종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논문은 2008년 5월 기준 총 134편으로 조사됐다(최상희, 2009).

2. NIE의 목적과 필요성은?

NIE의 목적과 필요성은 각 국의 신문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등 주요 나라의 신문관련 단체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김훈순, 1994).

1) 미국신문발행인협회가 말하는 NIE의 목적

첫째, 학생들이 민주사회에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여 이끌어 갈 수 있는 시민이 되도록 돕는다.
둘째, 신문은 자유로운 사회에 꼭 필요한 구성요소로서 자유로운 출판물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셋째, 학생들이 정보, 오락, 현대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신문을 통해 터득하게 함으로써 인격을 키운다.
넷째, 언어능력이 향상되고 학생들의 비평능력 개발을 돕는다.
다섯째, 학생들에게 신문을 비평적으로 읽기 위한 욕구와 능력이 계속적으로 생겨나도록 한다.
여섯째, 학생들에게 공공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자치과정에 참여할 동기를 심어준다. 성인매체로 여겨진 신문을 읽음으로써 자부심을 느낀다.

2) 일본신문협회가 말하는 NIE의 필요성

첫째, 사회에 관심을 지니며 사회의 움직임, 즉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일을 자기 문제로서 생각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가치의 다양성을 인식할 수 있다.
셋째, 많은 사실과 의견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의견과 판단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
넷째, 많은 정보 가운데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하거나 사실과 진실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
다섯째, 신문을 읽을 뿐만 아니라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고, 신문으로부터 배울 뿐만 아니라 신문을 '육성하는' 바람직한 독자가 될 수 있다.

3) 영국신문협회가 말하는 NIE의 교육적 목적

첫째, 다양하고 현실적이며 비용이 적게 드는 보조적인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둘째, 역사적 기록과 정보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셋째, 적극적인 독서를 통해 실용적인 단어와 문장력의 증대를 돕는다.

넷째, 학생들의 개인적·사회적 교육을 뒷받침한다.

다섯째, 다양한 미디어 중에서 신문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킨다.

여섯째, 신문의 제작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일곱째, 학생들에게 글쓰기 기회를 제공한다.

4)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NIE 목적

교수 매체로서 신문을 활용하는 우리나라의 NIE 목적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다. 논의된 NIE 목적은 다음과 같다(최상희·오주석, 1999).

첫째, 학생(자녀)의 인지능력 및 사고력 향상을 돕는다.

둘째, 미래시민으로서의 인간성·시민성을 함양시킨다.

셋째, 학습과정에서 학생(자녀)의 창의성 신장을 촉진시킨다.

넷째, 자신이 부딪히는 문제의 해결능력을 키운다.

다섯째, 다양한 의사표현 및 의사결정력을 배양한다.

여섯째, 사회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사회 적응 능력을 육성시킨다.

일곱째, 학생(자녀)간 협동학습의 기회를 주고 협동심을 길러준다.

여덟째, 올바른 인성·성(性)·환경·진로·소비자교육을 시켜준다.

아홉째,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인식을 심어준다.

열째, 정보·자료의 분석력과 활용능력을 높여준다.

3. NIE의 효과는?

NIE는 읽기, 말하기, 쓰기, 듣기 능력과 더불어 정보를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며 종합적이며 창의적인 사고능력과 통합교과적인 사고능력을 배양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국내외 NIE 효과 측정

조사 결과에 따르면 NIE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정문성 · 구정화 · 박미영, 2004).

-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여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돕는다.
- 사회 현상의 이해를 돕는다.
- 현대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터득시키고 학생들의 인격을 키운다.
- 언어능력이 향상되고 학생들의 비평능력 개발을 돕는다.
- 신문을 비평적으로 읽기 위한 욕구와 능력을 향상시킨다.
- 학생들에게 공공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심어주고, 성인매체로 여겨진 신문을 읽음으로써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 다양하고 현실적이며 비용이 적게 드는 보조적인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 역사적 기록과 정보를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적극적인 읽기를 통해 실용적인 단어와 문장력의 증대를 돕는다.
- 학생들의 개인적 · 사회적 교육을 뒷받침한다.
- 다양한 미디어 중에서 신문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킨다.
- 신문의 제작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학생들에게 글쓰기 기회를 제공한다.
- 다양한 사실과 가치를 인식할 수 있게 한다.
- 주체성을 제고시키며, 정보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 미래의 바람직한 독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한다.

1) 국내 NIE 효과측정 사례

가. 중앙일보와 한국언론재단 조사

중앙일보와 한국언론재단에서 2002년 3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초등학교 79명, 중학생 69명, 고등학교 79명을 대상으로 NIE가 '능력, 관심도, 인성 · 신문 친화도'의 하위 영역별 항목에 대해 효과가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면, 능력 면에서는 정보 검색과 창의력, 읽기, 쓰기, 학습능력이 향상되었으며, 관심도에서는 문화활동,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인성 및 신문친화도 면에서는 타인을 우선 배려하게 되었고, 정보를 찾는데 신문을 이용하게 되었으며, 신문의 내용을 인용하여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신장된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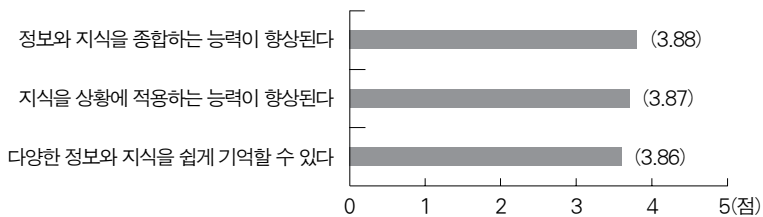
나. 한국신문협회 조사

한국신문협회는 2004년 9월 전국 초·중·고 교사 2,2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NIE를 통한 효과를 인지적, 정의적 영역에서 살펴보았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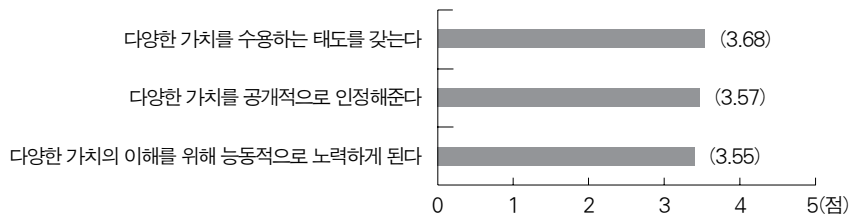
[그림 1-1] 교사 대상 NIE 효과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자료 : 2004 학교 NIE 실태조사(한국신문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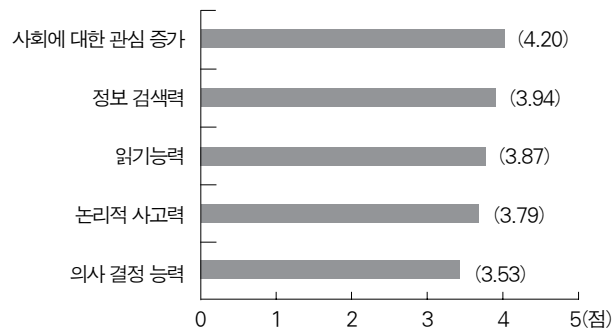
■ NIE를 통한 인지적 효과



■ NIE로 인한 정의적 효과



■ NIE의 기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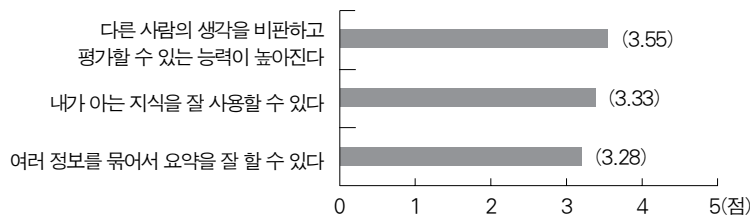
또 한국신문협회는 2005년 9월 서울·경기 지역의 국공립 초·중·고등학생 2,01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분석에서 사용된 효과는 세 종류였다. ‘인지적 효과’는 학습의 결과로 지식정보를 알게 되는 등 지적 측면의 효과를 말한다. ‘정의적 효과’는 학습의 결과로 어떤 가치를 받아들이거나 가치에 대해 판단하는 등 가치적 측면의 효과를 말한다. ‘기능적 효과’는 학습의 결과로 기술·기능을 익히는 측면의 효과를 말한다.

여기서의 분석은 5점 척도를 활용해 평균값으로 계산했다. 1점에서 5점 사이에 평균이 존재하며 3점이 중간 점이고,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고 보면 된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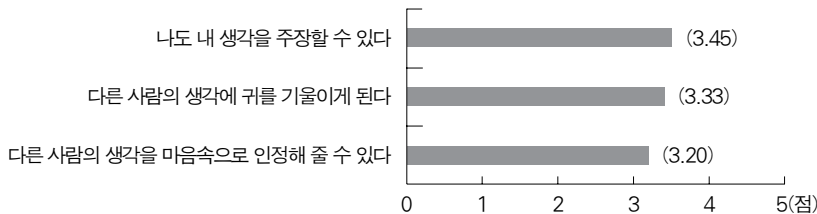
[그림 1-2] 학생 대상 NIE 효과에 대한 인식 결과

자료 : 2005 학생 NIE 실태조사(한국신문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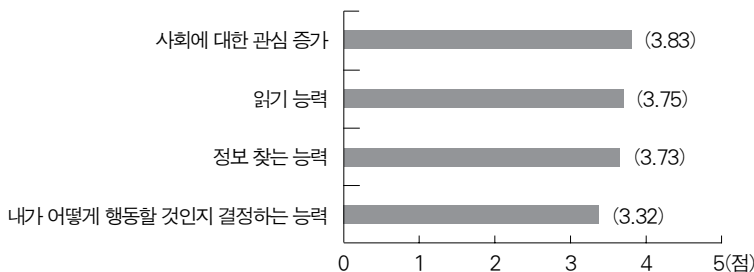
■ NIE를 통한 인지적 효과



■ NIE의 정의적 효과



■ NIE의 기능적 효과



2) 일본신문협회의 효과 측정 사례

일본신문협회 산하 일본신문교육문화재단 NIE 위원회에서 2002년 9월부터 2003년 3월까지 2002년도 NIE 실천학교(212개교) 중 188개교 7,884명(학생 7,478명, 교사 406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를 보면, NIE 실시 후에 일어난 변화로 1위는 책을 읽는 것, 2위는 스스로 조사하여 상세히 아는 것, 3위는 남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신문을 찾아 읽는 것과 학습 태도가 좋아진 것도 꼽혔다.

선생님들은 NIE를 실천한 결과, 학생들이 신문을 스스로 찾아 읽게 됐고(81.7%), 기사에 대해서 친구나 가족과 이야기하는 경우가 늘었다(79.8%)고 답했다. 또 문장을 읽거나 쓰는 빈도가 늘었으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조사하는 학습 태도가 몸에 배게 됐다는 답변도 60~70%를 차지했다.

3) 미국의 효과 측정 사례

1991년 5월 뉴욕 대학의 교수 2명이 에디터 앤 퍼블리셔(Editor & Publisher)에 발표한 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NIE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학습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시내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NIE 수업을 받았던 학생들의 표현 능력을 측정한 결과 2.14에서 3.63으로 크게 신장했지만, 이에 비해 수업을 받지 않은 학생은 2.18에서 2.78로 약간 증가했다. 문장 독해력에서도 NIE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4배나 뛰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NIE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22개 도시를 선정해 그 지역 학교 학생들의 성적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22개 도시를 조사해본 결과 정기적으로 신문을 교육도구로 활용한 학교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시험에서 평균 10%를 더 얻었다. 주의할 점은 신문이 점수를 올리는 유일한 요인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수업에 신문을 활용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이는 한 가지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신문을 활용한 수업 효과는 소수민족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

4. NIE의 유형과 운영방법은?

1) NIE의 유형

NIE는 활동적인 측면에서 크게 형식적 유형과 내용별 유형, 그리고 교육매체 선택별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가. 내용별 유형

첫째, 교과중심 NIE 프로그램이다. 현행 교육과정을 토대로 NIE를 전개하는 유형이다. 교육과정(교과서)에 나온 학습주제를 수행하기 때문에 흔히 '교과 NIE'로 불린다.

둘째, 주제중심 NIE 프로그램이다. 주제에 따라 수업이나 활동이 이루어지는 형태다. 학습 주제의 선택에서 '교과 NIE'가 고정된 소재와 내용을 사용해야 하는 반면, '주제중심 NIE'는 자유로운 편이다. 예를 들면, 민주시민교육, 경제교육, 환경교육, 인성교육, 성교육, 국제이해교육, 진로교육, 토론학습, 스포츠, 글쓰기(논술), 탐방·탐사, 신문 만들기(가족신문, 학교신문, 학급신문, 독서신문, 테마신문), 신문지 공예 등이다.

셋째, 개념중심의 NIE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교과중심 NIE'나 '주제중심 NIE'처럼 활동영역이 포괄적이지는 않다. 수업(학습) 도중에 부분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소재나 간단한 NIE 활동을 도입하려고 할 때 하나의 소재를 선택해 교수·학습을 전개하는 유형이다.

나. 형식적 유형

NIE 활동의 형식적 유형은 <그림 1-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8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실제 활동에서 학년, 주제, 교사의 선호도 등에 따라 활동 내용과 난이도가 달라진다. 교수·학습 상황에 따라 2가지 이상의 활동을 혼합 또는 연계해 적용되기도 한다.

다. 교육매체 선택별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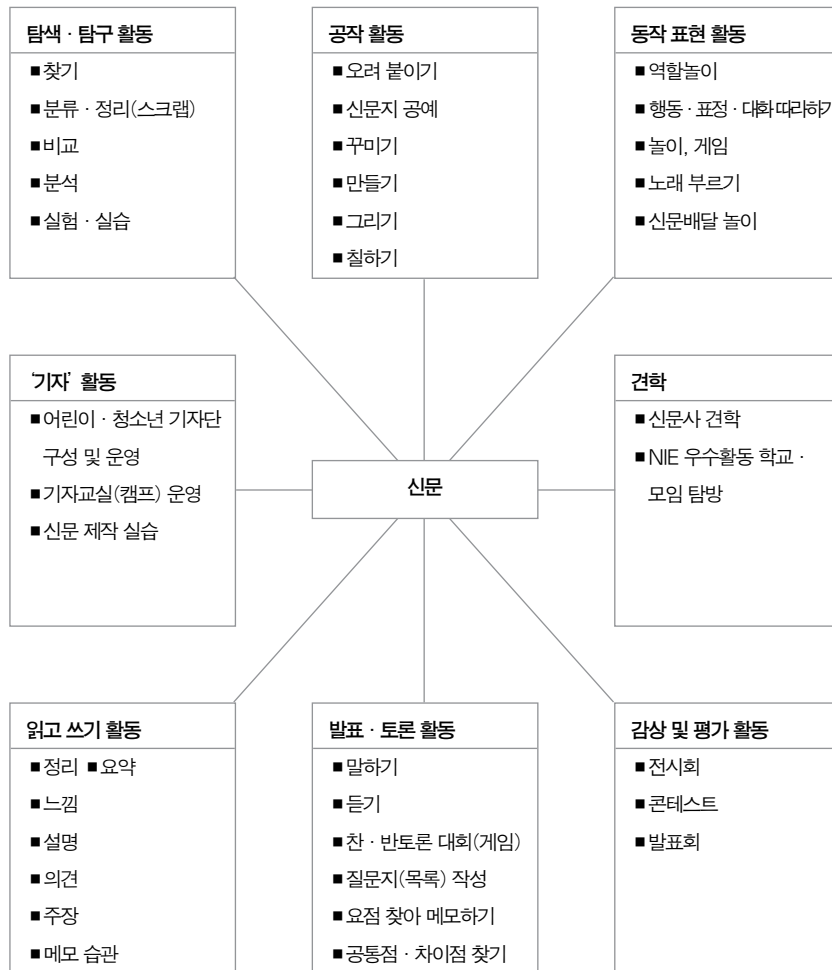
NIE 활동의 교육매체 선택별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신문'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신문이 수업(학습)에 핵심이 되고, 기타 매체는 일부 요소로서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다.

둘째, '신문과 다른 인쇄매체'와 병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신문' 위주의 수업(학습)이 아니라 신문과 책, 신문과 잡지, 신문과 홍보지, 신문-책-홍보지 등 여러 인쇄매체를 사용하여 수업(학습)을 진행하는 경우다.

셋째, ‘여러 매스미디어가 혼합’된 프로그램으로, 신문+TV, 신문+라디오, 신문+컴퓨터(인터넷), 신문+TV+컴퓨터(인터넷) 등 신문과 다른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결합해 NIE 수업(학습)을 진행하는 경우다.

[그림 1-3] NIE 활동의 형식적 유형



2) NIE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

NIE 운영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업용 신문자료와 수업방법 및 내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수업에 활용한다. 이러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활용하는 유형을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신문 기사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글쓰기와 논술에 대비할 목적으로 사설이나 칼럼, 독자투고 등을 소재로 삼아 글쓰기나 논술을 해보는 경우다. 이 방법은 신문 기사를 읽고 정리하거나 흉내 내서 글쓰기를 하는 교육에 머물러 따분한 수업이 될 수 있으므로 초등 저학년보다 고학년 이상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둘째, 신문 자체를 교육 재료로 삼는 경우다. 신문 기사를 비롯해 사진, 만화, 그래프, 광고 등 신문 전체를 교재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교사나 학부모의 다양한 영역 개발과 시도가 가능하다. 하지만 내용이 방대하고 교육적 요소로 연결하는 데 애로가 많아 교사, 학부모의 세심한 준비가 요구된다.

셋째, 현행 교육과정에 맞춰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일선 교사들이 교과 진도와 내용을 고려해 해당 학년, 교과와 연계하여 관련된 신문의 요소를 도입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도 'NIE'가 명시되어 있어 많은 학교들이 교육과정과 내용을 자체 개발하고 적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넷째, 학습지 또는 워크북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워크북을 사용하거나 직접 'NIE 학습지'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다. 이 방법은 내용이 다양하지 않아 학생의 수준 조절이 어렵고 시의성이 뒤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처음 지도하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참고삼아 사용하면 좋다.

다섯째, 신문에 실린 'NIE 코너'의 조언을 받는 방법이다. 신문에서 보도하는 각종 교육 방법과 교육 정보, NIE 사례들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NIE에 처음 접근할 때 유용하다.

5. 교육과정에서 NIE는 어떻게 강조되고 있는가?

학교 수업은 대부분 공식적인 교육과정에 따라 움직인다. 교육과정에서 NIE를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학교에서 NIE가 어떻게 수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1997년 공시된 '제7차 교육과정'을 거쳤으며, 이후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상시 개정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교육과정의 경우 '제8차'와 같은 방식으로 부르지 않고, '개정 2007년 교육과정'이라 불린다. 상시 개정의 특성이 반영된 까닭으로 일부 교과와 경우 2009년에도 교육과정이 다시 수정되었다.

이전의 교육과정이나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신문이나 NIE의 중요성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을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학습 내용요소의 서술' 과정에서 신문이나 NIE를 언급하는 것이다. '학습 내용요소의 서술'은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을 활용하여 배워야 하는지를 서술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교육과정에서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교수·학습 방법의 서술' 과정에서 신문이나 NIE를 강조하는 방식이다.

첫째, '학습 내용요소의 서술' 과정에서 신문이나 NIE를 제시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사회 교과 등 시사적인 주제를 교과의 내용으로 주로 다루는 교과에서 많이 적용한다.

- 신문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 사회의 쟁점이 되는 경제 문제를 찾아, 경제, 정치, 법, 문화 및 다른 나라와의 관계 등 다양한 면을 고려하여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 신문 자료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경쟁 사례를 찾아 그 폐해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쳐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추출한다.”

- 제7차 교육과정 사회 교육과정 중 -

이처럼 교육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신문자료를 활용하여 수업 내용을 구성하도록 제시할 경우 교과서 서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집필하는 교과서 저자들은 교과서 내용에서 '탐구 활동' 등의 과정에서 신문자료를 제시하고 학습내용을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사회 교과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신문자료를 활용하여'라고 하지 않더라도 교과서 내용 구성에서 신문자료를 제시·활용하고 있다. 사회 교과서에는 당시 신문자료를 제시하면서 탐구 활동 형태의 '생각해보기'나 '토론해보기'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교과서의 신문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교사들은 교과와

관련된 신문 기사 등을 검색하여 그 내용을 새롭게 조직한 후 수업에 활용하기도 한다.

둘째, 교과별로 ‘교수·학습 방법’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NIE를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특별히 NIE를 언급하기도 하지만, 신문자료의 특성을 강조하면서 보편적으로 수업에서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서술 방법은 특히 ‘2007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많이 나타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 교과 전체에서의 NIE 활용을 권장하는 서술〉

- 현대 사회의 정보화 추세에 맞추어 각종 정보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실 환경을 조성하고, 신문 활용 교육(NIE), 컴퓨터 보조 학습(CAI)과 인터넷 활용 교육(IEE)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 학습자가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지역 사회 참여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 문제에 관한 시사 자료와 지역 사회 자료를 활용하여 지도한다.

-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도, 도표, 영화, 슬라이드, 통계, 연표, 연감, 신문, 방송, 사진, 기록물, 유물, 여행기, 탐험기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한다.

위와 같은 서술은 사회과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덕, 윤리 교과나 국어 교과의 경우에도 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신문이 중요한 학습 내용으로서 그리고 학습의 방법으로서 활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리하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신문이나 NIE가 좋은 학습의 대상이며 학습의 방법으로서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NIE는 다른 수업모형과 어떻게 다른가?

일반적으로 수업모형이라고 할 때는 교사가 어떤 특수한 교육적 목적을 갖고서 수업에 임할 때, 그 교육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적합한 수업의 절차나 단계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도록 구안된 것을 말한다. 자, 수업모형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구체적인 수업모형의 예를 통해 살펴보자.

예를 들어 의사결정 수업모형을 보자. 수업에서 학생들의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이 이 수업모형의 기본 목표이다. 이 모형은 수업에서 학생들의 의사결정 능력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몇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학습 절차가 구성되어 있다. 즉 '문제제기-문제의 원인 파악-대안 형성-대안에 대한 평가-의사결정하기-행동하기'와 같은 일반적인 절차를 가진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수업모형의 경우, 처음 절차인 '문제제기'의 단계에서 제시되는 '문제'는 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절차 또한 '의사결정'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대안 형성이나 대안의 평가, 의사결정하기 등은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필수적인 교수학습 절차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업모형을 잘 따라하면 그 절차를 통해 길러주고자 하는 다양한 학습 목표의 지향점에 도달하게 된다.

즉 하나의 모형은 한 수업 안에서 그 모형을 통해 길러주고자 하는 다양한 요소가 학습절차로 연결되어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정해진 절차가 있는 수업모형이 된다. 그리고 실제로는 여러 번의 수업을 통해서 학습 목표로 지향하는 내용의 학습이 이루어지겠지만, 표면적으로는 그 수업모형만 보아도 지향하는 학습목표와 관련한 모든 내용이 다 학습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셈이다.

그러나 NIE는 이런 수업모형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쉽게 말해서 NIE는 하나의 정해진 수업 절차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다만 NIE는 신문이라는 소재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모든 수업을 포괄할 수 있는 명칭이다. 그렇다고 수업에서 신문을 활용하기만 하면 NIE가 되는 것은 아니다.

NIE도 세부적으로 다양한 수업의 진행과정과 절차를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NIE 수업방법으로 많이 제안하는 '찾기-이해하기-창조하기' 과정은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기사 내용에 대한 찾기와 깊이 있게 이해하기, 그리고 그에 비추어 직접 신문을 만들 수 있는 신문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준다. 또 다르게 제안되는 '신문 읽기-신문에 관한 글쓰기-신문으로 토론하기' 과정도 신문 기사를 읽은 후, 자신이 읽은 기사를 바탕으로 글쓰기를 해보고 나아가 토론해 보는 과정까지 담아낸다.

그러나 앞서서도 말했듯이 NIE는 이런 활동이 하나의 모형 안에 절차로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NIE의 여러 활동의 종류로 담겨 있을 뿐이다. 이점에서 NIE는 몇 번의 과정을 통해 NIE가 추구하는 모든 학습목표가 도달

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수업모형도 한 두 번의 수업을 통해 학습목표에 도달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지만, NIE의 경우 도달하기가 어려운 원인을 보면 다른 수업모형과 차이가 있는 셈이다. 즉 NIE는 한 모형 안에 담겨 한 차시의 수업으로 완결되는 수업모형이 아니라 여러 차시로 나누어 진행되는 다양한 수업 유형의 집합이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도 NIE는 한 시간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수업인 것이다.

또 그렇다고 해서 NIE가 신문을 소재로 삼아 한 차시로 수업이 끝나는 경우를 NIE가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다. NIE는 신문에 대한 기본 이해부터 시작하여 신문을 직접 만들어 보거나 신문에 대한 성찰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등의 깊이 있는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도 중요하지만, 신문을 수업의 소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NIE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점에서 여전히 NIE는 다른 수업모형과 달리 하나의 정리된 수업모형으로 힘을 갖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수업모형은 간단하게 진행되는 그 수업모형의 진행 절차를 이해하고, 수업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안을 잘 구성하면 그래도 쉽게 수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NIE의 경우는 매우 다양한 수업방법이 나열되기에 교사들이 NIE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배워야 할 수업방법들이 많다.

따라서 NIE는 여러 개의 다양한 수업방법의 활용이 가능한 수업방법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수업모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더불어 단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정해진 수업모형으로 규정해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신문을 중요 소재로 활용하는 모든 수업방법에 포괄적으로 붙일 수 있는 수업방법이기도 한다. 이에 NIE는 하나의 모형이면서 다양한 모형을 연결할 수 있는 독특한 수업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7. 다른 수업모형과 NIE는 같이 할 수 없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 하나의 수업모형을 주로 사용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다음과 같은 수업을 한 번 생각해보자.

〈환경문제 수업의 진행 과정〉

[도입 과정]

‘지하수를 더럽힌 공장 이야기’와 같은 TV 뉴스를 들려주면서 우리 주변에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전개 과정]

〈활동 1〉이 공장의 주인에게 어떤 처벌을 하는 것이 옳을지에 대하여 토론 수업을 15분 동안 진행

〈활동 2〉〈활동 1〉을 바탕으로 ‘환경 보호’를 주제로 하는 신문 기사 작성하기 활동을 15분 동안 진행

[정리 과정]

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자신의 의견 작성하고 정리하기

이런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을 경우, 이 수업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수업모형을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도입 과정]에서 TV 뉴스를 사용하였으니 ‘TV 활용수업’이라고 해야 할까? 〈활동 1〉에서 토론을 하였으니 ‘토론 수업’이라고 해야 할까? 〈활동 2〉에서는 신문 기사 작성하기를 하였으니 ‘NIE’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TV와 신문을 활용하였으니 ‘매체활용수업’ 또는 ‘미디어활용수업’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수업은 바로 이렇게 뭐라고 하나의 수업모형 이름을 붙이기가 모호한 수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1차시를 운영하는 ‘의사결정 수업모형’과 같은 수업을 잘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위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수업방법이나 몇 가지 활동이 제시되는, 즉 여러 가지 수업방법이 결합된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상적이다.

이렇게 보면 NIE는 독립된 하나의 수업모형으로 1차시 수업을 짜고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다른 수업모형과 결합하여 1차시 안에 다양한 수업활동으로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다른 수업모형과 NIE를 같이 진행할 때 긍정적인 측면과 실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NIE는 크게 보면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이다. 신문이 교육활동에서 중요한 수업 매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NIE를 활용하여 다른 수업모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신문을 주요한 학습의 매체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렇게 되면 개별 학습모형이 추구하는 교육 목적과 NIE가 추구하는 교육 목적에 함께 도달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수업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수업을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 이런 수업을 한 번 생각해보자. 협동학습은 학생들 간에 협동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유사한 구조를 갖는 여러 가지 수업을 묶어서 하나로 표현한 수업모형이다. 그 결과, 협동학습 안에는 다양한 수업모형들이 있다. 직소수업을 예로 들어보자. 직소 수업 모형은 4명 정도의 학생들이 한 모둠이 되게 학급을 구성한 후, 그날 배워야 할 학습내용을 학생들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 위주로 구성하여 학습내용을 4개로 나눈다. 그런 후 모둠별로 4명의 학생들은 4개의 과제 영역에 대하여 자신들이 전문가가 되어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을 나눈다. 이렇게 모둠별로 4개 과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정해지면 이제 각 모둠에서 나온 전문가들 4~6명씩으로 새롭게 구성된 모둠을 만든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전문가 모둠 안에서 맡은 과제에 대하여 서로 도와가면서 공부한 후 원래 자기 모둠으로 돌아온다. 그리고는 자신이 공부해온 것을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다른 친구들은 그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학습해간다.

자, 이렇게 진행되는 직소 수업모형에서 NIE를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을까? 전문가 모둠에서 전문가 집단에게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부를 할 때 그 공부 과정에서 신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 수업 시간에 [사람들의 생활모습]에 대하여 배울 때 직소 수업모형을 위해서는 '해안지역에 사는 사람들', '산간 지역에 사는 사람들', '평야 지역에 사는 사람들', '섬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4개의 과제를 나눌 수 있다. 각 전문가들이 모인 모둠 중 하나인 '산간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공부하는 학생들은 신문 자료를 통해 산간 지역의 자연 특성은 무엇이고, 인문적 특성은 무엇인지 공부할 수 있는 '찾기'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신문을 활용하면 구체적으로 산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생한 모습을 익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렇게 직소 수업모형과 NIE를 결합시킬 경우, 직소 수업모형이 강조하는 수업목표로서 학생들 간에 협동적 관계를 강화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문 매체를 통해 생생한 현실 세계의 정보를 스스로 찾아내는 능력도 길러줄 수 있다. 바로 이런 점이 다른 수업모형과 NIE를 결합하여 수업하는 방법이고 이를 통해서 얻는 수업효과가 바로 앞서 강조하던 시너지 효과인 셈이다.

제2부

•

학습 자료로서 신문 살펴보기

1. 신문이란 무엇인가?

신문은 정보 홍수 속에서 선택과 검증을 통해 뉴스를 보도하는 미디어다. 우리 주변에 떠도는 자료를 게재하거나 뉴스의 중요도와 상관없이 나열하지 않는다. 이 가운데 정보의 가치를 따져 신문지면으로 집약과 정리를 통해 독자들에게 '가치 있는' 뉴스를 제공한다.

방송은 뉴스시간에 많은 정보를 다루지만 제한된 시간 때문에 정보의 양이 적고 상세하지 못한 편이다. 인터넷은 많은 데이터를 담고 있으면서도 빠른 속도가 강점이다. 다만 방대한 자료 가운데 어떤 것이 중요한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등을 일일이 찾아내고 스스로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해야 한다.

최근 들어 신문은 신속성이나 편리성에 있어 다른 미디어에 비하여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신문은 정보의 옥석을 가려준다. 또한 일일이 '가치 있는' 뉴스를 찾아다니는 수고를 덜어준다. 보도 내용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어 사실이나 사건의 전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신문은 기자들이 수많은 정보와 자료 가운데 중요성을 판단해 읽는 사람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쓴 기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불확실한 내용, 불완전한 정보, 소문, 허위 사실 등을 어느 정도 분별해 준다. 대신 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되는 '가치 있는' 뉴스를 신문지면에 게재한다.

신문은 이 같은 보도 기능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 신문이 지니는 기능들로는 크게 보도기능, 지도기능, 오락기능, 광고기능이 있다.

첫째, 보도기능은 사실과 현상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한다. 신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신문은 뉴스 보도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정확성을 가져야 한다. 신문은 보도기능을 충실히 지킬 때 이른바 '사회의 거울'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둘째, 지도기능은 신문이 보도를 통해 일반 독자들을 설득하고 계도해 어떠한 가치태도나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을 뜻한다. 신문은 사회현상과 문제를 그대로 옮겨 전달하지 않는다. 문제제기와 함께 개선 및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찬성·반대 등의 의견과 주장을 나타낸다. 사설, 논설, 만평, 만화, 칼럼(Column), 독자투고 등이 대표적이다. 신문에 다양한 의견과 주장을 표출함으로써 여론 형성 및 사회 변화를 추구한다.

셋째, 오락기능은 흥미 위주의 기사나 기분전환, 휴식을 돕는 정보 제공으로 독자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 소설, 피쳐(Feature: 읽을거리) 기사, 영화, 연극, 만화, 만평, 스포츠, 여행·탐방, 연예 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넷째, 광고기능은 소비자나 대중에게 상품, 서비스, 아이디어 등을 제공하고 올바른 소비생활을 위한 홍보, 계도, 교육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의 권익을 신장하고 생활수준과 문화수준을 올려주며 세

로운 상품의 수요를 창출해 사회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신문의 기능에는 긍정적인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다. 때때로 국가와 사회 안정에 위배될 수 있는 요소도 내재되어 있으며, 개인에게 좋지 못한 작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를 신문의 역기능이라고 한다.

첫째, '환경 감시의 역기능'이다. 사회현상과 사회 문제에 대한 보도가 자의적, 타의적으로 통제되면 우리 사회가 그릇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으며, 지나친 과장으로 위협과 공포감을 조성해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

둘째, '상관조정의 역기능'이다. 우리 사회의 문제 및 쟁점에 대한 논평이나 사설에 지나친 편견이 개입되어 의견과 주장을 축소하거나 누락시킨다면, 비판능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으로 볼 때 대세에 순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 '유산 전수의 역기능'이다. 매스미디어가 제공하는 규격화·획일화된 메시지는 문화적 다양성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일반 독자의 지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인간성 침해의 가능성도 우려된다. 그리고 대중 문화를 다루는 데 저질적 요소가 주류를 이룬다면 고급문화, 전통문화, 민족문화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넷째, '오락의 역기능'이다. 오락의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저속성·선정주의를 확산시킬 우려가 높고, 사회적·정치적 무관심을 유발할 수도 있다. 매스미디어가 제공하는 오락적 메시지에 의존하다 보면 스스로 즐거움을 찾으려는 능동적인 노력이 감소할 수 있다.

〈표 2-1〉 미디어 특성 비교

구분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신속성	비교적 느리다	빠르다	아주 빠르다
수용범위	개별적	집단적	(상황에 따라) 개별적 또는 집단적
수용자	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
수용자 능력	문자해독 능력 필요	특별한 교육(학습) 불필요	특별한 교육(학습) 불필요
정보 선택권	수용자(독자)	전달자	수용자(독자)
뉴스의 가치 식별	뉴스의 중요성 판단이 대체로 쉬움	뉴스의 중요성 판단이 용이함	뉴스의 중요성 판단이 어려움
정보 반복성	재독(再讀) 가능	대체로 재시청에 애로가 많음	재독(再讀) 가능
정보 전달 횟수(1일)	제한적(마감시간이 있음)	자유로움 (마감시간이 신문에 비해 편리함)	자유로움(마감시간이 없음)
정보량	비교적 대량	대량	매우 대량
정보의 정확성(신뢰성)	대체로 신뢰성이 있음	대체로 신뢰성이 있음	신뢰성 판단에 애로가 있음
정보 유해성 식별	판단(검증)이 용이함	판단(검증)이 용이함	판단(검증)이 어려움
제작단가	대체로 낮은 편	상당히 비싼 편	대체로 낮은 편
수용자 비용	월 구독료가 있음	시청료는 저렴한 편	사용료는 높은 편
운용비용	별도 비용이 없음	많은 편(수상기, 테이프 등 구입)	많은 편(프로그램, 장비·소모품 등 구입)
오락성	비교적 낮다	매우 높다	매우 높다
메시지 수준	심층적, 해설적	간결, 압축	압축, 백화점식
휴대성	쉽다	불편하다	불편하다
보관성	쉽다	대체로 애로가 많다	쉽다

2. 신문지면은 어떻게 꾸며져 있나?

신문지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국제, 오피니언 등 여러 분야로 나뉘어 기사를 싣는다. 경제, 레저, 건강 등을 섹션으로 발행하는 신문사도 있다.

신문의 얼굴은 1면이다. 신문사가 독자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뉴스 4~6개를 게재한다. 아래 <그림> 신문 1면의 중앙에 있는 기사를 머리기사(톱기사)라고 한다.

① 제호

⑬ 돌출광고

⑥ 날짜

② 창간날짜

③ 지령

⑦ 사진과 사진설명

⑧ 제목

⑬ 돌출광고

⑬ 돌출광고

④ 발행일

⑤ 판수

⑨ 기사

⑩ 기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⑫ 광고

⑭ 사고(報告)

신문에 쓰이는 명칭을 알면 신문 읽기가 한결 수월하다. 1면을 기준으로 신문 명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제호 : 신문의 이름이다. 예를 들면 ○○신문, ○○일보 등.

② 창간 날짜 : 신문이 처음 발행된 날이다. 제1호.

③ 지령 : 신문이 처음 1호부터 오늘 신문까지 발행된 횟수를 말한다.

④ 발행일 : 신문이 발행된 날짜를 말한다.

⑤ 판수 : 하루에 인쇄되는 횟수. 보통 하루에 4~6회 정도 기사, 사진 등의 내용이나 위치가 바뀐다.

⑥ 날씨 : 오늘의 날씨를 요약해 알린다. 지역별 상세한 날씨는 신문 안에 따로 코너를 마련해 소개하고 있다.

⑦ 사진과 사진설명 : 하루 동안의 중요한 사건이나 뉴스를 독자에게 시각적 이미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또 사진에 나온 장면이나 의미를 짧은 글로 설명한 내용을 사진설명이라고 한다.

⑧ 제목 : 기사, 사진설명 중심 생각이나 가장 중요한 사항을 짧은 말로 나타낸다.

독자들은 제목만 보더라도 기사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⑨ 기사 : 독자들에게 알릴 뉴스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글이다.

⑩ 기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 기사에는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한 사람과 작성자의 이메일을 밝히고 있다.

⑪ 발행 면수 안내 : 오늘 신문에 실린 중요 기사와 별지(섹션)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제목과 페이지를 알려준다.

⑫ 광고 : 지면 하단에 광고주가 신문사에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싣는다.

보통 하단에 실리지만 좌·우로 길쭉한 광고 등 형태가 다양하다.

⑬ 돌출광고 : 기사가 들어가는 중간이나 신문 제호 옆에 '독 튀어나와 알린다'는 뜻으로, 광고주가 신문사에 돈을

지불하고 게재한다. 1면에서는 신문제호 옆이나 아래쪽 좌·우에 위치한다. 일반적인 신문 광고보다 크기는 작지만 효과는 큰 편이다.

⑭ 사고(社告) : 신문사가 마련한 자사의 행사, 모집, 특집(기획), 캠페인, 공모, 지면 개편, 인사, 성금 모금 등을 알리는 곳이다.

3. 신문은 어떤 과정으로 나오나?

취재기자가 작성한 기사 모두가 신문에 실리는 것은 아니다. 기사는 뉴스 가치에 대한 검증 과정을 여러 단계 거쳐 신문지면에 게재된다. 이 같은 과정은 주로 편집국에서 취재기자 → 담당 데스크(차장, 부장) → 편집기자 → 편집 데스크 → 편집국장 순으로 이루어진다. 게재가 결정된 기사는 편집과정을 거쳐 인쇄와 발송이 이뤄진 후 독자에게 전달된다.

1) 현장 취재

매일 국내 및 해외에서는 수많은 행사, 사건, 사고 소식이 넘쳐난다. 사람, 사회, 나라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와 주장, 그리고 의견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다. 취재기자들은 이러한 뉴스(News)를 사실 여부, 정보로서의 가치, 파급 효과 등을 염두에 두고 사람이나 단체 등을 상대로 취재한다.

2) 기사작성 및 사진보도

신문 기자들은 뉴스의 현장을 찾아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와 내용을 골라 기사를 쓴다. 또한 사진기자는 독자들이 보다 빨리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뉴스 현장의 장면을 포착, 생생한 시각 정보를 제공해 준다. 작성된 기사와 사진은 노트북 컴퓨터로 신문사 편집국으로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3) 편집회의

편집국장 주재로 오전과 오후에 편집회의를 열고 신문 제작의 방향과 다음날 실릴 기사를 정한다. 취재기자, 외부원고, 국내·외 통신사 뉴스, 사진 등의 뉴스가치 여부를 세심하게 살핀다. 회의에서는 기사별 비중, 1면 머리기사, 각 면별로 주요 기사에 대한 배치, 사진 선정, 전체 지면 배치 등을 논의해 큰 골격을 세운다. 편집회의에서 정한 내용을 토대로 각 부서는 관련 기사와 사진을 다듬고 정리해서 편집부로 넘겨준다.

4) 편집

편집부에서는 취재 각 부서에서 완성된 기사와 사진을 넘겨받는다. 면별 편집기자는 독자들이 보다 쉽게 신문을 읽고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사·사진의 선택, 제목 달기, 위치·형태를 정하는 지면설계(레이아웃·Layout)를 한다.

5) 교열

취재 각 부서가 완성된 기사를 편집부의 컴퓨터로 전송하면 동시에 교열부에서도 그 내용을 살필 수 있다. 문장 구조, 어휘 선택, 표기법 등이 정확한지 점검하고, 오자와 탈자를 찾아 고친다.

6) 전산편집

편집기자의 지면설계에 따라 전산제작부에서는 전문 오퍼레이터가 화상편집기를 이용해 지면을 구성한다. 편집기자의 구상에 따라 기사, 사진, 표, 그래프, 광고 등을 알맞게 꾸민다.

7) 제판

편집기자와 전문 오퍼레이터가 화상편집을 마치면 제판담당부서로 그 내용을 컴퓨터로 전송한다. 전송 받은 데이터를 인쇄를 위한 필름으로 만든 후, 이 필름을 인쇄를 담당하는 곳으로 넘겨준다.

8) 인쇄

인쇄를 담당(윤전실)하는 곳에서는 제판에서 보낸 필름을 신문을 찍어낼 수 있는 PS판(알루미늄 판)으로 만든다. 완성된 PS판을 고속 윤전기에 걸면 자동으로 신문이 인쇄된다.

9) 발송

갓 인쇄된 신문은 발송담당 부서로 자동으로 옮겨지면서 포장을 한다. 포장이 완료된 신문들은 트럭, 항공기, 열차를 통해 전국의 신문 지국으로 보낸다.

10) 독자의 손에

지국은 배달사원을 통해 본사에서 받은 신문들을 새벽에 독자의 집으로 배달한다. 신문은 가정배달과 별도로 거리,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의 가판대에서도 구입해 볼 수 있다.

● **취재에서 배달까지** : 취재-사건 사고, 뉴스의 현장에는 항상 신문 기자들이 있습니다.



출근



기사 제보 출동



현장 취재



취재원 상주



현장 취재내용 송고



데스크 편집회의



외신 자료 점검



수사발표 기자회견

● **편집** : 컴퓨터를 이용한 CTS 편집으로 기사의 크기와 위치를 정합니다.



부서별 데스크 작업



미술팀 작업의뢰



사진 및 조사부 자료 전송



교정 교열



편집 조판 작업

● **인쇄** : 각 인쇄공장에서는 본사에서 전송된 자료를 초고속 윤전기로 인쇄합니다.



필름출력



지면 전국 전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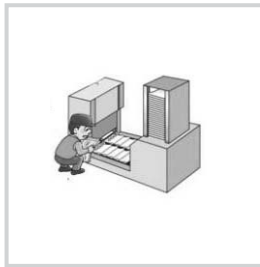
필름 교정



시험인쇄 확인 / 인쇄 시작



쇄판 걸기 - 종이 장착



쇄판 제작 / 쇠판 상태 확인

● **발송** : 어느 곳이라도 독자가 있는 곳이면 신문이 발송됩니다.



자동포장 및 바코드



신문 운송차량 적재



전 지국으로 운송



독자에게 배달



배달 준비

4. 뉴스가치는 누가 정하나?

신문사에는 하루에 일어나는 수천 건, 수만 건의 일이나 소식이 모인다. 기업, 관공서, 사회단체, 개인 등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통신사(AP, UPI, AFP, 연합뉴스 등)에서도 국내·외 수만 건의 정보가 매일 기자들의 손에 전해진다. 수많은 정보 가운데 신문지면의 제한으로 하루 200~400건의 기사가 실린다.

신문은 정보를 검증과 정제를 통해 보도하는 미디어다. 신문은 지면의 제약에 따라 기사 수가 제한적인 미디어이기도 하다.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가치 있는’ 뉴스를 알리거나 독자와 공유·공감하는 일을 ‘가려서’ 전하는 뉴스 위주로 보도한다.

‘이런 건 뉴스가 안 되나..’, ‘이거 신문에 실어야 되지 않나..’ 주변에서 겪는 사건이나 사실을 두고 흔히 하는 말이다. 취재기자들도 매일 여러 사람을 만나고 이메일, 팩스, 전화 등을 통해 수십 건에서 수백 건의 일이나 자료를 접한다. 취재기자가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선택하거나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뉴스가 된다. 특정한 일이나 자료의 당사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해도 취재기자가 관심을 갖지 않거나 신문을 통해 보도하지 않는다면 뉴스가 될 수 없다. 새로운 사실이나 사건만 뉴스가 될까? 과거에 일어난 일 또는 앞으로 있을 일일지라도 중요하거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돼 보도하면 뉴스가 되는 것이다.

취재기자가 뉴스로 판단한다고 해서 모두 기사를 작성하거나 신문에 실리지는 않는다. 신문사 편집국에는 뉴스의 가치를 매기는 사람이 여럿 있기 때문이다. 우선 취재기자가 뉴스라고 판단해 편집국에 보고하면 담당 데스크(부장, 차장)가 다시 검토하게 된다. 데스크는 기사의 가치를 살펴 뉴스가 된다고 판단되면 취재기자에게 취재 지시를 내려 기사가 작성된다. 작성된 기사는 데스크가 다시 한번 검토한 후 편집부에 넘긴다. 편집기자는 취재부서에서 넘어온 기사들을 점검하고 편집데스크와 협의를 통해 뉴스의 선택, 크기, 위치를 따져 지면 편집을 한다. 마지막에 편집국장(또는 부국장)이 지면을 전체적으로 살펴 뉴스의 가치, 지면배치, 기사위치 등을 조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게이트 키핑(Gatekeeping)이라고 부른다.

뉴스가치는 신문마다 규범, 강령, 규정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무형의 규범, 즉 관습에 의해 정해지는 경우도 많다. 신문사마다 뉴스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정해진 기준과 원칙을 바탕으로 매일 쏟아지는 정보들 가운데 독자에게 전달할 것들을 선택해 신문에 실는다. 신문은 같은 사안을 두고도 보도되는 기사가 달리 작성될 수 있다. 취재기사뿐 아니라 사설·칼럼 등 논평기사에도 신문마다 차이를 보일 때가 있다. 이는 기사의 초점, 기사내용의 범위와 수준, 강조점, 찬반 등 신문사마다 고유한 특성과 추구하는 바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런 경우 흔히 ‘신문마다 논조 또는 논지가 다르다.’라고 말한다.

신문 기자들이 뉴스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시의성 ▲영향성 ▲근접성 ▲저명성 ▲이상성 ▲신기성(진기성) ▲인간적 흥미 ▲갈등성(투쟁) ▲기록성 ▲사회성 등이 널리 쓰인다. 시대나 세태의 변화에 따라 뉴스의 가치가 달라지기도 한다.

시의성은 뉴스의 최신성이다. 비슷한 사실이나 사건의 경우, 보다 최근에 발생한 뉴스가 가치가 높다. 예를 들어 독자들은 2006년 독일월드컵에 관한 뉴스보다는 2010년 남아공월드컵 뉴스에 더 관심이 높다.

영향성은 뉴스가 미칠 직·간접적인 영향력의 강약을 말한다. 뉴스 내용에 영향을 받는 독자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한강 범람위기 사건은 서울 시내 모 구청사 앞 하천 범람위기보다 영향력이 크다.

근접성은 거리의 원근성이다. 비슷한 사실이나 사건이라면 먼 곳보다 가까운 곳의 뉴스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물가가 300% 폭등한 미국의 일보다 한국의 물가가 20% 올랐다는 뉴스가 더 가치가 높다.

저명성은 뉴스의 유명성이다. 사람이나 동물, 장소, 문화재 등이 유명한가 아니면 평범한가에 따라 뉴스 가치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그룹 소녀시대가 탄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면 일반 시민이 접촉사고를 냈다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이상성은 상식과 어긋나는 이상한 일이다. 보통 일어나는 사건과 전혀 다른 방향이나 형태로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독자들은 특별한 관심을 갖는다. 예를 들어 한 여름에도 얼음이 어는 골짜기, 온천 천국 아이슬란드, 머리 둘 달린 뱀, 상어머리를 닮은 고래의 포획 등이다.

신기성(진기성)은 흔하지 않은 일 즉 의외성이다. 신문은 주로 처음, 최초, 최대 등의 수식어를 좋아하고, 뜻밖의 결과에 관심을 가진다. 예를 들어 남북 첫 정상회담, 국내 최장 대교 건설, 2천년 전 미라 발견, 어린이 10층 아파트 추락하고도 무사, UFO(미확인 비행물체) 촬영사진 등이다.

인간적 흥미는 지적 경험보다 정서적 감정에 강한 요소다. 독자들은 희로애락, 동정심, 분노, 성, 행운 등의 반응을 이끌어 낼 뉴스에 관심을 갖는다. 예를 들어 김연아 선수 우승, 텔런트 ○○씨의 스캔들, 가출소녀의 안타까운 소식, 태풍이 몰고 온 피해, 로또 당첨 등이다.

갈등성(투쟁)은 사람이나 단체, 국가 간의 갈등이다. 권력 다툼, 전쟁, 분쟁, 동물끼리 싸움을 비롯하여 스포츠 선수들 간의 선의의 경쟁, 탐험 뉴스도 포함된다.

기록성은 후세를 위한 증거다. 인터넷 등에서는 텍스트의 수정 및 철폐가 가능하나 신문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정정보도가 아니라면 소중한 문헌의 역할을 한다.

사회성은 그 당시 사회의 가치를 담아내는 것이다. 사회변화에 따라 뉴스 가치도 변한다. 예를 들어 1960~70년대 교통사고로 10명이 사상했다면 매우 큰 비중으로 다뤘으나, 최근에는 비중을 낮게 보도하거나 보도하지 않을 때도 있다.

5. 신문 기자는 누구인가?

신문 기자는 뉴스를 취재해 글이나 사진으로 보도하는 사람이다. 국내·외의 다양한 사건, 사고와 정보 가운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취재해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신문 기자는 현장을 취재해 보도하는 취재기와 편집국 안에서 신문 제작에 직접 참여하거나 돕는 내근기자로 나뉜다. 취재기자는 정치, 경제, 사회, 체육, 문화, 국제 등 다양한 부문을 맡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도한다. 해외에 상주하며 보도하는 특파원도 있다. 내근기자는 편집, 교열(교정) 등을 맡는다. 만화·만평을 그리는 기자, 시각적 자료를 제작하는 미술기자도 있다. 최근에는 전문 분야를 다루는 전문기자도 두는 곳이 늘고 있다.

기자들이 일하는 곳은 편집국이다. 뉴스를 다루는 신문사의 핵심부로 취재, 기사작성, 편집, 교열을 담당한다. 편집국 기자의 수는 중앙 일간지 150~350명, 경제신문 120~230명, 지방 일간지 100명 내외이다. 미국, 일본 등에서 규모가 큰 신문사의 경우는 1,000여 명의 기자가 근무한다.

신문 기자의 유형은 다양하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자의 명칭을 중심으로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신문사마다 명칭과 역할이 다를 수 있다).

- 정치부 기자 :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정당, 통일부 등 정치관련 기관에 출입한다.
- 경제부 기자 :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업부 등 정부부처와 은행, 증권, 기업체를 비롯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소비자원 등을 출입한다.
- 사회부 기자 : 경찰서, 검찰, 법원 등을 출입하며 다양한 사건·사고를 다루는 법조기자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등을 출입하는 행정부처 기자가 있다.
- 문화부 기자 : 문학, 출판, 음악, 미술, 전통예술, 종교, 여성, 방송, 연예, 미디어, 건강, 과학 등을 담당한다. 최근 지면을 섹션으로 발행하면서 문화부, 생활문화부, 공연문화부, 미디어팀, 건강팀, 여성팀 등 팀으로 갈수록 세분화되고 있다.
- 체육부 기자 : 축구, 야구, 농구, 탁구, 경마, 골프 등의 종목과 함께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국제 스포츠 행사를 맡고 있다.
- 국제부 기자 :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의 소식을 분담하여 다룬다. 특파원이 취재한 기사를 보도하지만 주로 미국의 AP, UPI, 프랑스의 AFP, 영국의 로이터 등 이른바 외국의 '4대 통신'이 공급하는 뉴스를 받아쓴다.
- 사진부 기자 : 기사와 관련된 뉴스 현장이나 사람을 촬영하여 신문에 게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편집부 기자 : 취재기자와 사진기자가 보내온 뉴스를 비중에 따라 지면에 배치하고 제목을 뽑는 기자다.

- 교열부 기자 : 취재기자가 작성한 기사와 편집기자가 뽑은 제목에서 오자, 탈자, 매끄럽지 못한 문장, 맞춤법 등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 조사부(정보자료부) 기자 : 각종 자료, 데이터, 사진, 일간지, 잡지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 신문제작에 필요할 때마다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문 기자들은 매일 바쁘다고 한다. 아래 <표 2-2>를 살펴보면 바쁜 하루 일과를 이해할 수 있다. <표 2-2>는 한 조간신문의 편집국 사회부 기자의 하루 일과를 정리한 것이다. 석간신문의 경우는 근무 시간과 내용의 순서가 조금 다르다.

<표 2-2> 편집국 24시 - 신문 기자의 하루

시 간	하 는 일
오전 6~7시	출입처(담당 경찰서)로 출근 → 야간일지 확인(사건 · 사고)
오전 7~8시	확인 내용을 데스크에게 보고
오전 9시	데스크는 보고 내용 확인 → 보완 취재 및 새로운 취재 지시
오전 9~오후 4시	담당 아이템에 대한 취재와 기사 작성
오후 4~5시	기사 마감
오후 5~7시	취재 기사 추가 사실 확인 및 출입처의 새 사건 · 사고 확인
오후 7~9시	취재 기사 추가 사실 보완 후 기사 마감
오후 9~11시	출입처의 새 사건 · 사고 확인 및 내일 할 일 점검
오후 11~새벽 4시	(야간 당직 기자) 사건 · 사고 발생 수시 확인 및 제보 접수

6. 신문 기사란 무엇인가?

교재로서 신문을 활용하는 유형은 소재별, 요소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재별 구분

- ① 신문 - 신문의 형식적, 내용적인 면에서의 교재
- ② 신문지 - 수업자료나 도구로서의 교재(예를 들면 만들기, 오리기 등)

2) 요소별 구분

- ① 일반적 요소 - 신문 기사, 제목, 사진설명
- ② 시각적 요소 - 사진, 만화 · 만평 · 삽화, 표 · 그래프, 광고

신문은 지면과 마감시간이라는 제약 속에서 뉴스를 전달한다. 뉴스 전달의 가장 핵심은 신문 기사다. 신문 기사는 보도를 전제로 한 글이다. 기사는 간결함, 명확함, 정확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신문 기사는 크게 보도기사, 해설기사, 의견기사로 나눌 수 있다. 보도기사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글로 흔히 스트레이트 기사라고도 한다.

해설기사는 스트레이트 기사를 보충해 사실의 배경과 원인을 설명하거나 전망한다. 의견기사는 스트레이트 기사나 특정 사안에 대해 주관적인 해석이나 주장을 담은 글이다. 사실, 칼럼, 비평이 이에 해당한다.

신문 기사는 보통 역피라미드형, 피라미드형, 혼합형의 구조를 갖고 있다. 역피라미드형은 독자가 그 기사를 전부 읽지 않고, 요약된 첫 문장만 읽어도 기사의 핵심(요지)을 알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 피라미드형은 시간의 순서대로 쓰이기 때문에 흔히 '시간적 서술형'이라 일컫는다. 혼합형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유형을 보완한 것으로 중요한 사실을 맨 앞에 제시한 다음 나머지는 시간의 순서대로 이끌어간다.

스트레이트 기사는 역피라미드형(두괄식)으로 서술한다. 기사는 보통 육하원칙(5W 1H)-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어떻게(How), 왜(Why)-에 입각해 쓴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 요소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신문 기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기사 등 매우 다양하다. 이 가운데 흔히 접하는 기사들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정치기사

우리나라 신문의 1면에서 단골메뉴처럼 빠지지 않는 기사다. 정치기사는 정치사건, 정치쟁점, 정치현상, 권력구조 변동, 정치흐름, 정국전망, 정책, 법령 등을 알리는 기사다. 이러한 까닭에 정치기사는 객관성, 공정성, 정확성, 균형성을 두루 갖추어야 독자로부터 신뢰를 받는다.

② 경제기사

경제기사는 경제현상과 경제문제를 다룬 기사다. 우리 사회의 경제 환경을 감시하며 경제적 여론형성에 관여하고 각종 경제활동 정보를 제공하며 현장경제를 제대로 알려 시장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그러나 실제 신문의 경제기사는 독자에게 대체로 어려운 기사 중 하나다.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거나 설명이나 전망 제시가 없을수록 더욱 그러하다.

③ 사회기사

사회기사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현상과 사회생활의 여러 모습과 관련된 뉴스다. 신문지면에서 비중이 높으며 독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속, 정확, 공정, 간결한 전달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④ 문화기사

문화기사는 신속함보다 뉴스가 갖는 사회·문화적 의미와 영향을 다룸으로써 독자들에게 지적 판단력을 호소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문화의 조류를 소개 또는 비판하기도 하며, 우리의 문화현상과 방향 모색을 위한 여론형성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⑤ 스포츠기사

학생(자녀)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데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게 스포츠기사다. 과거와는 달리 스포츠기사에 대한 관심이 남녀를 불문하고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또 스포츠기사는 독자들의 건전한 체육생활을 유도한다.

⑥ 과학기사

오늘날 과학은 눈부신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과학기사는 한마디로 과학을 취재 대상으로 삼는다. 과학기사는 과학의 현상과 문제, 전문적 지식과 이론, 발명·발견, 미래에 대한 예측과 전망을 큰 틀로 하여 작성된다.

결국 과학기사는 알림기사의 성격보다 독자들에게 과학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하나의 교육적 과정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사는 종종 인류사회에 기여한 연구자와 선각자들에 대한 존경심을 유발하고 학생(자녀)들의 이상과 꿈을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

⑦ 국제기사

국제(외신)면은 세계의 축소판이라 불린다. 세계 곳곳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등의 소식을 망라한 '세계뉴스의 백화점'인 것이다. 국제기사를 통하여 독자들은 국제적 감각과 국제인으로서의 의식수준을 키우며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국제기사는 주로 특파원이나 외국 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를 말한다. 미국의 AP, UPI, 프랑스의 AFP, 영국의 로이터 등 이른바 '4대 통신'이 전 세계 대부분의 뉴스를 공급한다. 우리나라 신문들은 이들 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기사·사진·그래픽 등을 제공받아 지면에 실는다.

⑧ 환경기사

환경보도는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환경과 환경문제에 대한 검토, 각종 환경현상과 의미, 영향과 전망 등을 분석하여 독자들에게 전달한다. 환경보도는 감시기능과 더불어 여론형성과 개선방안 모색을 통하여 환경문제 해결에 일조하고 있다.

⑨ 해설기사

해설기사는 뉴스에 대한 겉모습보다 뉴스의 해당 사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적으로 설명하고 원인·동기·의미·배경 등을 쉽게 이해하게 한다. 따라서 해설 기사를 볼 때는 반드시 관련 기사와 연계하여 읽어야 내용분석이 쉽다. 관련 자료와 정보를 병행할 때 효과는 더욱 크다.

⑩ 르포(Reportage)기사

현장보고 기사로 책상 앞에서 창작할 수 없는 현장감을 생명으로 한다. 주요 특징은 첫째 현장의 변화·진실을 시간에 따라 기술하고, 둘째 가공·허구·창작적 주관은 배제하며, 셋째 다른 기사와는 달리 '육하원칙'에 그리 얽매일 필요가 없고, 넷째 원인과 결과를 서두와 결말에 반드시 밝힌다는 것 등이다.

⑪ 인터뷰(Interview)기사

인터뷰 기사는 어떤 인물이나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 주장 · 경험을 취재하여 기자가 정리 · 집필하는 기사이다. 인터뷰 기사는 그 사안이 초점화 · 쟁점화 되거나 여론형성에 도움이 될 경우, 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독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쓰인다. 사안에 따라 흥미유발 효과가 매우 뛰어나 읽을 때 선정적이거나 충동 · 모방의 우려가 있을 때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⑫ 단신

단신은 취재현장에서 일어난 사실 · 정보를 1~3개의 문장에 담아 개략적으로 보도하는 기사다. 알림사항, 공지사항, 모집, 공연, 전시, 강습, 강좌, 취업, 창업, 부업, 개업, 새 상품, 상식 기사 등이 그것이다.

7. 시각적 신문요소란 무엇인가?

신문의 뉴스 전달 수단으로는 기사뿐만 아니라 사진, 만화·만평·삽화, 표·그래프, 광고 등 시각적 요소도 많이 사용된다. 시각적 요소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신문사진

신문사진은 일반사진과 달리 보도를 전제로 한 영상 언어다.

흔히 '사진 한 장은 천 마디 글보다 의미를 전달하는 데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라고 말한다. 그만큼 사진은 뉴스 전달에 있어 현장성이 강하고 생동감이 있다. 신문사진의 종류는 대개 현장 보도, 일반 뉴스, 특집, 스포츠, 인물, 다큐멘터리, 화보, 동물·요리·패션사진 등이 있다.

참고로 사진설명(캡션)은 사진에 담긴 장면을 설명한 글이다. 대개 문장은 1~3개로 쓰고, 분량은 50~150자 정도로 짧은 것이 좋다.



산비둘기의 겨울나기

폭설 뒤 강추위가 극성을 부리면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한 산비둘기가 감나무를 찾았다

내일신문 1월 8일 1면



김연아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피겨 퀸 김연아가 2010 밴쿠버 동계 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뽑혀 20일(한국시간) 캐나다 온 타리오주 해밀턴시에서 약 300m를 달렸다. 김연아는 올림픽 공식후원사인 삼성전자의 추천으로 성화봉송 주자로 선발됐다.

한국경제 2009년 12월 21일 2면

2) 시사만화·만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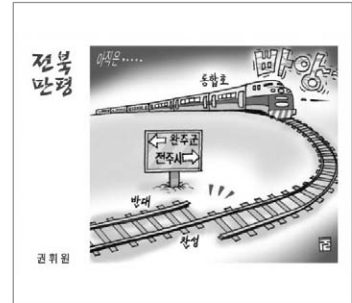
신문의 만화·만평은 현 사회의 사건이나 상황을 압축하고 있어 시대정신을 반영한다. 또 작가의 생각이나 주장을 의도적으로 단순화하고 풍자적으로 표현해 독자의 공감을 얻어낸다. 그래서 만화·만평을 촌철살인의 미학으로도 표현한다.



서울신문 2010년 1월 1일 2면



경인일보 2010년 1월 14일 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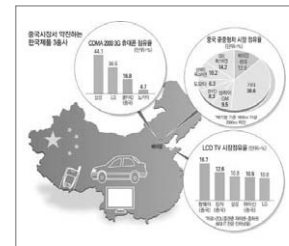
전북일보 2009년 9월 24일 2면

3) 표와 그래프

통계수치나 위치, 장소 등을 알리는 기사만 보면 그 내용을 금방 이해하기 어렵다. 이럴 경우 신문은 표나 그래프를 이용, 그 내용을 시각적으로 전달해 뉴스 이해를 돕는다. 그래프는 주로 많고 적음이나 변화, 순서 등을 비교할 때 쓰고, 표는 일이나 수치를 순서대로 정리하거나 비교할 때 사용한다.

그래프는 형태별로 점, 선, 막대, 띠, 원, 지도 그래프 등이 있다.

표는 순위, 분류, 비교, 평가, 일정 등을 나타내는 데 쓰인다.



매일경제 2009년 12월 9일 3면

4) 신문 광고

신문 광고는 '기획 → 제작 → 게재' 과정을 거쳐 실린다. 제작 과정에서 광고 대행사는 광고주의 의뢰에 따라 원하는 크기로 적정 위치에 광고가 실리도록 신문사에 요청한다. 신문사의 광고담당자는 광고주들의 요구를 조율해 광고를 지면에 배치한다.

우리나라 신문 한 면의 크기는 보통 가로 39.4cm, 세로 54.6cm다.

광고의 종류에는 광고 주체, 광고 목적, 소비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광고 주체로는 상업적 광고와 비상업적 광고로 나눌 수 있다. 광고 목적으로는 상품 광고, 이미지 광고, 공익 광고로 구분된다. 소비 대상으로는 소비자 광고, 비즈니스 광고, 전문직 광고가 있다.



부산일보 2009년 4월 10일 20면

제3부

•

NIE 수업을 위한 준비하기

1. 학습 자료로서 신문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샌디에이고대학교의 사범대 학장인 에드워드 디로쉬(DeRoche) 교수(1991)는 교재로서 신문의 교육적 가치를 3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신문은 학교에서 다양한 중요 사항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둘째, 신문은 독서와 작문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텍스트로서 가치가 있다. 셋째, 신문은 시민사회와 지구촌을 아우르는 능력을 키워주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디로쉬는 교수·학습 자료로서 신문의 중요성을 <표 3-1>과 같이 크게 5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표 3-1〉 교수·학습 자료로서 신문의 효과

신문의 효과	내 용
동기 부여 (Motivation)	신문은 재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정과 학교를 연결하는 훌륭한 다리 역할을 하며, 전통적인 학교 교재보다 더 많은 흥미를 유발시킨다.
정보 제공 (Information)	신문은 두 가지 기본적인 정보의 물음들, 즉 '무엇이 어떻게 됐나?(뉴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사설·칼럼)'에 답하는 뉴스매체이므로 중요한 교수 자료가 된다.
통합성 (Articulation)	신문의 내용 자체가 다른 중요 사항이나 능력을 함께 길러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치 만화를 통해 이해력과 상징, 풍자 등을 가르치려면 자연스럽게 그 만화의 배경이 되는 정치인이나 정치 사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따라야 한다.
감상력(Appreciation)	정보와 서비스의 원천으로서 신문은 독자들의 문제해결과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협동학습 (Cooperation)	토의와 토론을 유도하는 등 교수 방법에 변화를 줌으로써 협동학습을 자연스럽게 강화하게 된다. 또한 여럿이 문제를 풀고 프로젝트를 완성함으로써 협동하는 자세를 길러준다.

정문성·구정화·박미영(2004)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현지 교사들은 학습 자료로서 신문의 장점으로 ▲ 시사적이고 현실세계 파악에 도움이 된다. ▲ 최신 자료를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 공인된 자료로 신뢰성이 높다. ▲ 현실사회와 접목이 용이하다. ▲ 자료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학교현장에서는 신문을 학습 자료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

수업용 신문자료의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 일간 신문은 학생을 위한 교재용이 아닌 성인들을 위한 정보매체다. 이런 까닭에 교사에게 성인시각의 정보매체를 가공해 학습자 수준에 맞는 학습 자료의 선택과 재구성이 필요한 것이다. 최상희(2003)는 수업에 제공될 '교재로서 신문'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적합성'이다. 신문 기사의 어휘 수준, 용어의 난이도, 흥미 유도 등과 내용·주제를 다루는 방식 및 기사의 효과 등이 적절한가를 살펴야 한다.

둘째, '신뢰성'이다. 신문 종사자들이 취재와 보도 활동에 성실하고 진취적이며, 공정하며 도덕성을 갖추고

그 내용이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흥미 및 동기 유발성'이다. 기사 작성과 편집에 선정성이 없고 학생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유발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넷째, 신문사 종사자들의 자발적 추진 의지 및 참여 의지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언론자유 확보'이다. 신문사가 정치적·경제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하고 안정적 경영을 유지하면서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교육, 과학, 지역사회,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자유로운 취재 및 보도 활동과 기사 작성을 보장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여섯째, '긴밀한 협조'이다. 학교가 바라고 요구하는 사항과 신문사의 애로와 희망사항이 거리낌 없이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교환되어야 한다.

일곱째, '상품'이라는 측면이다. 종이의 질과 인쇄상태가 비교적 양호해야 하며, 깨끗한 편집상태(지면 구성), 활자와 지면의 가독성, 사진·삽화의 적절한 사용, 시각적 효과가 뛰어난 컬러의 사용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여덟째, '경제적 여건'이다. 아무리 좋은 교재(신문)라 할지라도 구입비용이 많이 소요될 때는 오히려 교육 효과를 반감시킬 가능성이 있다. 해당 학교·교사 혹은 '신문선정관리위원회'는 학생들의 부담이 가급적 낮은 적절한 가격의 신문을 선정해야 한다. 물론 신문사 측의 홍보용 신문, 날짜가 지난 신문을 무상으로 공급받거나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받는다면 신문 선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 신문을 읽으면 좋은 점

1. 신문은 교육 '현장' 과 사회 '현실' 을 이어준다.
2. 신문에는 다양한 글의 장르, 폭넓은 용어와 어휘 사용, 주제에 대한 명확성, 간결한 문장 등 모범적인 표현이 많아 글쓰기 모델로 적합하다.
3.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말하고 토론하는 능력 계발을 돕는다.
4. 사회의 다양한 생각, 주장, 의견, 사상을 비롯하여 여론이나 동향을 알 수 있다.
5. 수업에 적용하려는 최근의 소재들을 다양하게 담고 있어 수업에 생동감과 흥미를 높일 수 있다.
6. 신문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얻거나 이해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돕는다.
7. 신문을 읽음으로써 사회에 대한 안목과 비평능력이 자연스럽게 생겨나 사회문제나 자치활동에 자발적 참여의식을 갖게 해준다.
8. 신문은 세상을 사는 지혜가 담긴 '정보백과사전' 이다.
9.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하여 건전한 인간성 함양을 돕는다.
10.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이해할 수 있다.

2. 수업에 사용할 신문 자료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준비하도록 할까?

모든 수업이 그렇듯이 NIE를 할 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날 수업에 필요한 소재가 바로 전날이나 그 전날의 신문에 항상 나와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학생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잘 알아서 미리 이전의 신문 기사를 잘 준비해 두었다가 수업이 시작되면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사가 미리 학생들에게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그 방법을 찾아보자. 내가 내일 수업에 사용할 소재나 주제가 오늘 신문에는 안 나오겠지만, 몇 달 전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사실 신문을 조금만 열심히 살펴보면 며칠 전의 신문에서도 관련 기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수업의 자료로 사용할 신문 기사는 미리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당장 내일 수업에 사용할 신문 자료를 하루 전에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하도록 과제를 내준다. 그러면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신문 자료를 준비해 두었다가 들고 올 것이다.

몇 개월 전에 미리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NIE를 할 단원에 대하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자, 계획 세우는 방법을 보자.

첫째,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담당할 학년이 결정되면 그 때부터 시작하자.

둘째, 가능한 2월부터 교사용 지도서나 교과서를 보고 NIE를 할 수 있는 수업 단원을 찾아보자. 특히 국어, 도덕, 사회, 과학 등 잘 찾아보면 다양한 단원에서 신문 활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셋째, NIE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단원에서 신문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주요 주제나 소재를 정리해 키워드를 적어보자. 예를 들어 특산물을 배우는 수업 시간에 신문 자료를 활용하겠다고 생각했으면 ‘특산물’이라는 키워드를 적어두면 된다.

넷째, 인터넷 신문을 활용하여 자료를 찾아보자. 미리 교사가 신문 검색을 통해 그 이전 해에 비슷한 신문 기사 자료들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전에 미리 신문 기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NIE 단원으로 정리해야만 학생들도 신문 기사를 찾아서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섯째, 이렇게 단원별로 정리가 되었으면 대략 언제쯤 NIE를 하고, 그 때 필요한 신문 기사의 주제나 소재를 정리하여 NIE를 위한 신문 찾기 목록을 만든다.

목록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표 3-2〉 NIE 수업 준비 계획서 예시

일시	수업 단위	신문 기사 소재나 주제
3월 2째주	우리 고장 특산물 알기	특산물, 특용작물
3월 2째주	우리 고장 홍보물 만들기	유적지, 관광지, 유적 등

여섯째, 신문 찾기 목록을 만들었다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간단한 안내문을 만든다. 학생의 담임 교사로서의 인사, 신문의 중요성, NIE의 필요성과 효과, 앞으로 우리 교실에서 NIE 실시 계획에 대한 안내, 그리고 계획표를 첨부하였다는 것을 서술한다.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가 가정에서 신문을 1종 이상 보면서 관련된 자료가 나오면 스크랩해두었다가 수업이 임박했을 때 학교로 보내달라는 내용을 기술하여 보내면 된다.

이렇게 하여 학생들이 학부모들의 도움을 받아서 수업에 필요한 신문 자료를 만들어 미리 준비할 수 있으면 NIE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는 끝난 셈이다. 이제 학생들은 수업 스케줄에 맞추어 신문 기사를 찾고 오려두었다가 수업이 되면 신문 기사를 들고 올 것이다. 그런데 이 때 다시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그 문제는 바로 학생들이 신문 기사를 읽지 않고 그냥 온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업하기가 난감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학생들이 신문을 그냥 오려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읽고 오게 해야만 제대로 된 NIE를 할 수 있다. 학생들이 미리 읽어오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신문 기사를 가져오게 하면 학생들은 신문을 오려서 들고 오거나 인터넷 신문 기사를 출력해서 가져온다. 교사가 NIE를 통해 학생들에게 길러주고 싶었던 ‘읽기 기능’이나 ‘쓰기 기능’을 미리 발휘하여 신문 기사를 준비해오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 제대로 된 NIE와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읽기와 쓰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신문 기사를 읽고 이해하도록 준비를 시켜야 한다. 이 때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잘 짜여진 ‘신문 기사 자료 조사하기’ 양식을 제시하고 그 절차를 알려주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자료 조사절차를 알려줄 때는 다음과 같이 활용하면 된다.

첫째, 다음과 같은 양식을 A4 용지로 미리 만들어 복사해 두었다가(혹은 학교 홈페이지 학급 게시판에 미리 양식을 올려두어도 된다. 필요한 경우 앞서의 학부모용 편지에 이 사항을 알려주면 좋다.)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다.

둘째,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적합한 신문 기사를 찾았으면 그 기사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기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단어에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그리도록 한다.

셋째, 신문 기사에서 동그라미 한 내용을 중심으로 신문의 기사를 자신의 문장으로 정리해보도록 한다.

넷째, 양식에 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게 한다. 이 때 신문 기사의 출처 등을 밝히도록 하여 저작권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한다.

다섯째, 원래 신문 기사는 양식의 뒷부분에 풀칠을 하여 붙이도록 한다.

여섯째, 이렇게 모인 신문 기사는 주제별이나 단원별로 파일을 만들어 모으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문 기사 자료 조사' 양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구정화, 2009).

〈표 3-3〉 신문 기사 자료 조사 양식 예시

토론 주제	반 번 이름				
	자료의 중요도			(중요하지 않음)1—2—3—4—5(중요함)	
신문 기사의 내용 요약 * 신문 기사 원 자료에서 중요한 단어에 붉은색 동그라미를 칠한 후 뒷면에 붙여주세요.					
자료 출처					
신문 기사에 대한 내 의견					
모르는 단어나 용어					
새롭게 알게 된 지식					

*자료: 강대현 외(2007).

3. 신문 기사를 준비할 땐, 이런 점도 생각해야 할까?

1) 수업에서는 어린이신문만 활용해야 할까?



소년한국일보 2010년 1월 1일 1면

NIE를 하면서 느끼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신문 기사는 무엇일까’라는 것이다. 일간 신문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매체로, 주 독자층이 성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다. 그래서 신문 기사는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내용이 많다.

초등학생을 위한 어린이신문이 있다. 어린이신문을 꼼꼼히 보면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다. 첫째, 어린이신문의 경우 어린이 기자들이 참여한 기사가 있다는 점이다. 어린이신문에는 성인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도 있지만 어린이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도 있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들에게 신문 기자로서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기사를 만들어 내는 매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어린이신문은 충분히 좋은 수업 자료다.

둘째, 어린이신문의 경우 저학년용 기사를 따로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점이다. 어린이신문에서는 저학년용 기사를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있다. 이 점에서 어린 시절부터 신문을 쉽게 접하도록 도와주는 장점이 있다.

셋째, 어린이신문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주제나 그들의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시선에서 서술해내기에 어린이들이 쉽게 읽고 자신의 일상이나 생각과 비교해보도록 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 점에서도 어린이신문은 매우 좋은 교과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실제 교사가 자신의 수업에서 쉽게 사용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어린이신문은 상대적으로 일반 신문에 비해 그 기사의 양이 풍부하지 않아서 수업의 소재나 주제에 적합한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 신문에서도 수업에 적합한 소재를 찾기가 어려운데 어린이신문의 경우 초등학교 교과 학습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골고루 찾아내기엔 한계가 있다.

둘째, 어린이신문의 기사에서는 사회적 논쟁이 되는 사회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기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NIE에서는 단순히 신문 기사를 활용하여 수업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신문 기사라는 창을 통해 세상을 보는 시각을 길러주는 것을 강조한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하기엔 어린이신문의 신문 기사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

그렇다면 어찌할 것인가? 답은 하나. 초등학생을 위한 NIE에서 어린이신문만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버려보자. 아무리 학습자가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일간 신문의 기사 내용을 활용하여 수업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인지발달론자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이미 어른과 비슷한 형식적 조작기가 되어서 성인과 유사한 사고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성인들이 주로 보는 신문에 나오는 단어나 소재 자체가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신문 기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는 아닌 것이다.

다만 보통 신문을 학습의 내용으로 사용할 경우 몇 가지를 고려해 주어야 한다. 첫째는 신문 기사 내용 중 초등학생들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는 단어나 내용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학습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는 학생들이 기사 내용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대한 선행학습도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통의 신문 기사 내용에 대하여 단어나 용어, 그 소재 등에 대하여 설명을 충분히 해도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신문 기사들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수업에서의 곤란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일반 신문을 사용하여 수업하는 경우,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단어는 교사가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업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또 학생들의 이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한계는 여전히 남는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신문이 갖는 교육적 장점을 잘 활용한다면 초등학생을 위한 교육 매체로서 어린이신문뿐만 아니라 일간 신문 또한 매우 유용하다고 하겠다.

2) 신문 기사를 재구성해서 새롭게 자료를 만들어도 될까?

수업용 신문은 학습 주제에 따라 원본으로 제시할 수도 있고, 신문자료를 보완재로 삼아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수업용 신문자료의 활용법은 크게 원본사용과 재구성 후 사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구성의 유형은 ① 일부 보완, ② 일부 생략, ③ 축약, ④ 교과 자료와 결합 등 4가지로 나눈다. '일부 보완'은 교과가 요구하는 학습 주제 수행을 위해 제공한 신문자료에 또 다른 자료를 일부 추가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생략'은 학습자에게 신문자료를 제공하기에 앞서 교사의 교육적 의도에 따라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축약'은 학습자에게 제공될 신문자료의 분량이 많거나 내용이 방대할 경우 그 개념과 내용 설명을 요약,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교과 자료와 결합'은 교과서에 나온 자료를 주(主) 자료로 쓰고 교사의 교육적 의도가 반영된 신문자료를 부(副) 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최상희, 2009).

신문을 수업에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따른다. 예컨대 수업 시점과 신문보도 시점이 다른 것이 대표적이다. 또 같은 주제일지라도 교과 및 학습주제와 맞는 신문자료를 찾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수업용 신문과 NIE 프로그램에 대한 현직교사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정문성·구정화·박미영(2004)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교사들이 생각하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교사들은 학습 자료로서 신문의 단점으로 첫째, 수업 목표와 합치되는 기사를 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둘째, 영어나 수학, 과학 교과의 경우 적절한 관련성을 찾기가 어렵다. 셋째, 전공에 적합한 수준의 내용이 적다고 밝히고 있다.

교사들은 또 NIE를 하는 데 가장 큰 단점으로 "스크랩 등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평균 3.66점)를 들었다. 이어 "수업에 사용할 많은 양의 신문을 구하기가 힘들다." (평균 3.35점), "신문의 논조가 너무 달라 부담스럽다." (평균 3.21점), "수업에 사용하기에 신문의 질이 낮다." (평균 2.74점) 등이었다.

이 같은 결과를 살펴볼 때 수업용 신문자료는 교사의 사전 준비와 함께 학습주제에 맞게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신문자료의 재구성은 기존 수업주제를 염두에 두고 새롭게 탐색하거나 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재구성의 목적은 학습자 스스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수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문자료를 다듬는 것이다. 다만, 재구성은 학습 주제를 벗어나 교사의 주관에 따라 원본 내용을 본질과 다르게 임의로 변형시켜 사용한다는 것이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교사는 신문자료를 어떤 방법과 형태로 사용할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민해야 한다(최상희, 2009).

첫째, 학습자가 주어진 수업시간 내에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신문자료를 재구성해야 한다. 수업시간에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문자료를 제공하기보다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신문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둘째, 학습자의 인지 수준이나 경험 등을 염두에 두고 신문자료를 재구성해야 한다. 학습자가 제시된 신문자료의 개념 또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수업에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한 한 학급의 70~80% 정도 동의하는 수준의 신문자료가 좋다.

셋째, 교사는 수업에 제시될 신문자료를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또한 신문자료뿐 아니라 관련 자료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학습자가 신문자료와 관련되거나 연계된 개념, 현상, 쟁점, 사례 등을 질문할 때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시해 학습자의 이해를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제공될 신문자료를 비교해야 할 경우 시각이나 입장을 균형 있게 재구성해야 한다. 사회쟁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입장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 교사의 주관이 지나치게 개입되어 객관성과 공정성에 어긋나면 안 된다. 신문자료의 시각이나 의견을 교사가 판단하지 말고 찬반, 대조, 비교, 대립, 비유 등의 사례가 담긴 신문자료를 제시해 학습자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견해나 주장을 나타내게끔 유도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원본 신문자료의 의도와 다르게 왜곡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된다. 신문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해야 한다. 재구성 후 자료의 신뢰성이 낮아질 경우 재구성하지 말고 제공해야 한다.

여섯째, 인터넷 자료를 활용할 경우, 그대로 출력해 사용하지 말고 재편집해서 사용한다. 종이신문 자료를 미처 구하지 못해 부득이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자료를 대하는 학습자의 인식이 다르다. 즉 신문이라는 자료와 인터넷이라는 자료에 대한 경중(輕重)을 달리 생각한다는 현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터넷 자료를 출력해 조금은 어설프지만 신문 형태로 편집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처음부터 신문자료를 철저히 재구성해야 한다는 완벽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준비 단계부터 완성된 학습 자료를 학습자에게 제공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아무리 잘 준비하더라도 신문 보도 주제와 교과서 학습 주제 간 내용 불일치, 보도 주제와 교과서 학습 주제 간 시점 불일치, 보도 내용의 부정확 또는 내용 부족 등이 수업 중에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때 교사는 신문자료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나 실행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고 침착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4. NIE를 하고 난 후 평가는 어떻게 할까?

NIE를 하고 나서 교사는 학습자들의 성취 부분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이 질문은 사실 평가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보면 답이 쉽게 나온다. 교육에서 말하는 평가라는 것은 교수-학습을 하면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학습의 결과로 도달시켜야 할 지점이 어디인가를 확인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가 NIE를 통해 학생들에게 도달하고자 했던 교육적 목적은 무엇이었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신문에 대한 이해력, 신문 기사에 담긴 정보에 대한 이해, 분석 및 비판력, 사회와 세계에 대한 자기 나름의 시각을 갖도록 하는 것, 스스로 세상에 대하여 시선을 담아서 신문을 제작하게 하는 것 등 다양하다.

이런 점에서 NIE를 한 결과에 대하여, 지식 위주의 평가에 주로 사용하던 객관식 문제를 내어 평가하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은 평가 과정이다. 특히 신문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찾고, 이해하고, 비판하고, 만들고 하는 다양한 활동을 한 학생들에게 간결한 질문을 통해 그들이 이해한 지식의 정도를 파악하려는 문항을 구성하는 것 자체도 어렵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NIE의 평가에서 '무엇을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이 수업에서 사용한 활동과 독립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무엇을 어떻게' 는 바로 수업활동과 연관되어 있기에 수업활동을 고려하여 평가를 계획해야 한다. 더불어 학습자들이 NIE를 진행하는 과정 전체가 평가 대상이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NIE에서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는 수업을 하기 전 준비단계에서 행한 학생들의 준비물을 평가하는 것이다. 둘째는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활동에 대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셋째는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의 활동 결과물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넷째는 학생들이 수업 후 단련되었을 다양한 기능에 대하여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하나 상세하게 살펴보자.

첫째, 수업 준비 과정을 살펴보는 평가이다. 이것은 말 그대로 NIE를 하기 위해 학생들이 사전에 준비해온 것을 평가하는 것이다. 사전에 준비한 것은 무엇일까? 앞에서 학생들이 NIE를 하기 전에 자기 나름의 신문 기사를 준비하여 읽고 요약하여 정리하도록 한 양식을 제시한 적이 있다. 바로 이 양식에 적합한 학생들의 준비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 수업 준비 과정을 살펴보는 평가인 것이다. 이 평가를 하는 경우, 한 수업 시간에 사용한 신문 기사 자료만 가지고 평가해도 되고, 한 달처럼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학생이 만든 파일을 모두 보고 평가하는 활동을 해도 된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평가 기준이 있어야 한다. 첫째는 학생들이 찾아온 신문 기사 자료가 수업과 연관성이 있는가, 둘째는 신문 기사 자료를 자기 나름의 관점에서 잘 이해하였는가, 셋째는 신문 기사 자료를 적절하게 요약하였는가 등이다. 필요에 따라 교사가 자신의 기준을 더 넣어 평가하여도 된다.

둘째, 수업 과정에서 학생의 활동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평가 내용과 방법을 설명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 평가를 위해서는 교사가 수업에서 사용하는 NIE의 구체적인 활동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기사 읽기'에 초점을 두어 NIE를 했을 경우 교사가 강조하는 읽기 방법을 누가 잘 학습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참여도는 어떠했는지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방법과 그 기준은 교사가 사용하는 NIE의 구체적인 방법을 고려하면서 스스로 구성해 볼 수 있다.

셋째, 수업 후 학생의 학습 결과물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경우도 수업이 진행된 활동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평가할 대상이 달라진다. NIE를 통해 학생들이 신문 기사와 관련한 글쓰기를 배웠다면, 수업이 끝난 후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작성한 글쓰기 결과물을 대상으로 하면 된다. 이 경우 교사가 '신문을 읽고 글쓰기' 수업 과정에서 강조한 요소가 반영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면 된다. 또는 수업 과정에서 신문제작 수업을 하였다면 수업에서 학생들이 제작한 신문을 평가하면 된다. 이 때도 당연히 신문 제작에 대하여 교사가 강조한 부분이 모두 반영되었는지를 평가하면 되는 것이다. 즉 평가 기준은 바로 수업 시간에 그 활동을 하도록 하면서 교사가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면 된다.

넷째, NIE에서 강조한 기능을 학생들이 학습하였는지를 수업이 끝난 후 평가하는 방법이다. 여기서는 수업 활동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신문 기사에서 다룬 주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반영한 '사설 글쓰기'를 한다든지, 수업 시간에 신문 기사를 활용하여 토론한 후 토론 주제로 '사실 기사 쓰기'를 한다든지 등의 글쓰기 활동을 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글쓰기 활동을 통해 정보이해력이나 비판적 사고력 등이 길러졌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평가를 활용할 수 있지만 NIE의 경우 수업 중에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진 그 자체가 수업이면서 평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기에 꼭 필요하지 않다면 평가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저 신문을 가지고 열심히 놓고 배웠다는 생각을 학생들이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평가는 된 셈이다.

제4부

•

NIE 실제하기

글 읽기와 글쓰기가 교육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모든 학습의 도구가 글 읽기이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글쓰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교육에서 읽기나 쓰기가 얼마나 중요하게 지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한국신문협회 회보지에 실린 읽기와 글쓰기의 중요성에 관한 글들이다.

세계 최고의 대학 중의 하나인 하버드 대학에서는 최고의 학생들을 교육하면서 그 교육의 목표를 읽기와 쓰기에 두고 있다.

“우리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은 인류 최대 문화유산인 책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고 설득력 있는 글로 써낼 수 있어야 한다.”

‘독서와 읽기는 그것이 문예문 독서이거나 또는 아침 신문 읽기이거나 모두 적극 권장되어야 할 사회와 국가의 운동지표가 되어야 한다. 개인의 지적·정서적 성장, 사회의 운용 유지, 국가의 성장 발전, 그리고 우리 문화의 계승 창달이 모두 읽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노명환 고려대 국어교육과 교수)

‘국민의 지력(知力)은 국력과 비례한다. 국민 대다수가 가치 있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문화 수준이 높으면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읽기는 지식을 축적하는 수단 중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가 있는 것이다.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독서를 즐기고 많이 한 사람들이다. 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지식이 빈약한 사람보다 창의력·상상력·문제 해결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 (이주행 중앙대 국어교육과 교수)

‘디지털 기술의 전문성과 디지털 문화를 상위 인지할 수 있는 능력(해석적 소양과 가치 판단 능력)은 활자 문화에 바탕을 둔 읽기나 쓰기 활동을 통해서 고양될 수 있다. 이미지와 영상도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그것이 여러 사람에 의해서 소통될 때 의미를 가진다. 소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이미지가 다양하게 해석되고 그 해석을 상호 작용함으로써 비로소 의미가 확장되고 공유된다. 이 때 이미지를 해석하고 공유하고 확장하는 것은 읽기나 쓰기이다.’ (박인기 경인교대 국어교육과 교수)

‘읽기·쓰기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언어뿐만 아니라 수학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는다.’ (일본 교육부 전국 학업능력 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를 인용) 이렇게 중요한 읽기의 힘은 어떻게 해야 생길까? 글을 읽는다는 것은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분석하며 종합·평가하는 고도의 사고과정이다. 그래서 읽는 힘은 저절로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키워야 한다. 일반 글이든 신문 기사든 제대로 읽으려면 먼저 글 속에 나오는 낱말의 의미를 알아야 하고, 글의 내용에 따라 요약하는 방법과 다양한 사고의 방법을 알아야 기사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각각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1. 신문을 어떻게 해야 잘 읽을 수 있을까?

1) 낱말의 의미를 찾으며 신문 읽기

신문은 교육을 위하여 만들어진 자료가 아니라 불특정 독자를 위한 정보매체다. 즉 신문은 성인 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신문 기사를 그대로 활용하기는 무리가 있는 매체다. 학생들의 수준이나 이해 정도를 조절 또는 재구성한 후 신문 읽기 지도가 필요하다. 교사들은 신문으로 수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가 기사 내용이 어려워 지도하는 데 애로를 겪는다고 호소한다. 일부 기사에서는 시사성을 띠고 있어 가끔 잘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낱말들로 인해 지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기사의 어려운 낱말을 사전에서 찾으며 읽다 보면 글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신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문 속에 나오는 어려운 낱말이나 새로운 용어들을 익히는 학습을 하는 것이 좋다. 어려운 낱말을 지도할 때에는 사전을 찾는 것보다는 문장 속에서 그 뜻을 알아낼 수 있도록 지도하면 좋다. 그러나 학생들이 교사가 뜻한 만큼 글의 앞뒤를 생각하며 기사를 읽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 이럴 때 학생들과 낱말을 이용한 '퀴즈'를 하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다.

(1) 낱말퀴즈를 통한 신문 읽기

이 활동은 모듈별로 진행되는 경쟁학습이다. 먼저 교사가 신문 기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낱말을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시작할 수도 있고, 학생들이 문맥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면 1~2번 읽을 시간을 준 후 바로 시작할 수도 있다. 이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낱말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돼 기사내용을 더 잘 파악하게 된다.

- 먼저 교사는 오늘 수업에 사용할 기사 속에서 새롭게 지도가 필요하거나 어려운 낱말들을 뽑는다.
학생들은 스스로 기사를 훑어 읽으며 어려운 낱말을 찾아 줄을 긋게 한다.
- 교사의 수업 계획대로 낱말을 설명하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지도한다.
- 다음은 학생들이 교사가 지도한 낱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퀴즈를 통해 낱말의 의미를 확실하게 익히는 활동이다.
퀴즈는 모둠별로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 모둠별로 한 명 씩 돌아가며 대결 방법으로 실시한다.
 - 모둠원들은 어떤 순서로 대결을 할지 협의하여 순번을 정한다.
 - 먼저 각 모듬의 1번 친구들이 일어나 대결을 한다.
 - 교사가 신문 기사 속에 있는 낱말의 뜻을 설명하면 학생들이 신문 속에서 교사의 설명과 맞는 낱말을 찾아 대답한다.
 - 대답은 교사의 설명이 모두 끝난 후 가장 먼저 발표한 학생에게 점수를 주고 그것은 팀의 점수가 된다.
 - 맞춘 모듬에 1점씩 점수가 올라간다.
 - 모듬의 다른 친구가 힌트를 주거나 대신 대답했을 때에는 실격 처리된다.
- 퀴즈를 낼 때 교사는 가능하면 낱말을 쉽게 설명한다.
- 반드시 기사 속에 있는 낱말만 정답으로 인정한다.
- 퀴즈의 특성을 살려 진행을 빠르게 한다.
- 낱말을 맞힐 때마다 1점씩 얻는다.
- 가장 많은 문제를 맞힌 팀이 우승팀이 된다. 학급의 형편에 따라 모듬 시상과 함께 개별 시상도 할 수 있다.
- 퀴즈 대회에 우승하기 위하여 각 팀은 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하는 것도 좋다.

(2) 낱말 이어가기를 통한 신문 읽기

이 활동은 학생들이 짝과 함께 기사 속에 나오는 낱말들로 이야기를 만들며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그 뜻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위함이다. 이 활동 후에 원래 수업할 글을 읽게 하면 학생들은 '아! 이 낱말이 이렇게 사용되었구나!' 하며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게 된다.

- 교사는 학생들에게 읽고 싶은 '사실을 알리거나 설명하는 기사' 속에서 10개 정도의 낱말(찍수로)을 고른다.
- 학생들은 짝과 함께 교사가 불러주는 낱말을 카드에 적는다.(카드는 A4 용지-이면지-를 10등분 한 하나를 이용하고 두 명이 한 세트를 만든다. 즉 교사가 10개의 낱말을 불러주면 학생들은 각각 5개씩 카드를 갖게 된다.)
- 학생 A가 자기가 들고 있는 카드로 이야기를 만들면 학생 B는 자기가 들고 있는 낱말 카드 한 장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만든다.
- 카드가 다 끝날 때까지 이야기를 이어간다.
- 교사는 2~3팀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었는지 발표하게 한다.
- 발표가 끝난 후 교사는 준비한 기사를 한 팀에 1장씩 나누어 준다.
- 짝과 한 문단씩 교대로 소리 내어 읽는다.(학생들은 기사를 보기 전에 이미 낱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꾸미느라 고생을 했기 때문에 기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듣는다.)
- 교사는 학생들에게 간단한 퀴즈를 통하여 글의 내용을 다 익혔는지 점검한다.

2) 요약하며 신문 읽기

(1) 새로운 사실을 찾아 요약하며 신문 읽기

신문 기사에는 독자들에게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전해주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사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대한 사실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사실 정보를 찾아 글의 의미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면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기사가 육하원칙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사의 주제나 내용에 따라 1~3개 원칙이 빠지는 경우가 있음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실제 신문을 읽어 보면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 명확하지 않은 기사를 볼 때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과 함께 어떤 내용이 빠져 이런 기사가 되었는지 찾아보는 공부를 할 수도 있다.

다음의 기사를 보자. 기사에서 육하원칙을 찾아 정리하며 요약해 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한 예이다. 이런 활동을 몇 번 반복하면 학생들은 기사를 읽을 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와 같은 사실들을 찾으려고 한다. 이러한 것들이 습관이 되면 사실 기사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게 될 것이다.

폴 포츠 공연이 무료! 신나는 6월

초여름 햇살이 눈부신 6월, 서울은 문화의 달을 맞는다. 서울시청 앞 잔디 광장은 한 달 동안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이란 이름을 달고 각종 공연을 연다. 영국 ITV 오디션 프로그램 '브리튼즈 갓 탤런트'(Britain's Got Talent)에 출연해 일약 스타가 된 폴 포츠(Paul Potts·사진)도 15일 서울광장 무대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세종문화회관·서울시립미술관·서울시립교향악단도 볼거리, 들을 거리를 골고루 챙겨줬다. 시와 산하 기관들이 준비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정리했다.

◆무료 야외 공연 풍성해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서울광장은 문화·예술로 채워진다. '춤과 공연'(Dance & Performance)이란 테마로 열리는 6월 행사들 모두 무료로 시민에게 열려 있다. 한 주에 보통 3~6개 공연이 잡혀 있는데, 매일 주제·장르가 다르다. 4일엔 '블립 데이 인 서울광장', 6일엔 '클래식 뮤지엄', 7일엔 '별밤 한타지', 8일엔 '코리안 마셜 아트'가 상연되는 식이다.

11일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15일 '폴 포츠! 서울광장에 서다'가

공연되고, 21일엔 '장근석과 함께하는 러브 콘서트'가 열린다. 서울시립교향악단도 9일 오후 7시30분 서울광장 특설무대에서 실내악단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10·12일, 16·19일, 22·26일, 28·30일에도 공연이 있는데, 자세한 일정은 120 다산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광장 무료야외공연 이달의 테마는 춤·공연

시립미술관·서울시향도 다채로운 문화행사 펼쳐

무료 야외공연은 다른 데서도 열린다. 서울시립미술관 야외광장은 4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콘서트장으로 바뀐다. 4월 말 개장한 반포한강공원도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이달 매주 금·토요일 달빛광장 일대에서 바이올린·피아노·색소폰 거리연주를 들을



조선일보DB

수 있고, 27일엔 '해설이 있는 클래식' 공연이 열린다.

◆재즈·실내악·미술전까지 다양

세종문화회관 세종대극장에서선 28일 오후 5시와 29일 오후 7시30분, 1000원에 볼 수 있는 '재즈, 아시아를 만나다' 공연이 열린다. '이우창 콰르텟'이 한국의 해금, 중국의 얼후, 일본의 고토와 어울려 재즈 음악을 들려준다. 1만~7만원 예산으로 볼 수 있는 공연으로는 서울시극단 연극 '마라, 사드'와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명인무대', 서울시오페라단 '세빌리아의 이발사', 세계적인 오르가니스트 데이비드 생어(David Sanger)의 '파이프 오르간, 헨델을 노래하다'가 준비돼 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1·10·19·23일

무료 연주회를 준비했다. 1일 오후 3시 중랑구청 대강당에선 '임산부를 위한 태교음악회'가, 10일 오전 11시 배화여고와 오후 3시 노원평생학습관에선 '실내악단 연주'가 있다. 19일 오후 7시30분 성모자애복자관과 23일 오후 2시 구립양천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도 실내악단 연주가 열린다. 5000~7만원에 볼 수 있는 공연으로 '비르투오조 시리즈 II' '실내악 시리즈 II' '마스터피스 시리즈 V' '희망드림 콘서트' 등이 예술의전당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지난달 28일 '행복을 그리는 화가 르누아르' 전시회를 시작했다. 9월 13일까지 계속되는 전시회 입장료는 1만2000원이며,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인상주의 대가의 작품 110점을 만날 수 있다. '국내 최초, 최대 규모 전시'라는 게 시립미술관의 자랑이다. 본관 1층에선 24일부터 700원에 '괴물시대' 전시회를 볼 수 있고, 남서울분관에선 6일부터 '미술시대: 감각의 몽타주' 전시회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김진명 기자 geumbori@chosun.com

조선일보 2009년 6월 1일 27면

육하원칙에 따라 질문해보기

- 이 행사는 누가 여는가?
- 이 행사들은 언제 열리는가?
- 6월 행사의 테마는 무엇인가?
- 각종 공연들이 열리는 장소는 어디인가?
- 이 행사에 초청되는 영국 ITV 오디션 프로그램 '브리튼즈 갓 탤런트'를 통해 스타가 된 영국인 가수는 누구인가?
- 서울의 문화행사 공연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가?

요약하기(위 질문에 답하면서)

서울시는 '춤과 공연'이라는 테마로 6월 한 달 동안 서울광장에서 '폴 포츠' 공연을 비롯한 많은 공연을 무료로 연다. 이 공연 안내는 120번 다산콜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2) 일이 일어난 차례를 찾으며 신문 읽기

신문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뤄진다. 사건들은 대부분 언제 일어났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사가 작성된다. 스포츠기사가 가장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축구경기 내용을 기사화 한 것을 살펴보자. 기사 머리에는 전체적인 결과를 기술한 후, 본문에서는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다시 전반전과 후반전 각각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한다. 이런 기사의 경우 독자들은 일어난 순서를 따라 기사를 읽으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다음 예시자료는 지구상의 한 지점에서는 몇 년 만에 한 번 씩 볼 수 있다는 개기일식에 관한 기사다. 일이 일어난 차례를 생각하며 신문을 읽으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글이다. 학생들이 기사를 읽기 전에 옆에 제시한 질문을 먼저 주고 읽게 하면 내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달이 해를 삼켰다

부분일식...인도 등은 개기일식

‘한낮에 초승달 떴네!’

22일 오전 2시간여에 걸쳐 전국에서 부분 일식이 관측됐다. 이날 부분일식은 태양의 80%가량(최대 93%)이 달 그림자에 가려진 10시50분 무렵 절정에 이르렀다. 오전 9시30분 무렵부터 달그림자가 해의 빛을 침범하는 일식이 시작되자, 전국 곳곳의 관측행사장과 거리, 옥상 등에서 많은 시민들이 짙은 필름이나 색안경 등을 눈에 대고 일식을 지켜보며 탄성을 내뿜었다. 이번 부분일식은 1948년 금환일식 이래 해가 가장 많이 가려진 일식으로 기록됐다. ▶관련기사 10면

기상청은 “부분일식이 시작되자마자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해 11시쯤엔 평균 2~4도가량 일시 하강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달그림자의 중앙에 든 인도·중국·일본(오키나와) 등 아시아 지역에선 태양이 달 뒤로 완전히 숨어버리는 ‘개기일식 쇼’가 펼쳐졌으나, 날씨가 흐린 곳이 많아 아쉬움을 남겼다. 개기일식의 최대 지속시간은 6분39초였다. 이날 일식은 인도 구자라트주 수라트에서 22일 새벽 5시28분께 시작됐

으며,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부탄 중국 한국 일본 등을 거쳐 남태평양 키리바시공화국에서까지 관찰됐다.

오철우 기자 cheolwoo@hani.co.kr

한겨레 2009년 7월 23일 1면

일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 질문해보기

- 최근 우리나라에서 부분 일식이 관찰된 것은 언제인가? ()일 ()시 ()분 경
 - 우리나라의 부분일식이 절정에 이른 때는 몇 시 몇 분경이었나? ()시 ()분 경
 - 개기일식 쇼가 가장 먼저 펼쳐진 인도는 언제 개기일식이 시작되었는가? ()일 ()시 ()분 경
 - 인도에서 관찰되기 시작한 일식은 어떤 나라들을 거쳤는지 순서대로 써 보세요.
- 인도-()-()-(방글라데시)-()-()-()-한국-일본-키리바시공화국

(3) 사실과 의견 구별하며 신문 읽기

보도 기사(스트레이트 기사)는 사실 중심으로 작성된다. 사설이나 오피니언과 같은 기사들은 사실을 토대로 의견을 밝히는 글이다. 기사 속에서 어느 것이 사실이고 어느 것이 의견인지 구별하며 읽으면 비판적으로 글을 읽게 되어 내용 파악이 더욱 정확해진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읽으면서 나의 생각을 더욱 확고하게 정할 수 있게 된다.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기사 읽기’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아 지도하면 효과적이다.

단계 1 : 학생들이 사실과 의견의 차이점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① 교사는 사실과 의견에 대한 글을 하나씩 읽어준다.

- 가장 남성다운 운동 경기는 축구이다.
- 한국인 성인 남자 1,000명을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운동경기’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축구’가 42%로 가장 많았고, ‘야구’가 38%로 나왔다.

② 학생들에게 어느 글이 사실이고 어느 글이 의견인지 물어본다.

③ 학생과 교사가 함께 토의한 결과인 사실과 의견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한다.

	사 실	의 건
특징	· 개인의 생각과는 관계없다.	· 개인적인 감정이 담겨있다.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 실험의 결과로 밝혀졌거나, 연구 결과로 얻어진 보편적인 진리이다.	· 서술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정보를 얻은 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④ 여러 가지 예시 문장을 통하여 사실인지 의견인지 구별하는 연습을 해본다.

다음 문장 중에서 사실에는 ●, 의견에는 ○를 그리세요.

가. 우리나라는 아시아에 속해 있다.

나.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노벨상을 탄 사람이 더 많다.

다. 무궁화가 국화인 까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이기 때문이다.

라. 남해에는 섬이 많아서 여름 휴가지로 가장 좋은 곳이다.

마. 장미의 색은 노랑, 파랑, 빨강 등 여러 가지이지만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미의 색은 빨강이다.

⑤ 연습한 결과를 가지고 이 글이 왜 사실이며 의견인지 모두 토의를 통하여 다시 한 번 사실과 의견을 확실하게 구별한다.

각 항목별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또는 그렇지 않은 이유를 위의 특징을 참고로 사실과 의견을 확실하게 구별해 본다.

● 사실 : 가, 나 (구체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니까)

○ 의견 : 다, 라, 마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까)

단계 2 : 사실과 의견을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사를 찾아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며 읽게 한다.

① 2명씩조를 편성한다.

② 교사가 나누어준 기사를 읽고 사실인 문장은 파란색으로 밑줄을 긋고 의견인 문장은 빨강색으로 밑줄을 긋게 한다.

③ 짝과 함께 각각의 문장을 왜 '사실' 또는 '의견' 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아래 빈칸에 쓰게 한다.

다음 기사는 한 신문의 [사설 · 칼럼]에 실린 글이다. 사설이나 칼럼에는 이렇게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쓴다. (1)~(6)까지의 문장 중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짝과 토의한 내용을 쓰게 한다.

| 시론 |



이 창 식
KPR스포츠마케팅
연구소장

⁽¹⁾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2007년에 이어 올해도 FC 서울과 24일 친선경기를 치르기 위해 방한했다.⁽²⁾팬들에게는 맨유의 화려한 서울투어가 가슴 설레는 이벤트였겠지만 프로축구 구단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아마도 착잡한 기분을 들게 할 것이다.⁽³⁾다음 시즌을 위한 준비를 '아시아 투어'로 돌면서 팀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엄청난 돈까지 벌어들이기 때문이다.⁽⁴⁾맨유는 좋은 경기 내용으로 전 세계, 특히 아시아의 많은 팬을 확보했다.⁽⁵⁾이를 바탕으로 선수 이적, 스폰서 유치, 중계권 판매, 입장권 판매, 머천다이즈 상품 판매에서 많은 수익을 올린다.⁽⁶⁾맨유의 자산 가치는 2조 원이 넘고 연 매출은 6390억 원, 영업이익은 2000억 원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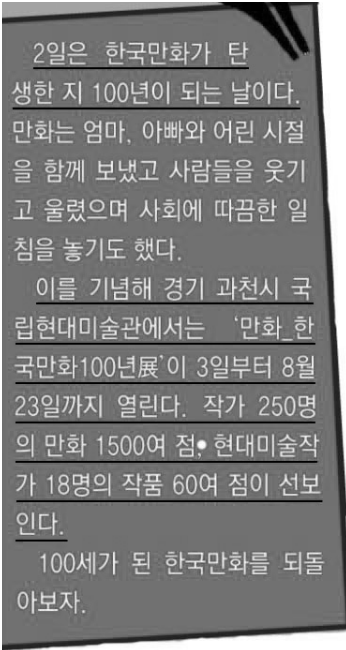
스포츠 마케팅업, 특히 프로축구단에 종사하는 모든 분은 맨유의 아시아 투어를 마냥 부러워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이제는 맨유 같은 팀을 만들어 해외 투자를 하면서 더 많은 팬을 확보하고 수익을 올릴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무슨 일부터 시작해야 할

(하락)

동아일보 2009년 7월 25일 27면

단계 3 : 사실과 의견이 모두 들어있는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쓰거나 말하게 한다.

- ① 신문에서 학습 주제와 맞는 (사설 · 칼럼)을 골라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다.
- ② 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과 사실 및 의견을 구별하는 질문을 한다.
- ③ 마지막으로 글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다.
- ④ 모둠별로 또는 학급 전체가 이 문제를 토론했고 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말하거나 글로 쓰게 한다.



· 이 기사에서 밑줄을 그은 부분은 사실이다.

이 사실들에서 얻은 정보는 모두 몇 가지인가?

아래에 써 보자

· 만화에 대한 기사의 의견(생각)은 무엇인가? 기자는 만화의 어떤 면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고 했을까?

- 자신의 의견을 적어보자.

- 이 의견에 동의하는가? 그렇다면 자신의 의견을 적어보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적어보자.

(4) 추론하며 신문 읽기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사람’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지 아닌지 걱정하며 살아간다. 우리 생활 속 대부분의 행동들은 추론을 통하여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추론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잘 생각해 본 후에 추측하여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정태선 외, 1999).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지만 교과 교육에서도 추론의 능력을 높이는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

국어과를 살펴보면 ‘뒷받침이 되는 세부 내용 추론하기’, ‘중심 생각 추론하기’, ‘비교 추론’, ‘인과 관계 추론’, ‘인물의 특성 추론’, ‘결과 예측하기’ 등 많은 부분이 추론하기를 공부하는 것들이다. 중요한 추론하기는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좋을까? 국어과 교수·학습법에 따르면 추론하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신헌재 외, 1996).

첫째, 반드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교사의 평소 질문에서 추론적인 질문을 덧붙인다.

셋째, 학습이 조금 부진한 학생이라고 해도 충분한 추론적 질문을 해야 한다.

추론하기의 지도 단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단계1 : 추론 인식하기

① 교사는 추론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추론 과정을 시범으로 보인다.

(글쓰기가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암시하고 있는 내용 찾기)

② 추론을 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미리 알고 있는 지식을 꺼낼 수 있게 돕는다.

정보 :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이루어지는 개기일식을 보기 위해 많은 유럽 사람들이 인도와 중국으로 여행을 떠났다.

가정할 수 있는 추론 : 개기일식은 보기 힘든 일이다.

개기일식의 모습이 일부러 여행을 가서 볼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 등

③ 학생들이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 쉽게 추론할 수 있는 활동을 해본다.

단계 2 : 추론하기 학습의 예

① 글 속에서 생략된 부분 찾기

기사는 지면의 제한으로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다. 독자들이 읽고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생략한다. 내용 생략 속에는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 정보들이 있다. 추론 문장 속에서 글을 쓴 사람이 이미 독자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 정보가 무엇인지 찾아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 옛 어른들은 '쇠고기로 국을 끓일 때에는 여름 고기보다는 겨울 고기가 맛있다.'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옛날 우리나라 여름 소는 주로 풀을 먹지만, 겨울에는 여물을 먹기 때문이다. 여물은 건초에 각종 곡식의 중간 껍질을 함께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고기가 맛있다고 한다. 이렇게 정보를 알고 있으면 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쉬운 예로 공부해보자.

제시된 문장	우리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 정보
· 영화관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 기상 예보를 들은 후에 우산을 가지고 가기로 결정했다.	· 재미있는 영화를 상영한다. · 오늘 비가 올 확률이 높다.
· 2011학년도부터 초·중·고교생들이 한 학기에 배워야 하는 교과목수가 최대 5과목 줄고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 비교과 시간이 주당 2시간에서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런 문장의 경우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가 활성화 된다. · 지금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목 수가 많다. · 비교과 시간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② 이어질 내용 추론하기

교사는 예시 문장을 제시하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학생들과 함께 추론하는 연습을 해본다. 연습을 한 후에는 학생들이 친구와 같이 다음 문장을 추론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추론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추론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시된 문장	추론하여 이어질 문장
현재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로 돼 있는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중학교 3학년까지로 1년 축소되고 고교 과정은 학생의 진로, 학교 자율에 따른 선택 중심으로 개편된다.	· 이어질 문장 :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때는 그 학교의 교육과정을 잘 보고 학교를 선택해야겠다. · 이유 : 교육과정을 학교별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에 가기 위해서

기사	개기일식, 평균 18개월에 한 번꼴 일어난다 내년 1월 아시아서 금환일식 7월엔 남미서 개기일식 지구상 한 지점선 300년마다 관측할 수 있어 22일 한반도에서 61년 만에 가장 큰 부분일식, 인도와 중국·동남아 등지에서 있었던 개기일식의 감동은 하루가 지나도 여전히 머릿속을 맴돈다. 어쩌다 이번엔 보지 못한 분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땅을 치고 아쉬워할 만 한 일은 아니다. 화려한 개기일식의 우주 쇼는 한반도는 아니지만 지구촌 어느 곳에선 가 평균 18개월에 한 번꼴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아비가 좀 들어서 그렇지 일식(日蝕)은 동년과 달리 꽤 자주 접할 수 있는 체험이란 이야기다. 당장 내년 1월 15일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11분8초의 금환일식(한국에서는 부분일식), 내년 7월 11일 남미 지역에서 5분20초간의 개기일식이 기다리고 있다. 부분일식을 제외하고도 2001년부터 지금까지 여섯 번의 개기일식, 다섯 번의 금환일식, 그리고 개기일식과 금환일식이 함께 일어나는 하이브리드일식 한 번 등 모두 12번의 우주 일식이 있었다. ◆일식은 네 종류=일식은 태양이 달에 가 러지는 현상이다. 지구-달-태양이 일직선상에 놓일 때 일어난다. 달이 태양을 얼마만큼 어떻게 가리느냐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된다. ▶달이 해를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 ▶달이 해 속으로 들어가 달 주변에 반지 모양의 태양 테두리가 나타나는 금환일식 ▶개기일식과 금환일식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하이브리드(혼성)일식 ▶달이 해의 일부분을 가리는 부분일식이다. 이 중에서 가장 드문 것은 하이브리드일식이다. 2005년 4월 8일에 이어 8년여 만인 2013년 11월 3일에 나타난 정도로 희귀하다. 금환일식이 일어난 뒤 개기일식이 뒤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미국 우주항공국(NASA)의 일식 홈페이지(http://eclipse.gsfc.nasa.gov/eclipse.html)에서 일식과 지역을 확인한 뒤 관측 일정을 잡으면 좋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달과 태양 간의 거리 때문이다. 달이 지구 쪽에서 멀어져 달-태양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 금환일식이 일어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 거리가 멀어져 개기일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개기일식은 지구-달-태양이 일직선으로 있을 때 달이 지구 쪽으로 가까워지면 일어난다. 달은 태양의 400분의 1 크기로 작지만 달이 지구에 가까워져 겉보기 크기가 같아져 해가 완전히 가려지는 것이다. 한국천문연구원 김봉규 박사는 “개기일식은 지구-달-태양이 일직선이 되는 특정한 곳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 한 곳에서 개기일식을 기다린다면 평균 300년에 한 번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금환일식은 달이 지구에서 멀어지면서 지구 쪽에서 보면 달의 겉보기 크기가 해보다 작아 반지 모양의 태양 테두리가 생긴다. ◆최장 개기일식은 2186년에=일식의 백미는 개기일식이다. 개기일식 지역은 보름달 반처럼 어둡해지고 기온도 떨어진다. 그러나 부분일식은 태양이 달에 99%가 가려진다 해도 꽤 밝다. 태양은 보름달 밝기의 100만 배 정도 밝은 데, 99%가 가려져도 태양의 밝기는 보름달 밝기의 1만 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22일 우리나라 부분일식 때 최대 93%까지 태양이 가려졌는데도 여전히 대낮처럼 밝았다. 개기일식은 이론상 최장 7분31초를 넘기지 못한다. 이번 개기일식은 6분39초였다. ◆600만 년 뒤엔 개기일식 못 봐=지구에서 더 이상 개기일식을 볼 수 없는 날이 올지 모른다. 달은 지구로부터 매년 3.8cm씩 멀어지고 있다. 600만 년 뒤에는 지금 38만5000km보다 2만3500km나 더 지구로부터 도망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구-달-태양이 일직선을 이룬다 해도 개기일식의 여건을 만들지 못한다. 다시 말해 달과 태양의 크기가 같아 보이는 거리까지 달이 지구에 근접할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다. 더욱이 태양은 점점 커진다고 하니 개기일식이 일어날 여건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박방주 과학전문기자 bpark@joongang.co.kr 일식 어떻게 일어나나
정보	중앙일보 2009년 7월 24일 22면 정보 1 : 개기일식은 지구촌 어디에선가는 18개월에 한 번 꼴로 나타난다. 정보 2 : 정보 3 :
추론하기	

(5) 중심생각 찾아 요약하며 신문 읽기

‘사람들은 옷을 입고 산다. 옷을 입는 이유는 첫째 외부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중략)’ 이 글에서는 사람들이 왜 옷을 입는지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옷을 입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낱말은 ‘옷’이며 가장 중심 문장은 ‘사람들은 옷을 입고 산다.’가 된다. 중심생각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신문 기사를 비롯하여 그림이나 사진을 함께 보여 준다. 중심생각을 찾기 위해서는 기사의 제목부터 읽는다. 본문에서는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기사를 차분하게 잘 읽으며 화제의 쟁점이 무엇인지, 핵심단어는 어떤 것인지 등을 생각하며 읽으면 글의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① 어휘를 범주화해서 핵심 낱말 찾기

중심생각을 찾으려고 하면 먼저 글을 대표할만한 낱말이 무엇인지 찾아보면 도움이 된다. ‘바이올린, 첼로, 콘트라베이스는 현악기입니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 문장을 대표할만한 낱말은 무엇일까? 바이올린, 첼로, 콘트라베이스를 대표할만한 낱말은 ‘현악기’ 이다. 따라서 문장의 핵심 낱말은 ‘현악기’ 가 된다. 아래의 문장들을 보고 핵심 낱말을 찾아보자.

문장	핵심낱말
순이네 가게에서는 사과, 배, 참외, 수박, 토마토, 바나나, 멜론을 팝니다.	과일
우리 가족은 김구이, 멸치볶음, 고등어구이, 미역국을 즐겨먹습니다.	해산물
여름방학이 되어 시골에 가면 잠자리, 벌, 매미, 베짚이, 메뚜기 등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곤충

중심생각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글 속에서 핵심낱말을 찾는 공부를 할 때는 학년에 맞는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중심문장 찾기

무엇인가 알려주거나 주장하는 글을 보면, 핵심이 될 만한 문장과 그것을 보조하는 문장으로 기사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공룡과 운석’이라는 제목의 자연 과학 기사 중 한 부분이다. 중심문장은 글의 가장 첫 부분에 나온다. 밑줄 그은 중심문장 다음에는 중심문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멸종사건들에 관한 글쓴이의 생각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두 번째 문장을 읽어보자. 두 번째 문장은 다시 전체적인 글을 좀 더 세분화시켜 ‘공룡의 멸종’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최재천의 자연과 문화 [19]

공룡과 운석

지구의 역사에는 적어도 다섯 차례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다. 그 중 가장 최근에 벌어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6500만년 전 거대한 공룡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린 사건이었다. 1980년 알바레스(Alvarez) 부자가 제창한 이 가설에 따르면 거대한 운석이 지구에 떨어져 그 충격으로 들뜬 먼지들이 햇빛을 가려 광합성을 할 수 없게 된 식물들이 죽고, 그 식물을 먹고 살아야 했던 초식공룡 그리고 또 그들을 잡아먹었던 육식공룡이 잇따라 멸종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질학자들은 멕시코 유카탄 반도 앞바다에서 폭 150km의 거대한 웅덩이를 발견했고, 그것이 지름 10km의 운석이 초속 30km로 달려와 충돌하여 생긴 것이라는 계산까지 해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에 생성된 백악기와 제3기의 경계 지층에서 지구에는 희귀하지만 운석에는 흔히 함유되어 있는 이리듐(iridium)이 평소보다 무려 30배나 높게 발견되었다. 이 밖에도 암석이 대규모로 녹아내린 흔적 등 여러 지지 증거들에 힘입어 이 가설은 어느덧 정설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1979년에 도미하여 진화생물학에 막 입문한 내게 이 설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다. 무지하면 용맹하다 했던가? 그렇다면 왜 악어와 뱀 등 공룡과 가까운 파충류 동물들은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았을까 하는 의문들을 제기하며 나는 소수의 반대파에 몸을 담았다. 그런 내게 지난 7월 30일자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 인터넷판에 게재된 미국 워싱턴 대학 연구진의 논문은 설욕의 희열을 안겨주었다. 그들의 계산에 의하면 지난 5억년 동안 거대한 운석이 지구와 충돌했을 가능성은 아무리 높게 잡아도 겨우 두세 차례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며 그나마도 토성과 목성이 포수의 글러브가 되어 거의 확실하게 막아주었을 것이란다.

지난 5월에는 프린스턴 대학의 지질학자가 운석보다는 광범위하게 벌어진 화산 활동에 의해 공룡들이 죄다 사라졌을 것이라는 이른바 '화산설'에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설명들이 지나치게 큰 붓으로 세밀화를 그리려는 노력처럼 헛돼 보인다. 기후변화의 영향 속에 털가죽을 입고 나타난 우리 조상 포유동물과의 경쟁에서 지나치게 비대한 공룡들이 뒤처지고 말았다는 생물학적 가설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화여대석좌교수·행동생태학

조선일보 2009년 8월 11일 30면

글을 읽으며 중심문장을 찾고 나면 나머지 글들이 어떤 내용들을 담아갈 것인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쉽게 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중심문장은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글의 끝이나 중간 중간에 나오는 경우도 있다. 신문 기사는 가장 핵심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글의 앞부분에 쓰는 경우가 많다.

3) 글의 구조를 파악하며 신문 읽기

글을 읽는다는 것은 글의 내용과 구조를 파악하는 과정이다. 신문을 읽을 때 글의 조직을 생각하며 읽는다면 글의 세부사항에만 몰입하지 않게 되고 전체를 한 눈에 보는 힘이 길러진다.

글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학습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글의 내용에 따른 구조를 그림을 그리며 정리하면 글의 내용을 더 쉽게 알 수 있다.

(1) 이야기 구조로 된 기사읽기

신문에는 전기형식을 띤 위인들의 이야기나 연재소설, 기타 이야기 구조로 된 글들이 나온다. 이러한 글들은 일반 신문 기사처럼 읽으면 그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 이런 글들을 읽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으면 효과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다.

단계 1 : 이야기 글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요소 알기

이야기 글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 이 글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어떤 성격과 특징을 가진 인물인가?
- 이 인물들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일들은 어떤 일들인가?
-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은 어디인가?

이 세 가지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나면 글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흥부와 놀부'라는 전래동화로 예를 들어보자.

인물	사건	배경
흥부 : 부모의 유산을 모두 형에게 빼앗기고도 형을 원망하지 않을 정도로 착하고 자식을 많이 둔 놀부의 동생 놀부 : 부모의 유산을 모두 가로챈 욕심 많은 흥부의 형	흥부네 집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살던 제비새끼가 떨어져 다리를 다친 것을 고쳐주면서 일어나는 사건	먼 옛날 우리나라 시골

단계 2 : 사건의 전개 요소를 생각하며 글 읽기

이야기 글의 구조가 인물, 사건, 전개로 이루어졌다면 이야기 글에는 인물이 우연한 기회에 생기는 어떤 사건과 그 사건들이 생기는 과정에서 등장인물의 내적인 갈등 등에 따라 새로운 사건들이 전개된다. 사건의 전개가 어떻게 왜 일어나는지 구조를 따라가며 읽으면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다.

배경	인물이 활동하고 사건이 전개되는 모든 시간과 공간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흥부와 놀부라는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발단	주인공의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자연적인 사건
전개	자연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전개되는 또 다른 일들
절정(위기)	그 일들로 주인공이 겪게 되는 최고의 위기 단계
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인공의 노력, 또는 주인공을 도와주는 사람의 등장으로 인한 해결을 위한 과정
결과	사건이 해결되거나 그렇지 않은 등 이야기의 결과

단계 3 : 이야기의 구성 요소에 따른 글 읽기 지도 방법

첫째, 학생들에게 이야기 글에는 구성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처음부터 신문으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전래동화나 설화, 우화 등 학생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것을 예로 들어 공부하는 것이 좋다.

둘째, 전래동화나 쉬운 이야기 속에서 필요한 구성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셋째, 자신이 읽은 다른 이야기 하나를 골라 구성요소들을 찾아본다.

넷째, 숙달되면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 글을 선택하여 구성요소를 찾아본다.

(2) 설명문의 여러 가지 구조를 알고 신문 읽기

신문에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신문 기사는 육하원칙에 따라 글을 쓰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방법을 쓰기도 한다. 기자가 자신의 생각을 잘 드러내기 위해 비교-대조도 하고,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건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 글을 쓰기도 한다. 자신의 생각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 중심문장에 그것을 잘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시자료들을 제시하기도 한다.

설명하는 글에서는 글의 구조를 파악하면 더욱 쉽게 글을 읽을 수 있다. 글의 구조에는 비교-대조 구조, 원인-결과 구조, 연대순 구조, 중심생각/뒷받침 자료 예시 구조, 육하원칙에 따른 설명 구조 등이 있다. 각각의 글의 구조를 보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알려준다면 신문의 내용을 더 쉽고 분명하게 파악하며 읽을 수 있다.

글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읽기 교과서에 보면 글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단원들이 여러 개 나온다.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 보면 글의 구조를 이해함과 동시에 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첫째, 설명문에는 여러 가지 구조가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킨다. 인식의 단계에서는 글의 구조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짧은 글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둘째, 각각의 구조에 대하여 예시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한다.

셋째, 어떤 구조를 사용하여 기사를 썼는지 찾아본다.

넷째, 구조 유형에 따라 글의 중심내용을 찾아 표나 그림으로 그린다.

○ 비교-대조 구조(공통점과 차이점 찾아비교-대조하기)

보기 글(초등학교 6-2 읽기 교과서에서)

한국의 전통 음악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연의 하나가 사물놀이이다. 사물놀이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팽과리, 북, 장구, 징 등 네 가지의 타악기만으로 구성된 놀이인데, 이는 예로부터 널리 행해진 풍물놀이에 뿌리를 두고 있다. 풍물놀이는 농악을 달리 이르는 말인데, 농사와 직접 관련하지 않고도 널리 행해지기 때문에 풍물놀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풍물놀이와 사물놀이는 사물을 비롯한 풍물을 사용하여 전통 음악을 연주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적지 않다. 우선 풍물놀이에서 쓰는 네 가지 악기 이외에도 소고, 나발, 태평소 등 더 많은 악기들이 사용되고, 양반이나 무동과 같은 가장 무용수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풍물놀이는 마당에서 춤을 추고 몸짓을 해 가며 악기를 연주하지만, 사물놀이는 무대 위에서 연주하고 춤은 추지 않는다. (중략)

비교-대조의 글을 정리하기(공통점과 차이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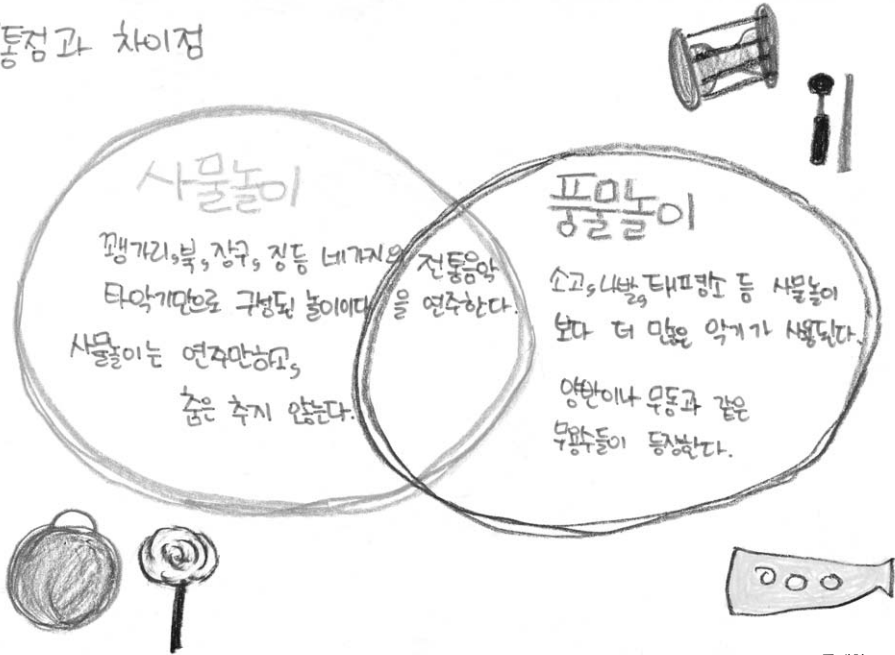
풍물놀이와 사물놀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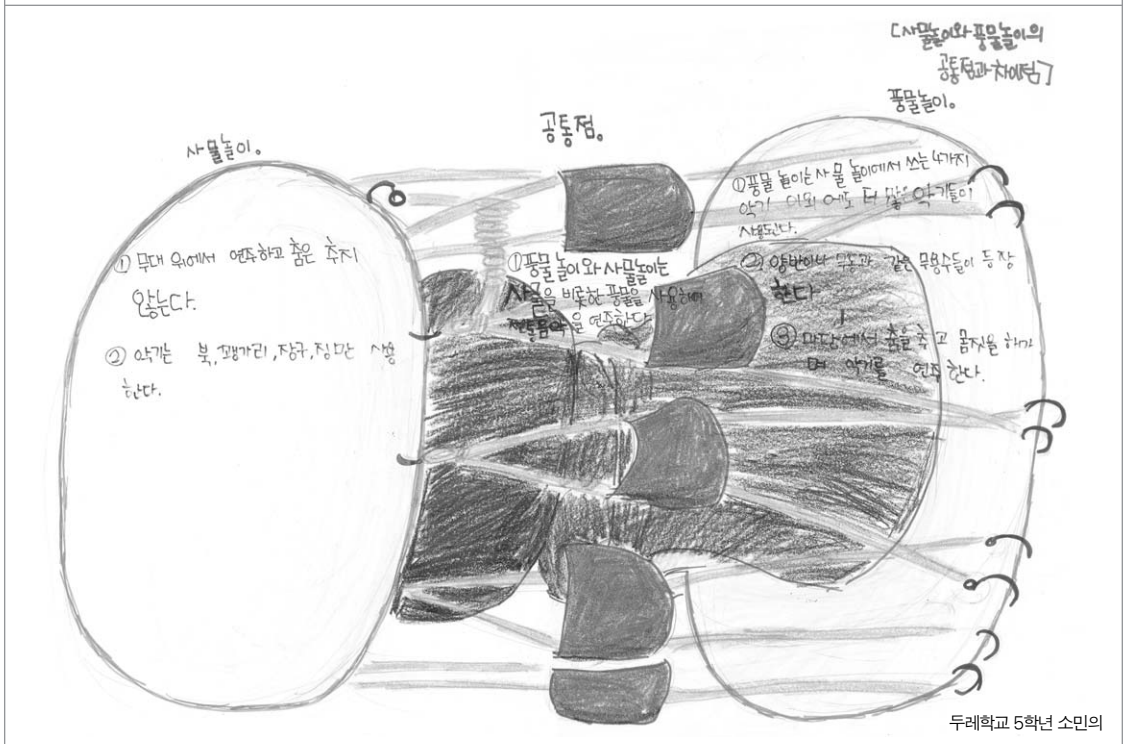
두레학교 5학년 신회호, 박하중

비교-대조의 글을 정리하기(공통점과 차이점으로)

공통점과 차이점



두레학교 5학년 박서영



두레학교 5학년 소민의

○ 원인과 결과 구조

아래 기사는 태풍 '모라꼿'의 피해를 받은 중국의 푸젠과 저장, 대만의 피해사항을 설명하고 있는 기사이다. 이런 일이 생기게 한 것은 태풍 '모라꼿'이고 그 결과는 커다란 피해가 난 것이다.

태풍·지진 상처에 쓰나미 악몽까지... 쵸 '신음'

중국과 대만, 일본을 강타한 태풍과 지진이 아시아 전역을 '천재(天災)'의 공포로 몰아넣었다. 중국 동남부와 대만을 휩쓴 8호 태풍 '모라꼿'은 11일까지 최소 500여명의 인명피해를 낸 것으로 추산된다. 9호 태풍 '아타우'의 상륙과 11일 새벽 시즈오카(静岡)현에서 발생한 강진이 겹친 일본에선 14명이 사망했다. 인도 동부해상의 안다만 군도 포트 블레이크 인근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한때 인도양 전 해상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해 2004년 수십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초대형 쓰나미의 악몽을 떠올리기도 했다.

중, 대만에선 수백명 조난

9일부터 모라꼿의 직접 타격을 받은 중국 저장(浙江), 푸젠(福建), 안후이(安徽), 장시(江西) 등 4개성은 그야말로 속대밭이 됐다. 1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주말 푸젠성에 쏟아진 2,000mm가 넘는 폭우로 최소 사망 6명, 실종 100여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90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 38만ha의 농지가 침수됐고 6,000여채의 가옥이 파괴돼 경제피해만 90억위안(한화 약 1조 6,000억 원)에 달할 정도이다.

한편 10일 밤 저장성 원저우(温州)시 평시(蓬溪)촌에선 폭우로 발생한 산사태로 4층 높이 아파트 6개 동이 무너져 주민들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화통신은 정확한 매몰자의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건물 잔해에서 6명이 빠져 나왔을 뿐, 진흙더미와 쏟아진 낙석으로 구조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50년 만에 최악의 태풍피해를 입은 대만의 남부 카오슝(高雄) 산골 마을 샤오린(小林)에선 9일 발생한 산사태로 4개 마을이 흩더미에 파묻혀 주민 500여명이 큰 피해를 입었다. AP통신과 렌하바오(聯合報) 등 대만 언론은 11일 오후 군 구조대가 헬기를 동원해 가까스로 300여명의 생존자를 구조했지만 나머지 주민들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대만 당국은 태풍으로 인해 11일 오후 현재 최소 50명이 사망했고 58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지만 샤오린의 산사태 피해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폭우와 지진이 겹친 일본

9호 태풍이 급습한 일본 열도는 남부, 중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물난리를 겪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11일까지 사흘간 도

모라꼿 강타 中 100여명 실종·이재민 900만명
대만 산사태로 4개 마을 매몰 생사 확인도 못해
日 최악의 물난리... 도쿄 인근선 규모 6.5 강진

쿠시마(徳島)현에 78.3mm, 나라(奈良)현에 52.7mm의 폭우가 쏟아져 호고(兵庫), 오카야마(岡山), 도쿠시마 현 등에서 14명이 숨지고 17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났다.

재난피해도 잇따라 전국에서 2,296채의 가옥이 침수되고 철도 등이 일부 끊겨 교통혼란이 이어졌다. 이 와중에 11일 오전 5시 7분께 도쿄(東京) 남서부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 일본열도는 한때 공포의 아침을 맞아야 했다.

지진 직후 시즈오카시의 40대 여성이 집에서 책다미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고 110명이상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언론들은 특히 '향후 30년 내 시즈오카 일대에 규모 8의 대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87%에 이른다'며 100~150년을 주기로 나

타나는 '도카이(東海) 대지진'의 등장을 우려했다.

도카이 대지진은 도카이 지역에서 1707년과 1854년에 발생한 규모 8.6과 8.4의 대지진을 말한다. 하지만 일본 기상청은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 나타나는 전조현상이 포착되지 않았다"며 이번 지진이 도카이 지진과 관련이 없음을 강조했다.

베이징=강학민특파원 local@hk.co.kr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한국일보 2009년 8월 12일 14면



두레학교 5학년 김하영

어머니·코치 오서·안무가 윌슨...

‘신화창조’ 이끈 막강 지원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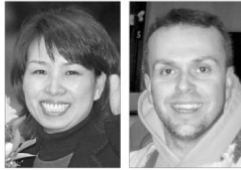
김연아(19·고려대)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 뒤에는 든든한 지원군의 조력이 함께했다.

캐나다 토론토 스케이팅&점핑 클럽에서 코치 생활을 하던 브라이언 오서(48)는 본격적으로 지도자의 길에 들어선 뒤 첫 제자로 김연아를 맞아들였다. 오서는 2007년 여름 처음 김연아의 스케이팅을 본 뒤 잠재력을 확인하고 코치직을 수락했다.

1984년 사라예보, 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 남자싱글 은메달, 87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던 캐나다의 대표적인 스타플레이어 출신이다. 오서는 김연아의 코치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어 지도자로서도 성공 가도를 걷는 중이다.

오서는 김연아의 재능에 자신의 노하우를 접목했다. 김연아는 오서와 손을 잡은 2007~2008 시즌부터 그랑프리 시리즈 5개 대회 연속 우승과 그랑프리 파이널 2년 연속 우승, 세계선수권대회 2년 연속 동메달과 금메달까지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다.

김연아는 “오서는 내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다”며 호흡을 과시하기



박미희씨

윌슨

도 했다. 오서는 세계선수권 기간에 USA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김연아를 통해 내가 끝내 이루지 못했던 올림픽 금메달의 꿈을 이루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연아의 안무를 맡고 있는 데이비드 윌슨 역시 빠질 수 없다.

제프리 버틀, 샤샤 코헨 등 유명 피겨스타의 안무를 맡았던 윌슨은 2007년부터 김연아와 함께하면서 ‘종달새의 비상’ ‘박쥐’ ‘죽음의 무도’와 ‘세헤라자데’를 탄생시킨 주인공이다. 특히 올시즌 프로그램은 김연아의 강렬한 카리스마를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연아의 쇼트프로그램 연기를 보면서 소름이 돋았다”면서 “연아는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100% 이상 잘해내고 있다”고 칭찬했다. 또 그는 “과거에는 연아가 힘들고 몸이 아프더라도 참고 훈련하는 스타일이었지만 올 들어 그는 매우 똑똑해져 스스로의 몸상태를 알고 컨트롤할 수 있게 됐다”고 만족스러움을 나타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오늘의 김연아를 있게 한 사람은 어머니 박미희씨다.

피겨황무지나 다름없었던 한국에서 딸의 재능을 죽이지 않기 위해 스스로 코치 역할을 하는 한편 매니저 역할도 도맡아 했다. 후원업체가 없었던 시절 코치비, 훈련비, 대회참가비 등 큰 부담이 됐던 경제적 지원도 온전히 부모

의 몫이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아버지의 사업이 직격탄을 맞은 위기에서도 박씨는 흔들리지 않고 딸에게 헌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제 세계적인 코치를 두고 ISU포츠의 세계적인 권리를 받게 되자 박씨는 한걸음 물러서 딸의 무대를 가슴 졸여 지켜보는 존재로 남아 있다. 박씨는 딸이 세계를 정복한 29일 관중석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 밖에 늘 부상에 시달렸던 김연아가 건강한 시즌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는 송재형 물리치료사, 국내 최고 스타가 된 김연아의 매니저먼트를 담당하는 ISU포츠 모두 몰입양원 김연아를 돕는 사람들이다.

LA | 이윤주기자 runyi@kyunghwan.com

경향신문 2009년 3월 30일 26면



두레화고 5학년 서예진, 소민의

○ 육하원칙에 따른 설명 구조

KAIST 학부생 아이디어 상품
獨-美 디자인대회 최우수-은상


 김성준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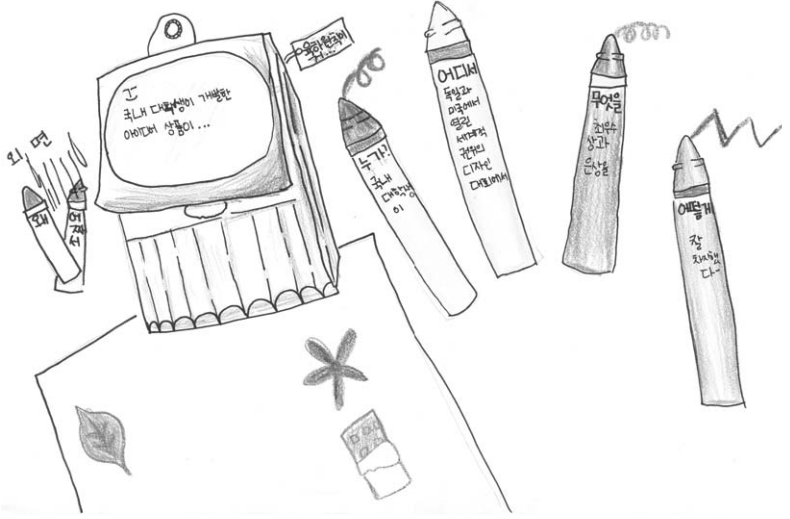
국내 대학생이 개발한 아이디어 상품이 독일과 미국에서 열린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 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은상을 각각 차지했다.


 박지현 씨

KAIST는 독일 'iF'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상'과 미국 'IDEA 공모전'에서 산업디자인학과 4학년 김성준 씨(24)가 산업 디자이너 박지현 씨(24)와 공동 출품한 '새로운 기부문화시스템(1/2 PROJECT)'이 최우수상과 은상을 각각 받았다고 1일 밝혔다.

'iF 디자인상'과 'IDEA'는 '레드닷(Red dot)' 디자인 공모전과 함께 디자인 분야 세계 3대 공모전으로 꼽힌다.

박근태 동아사이언스 기자 kunta@donga.com



동아일보 2009년 6월 2일 27면

두레학교 5학년 서예진

2. 신문을 활용한 글쓰기는 어떻게 할까?

신문을 읽고 난 후 글의 내용이나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글쓰기다. 학생들이 글쓰기를 잘 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사를 잘 읽고 이해하고, 그 기사를 활용한 학습을 한 후 글을 쓰게 하는 것이 좋다. NIE 수업모델 '중등국어', '초등사회'를 중심으로(정문성 외, 2007)에서는 NIE 수업모델을 다음과 같은 5가지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앞서 제시된 5가지 단계를 수정하여 4단계로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신문을 활용하여 글쓰기를 할 때에는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만으로도 충분히 글쓰기를 지도할 수 있지만, 기사를 토대로 토의·토론을 하거나 또 다른 학습활동을 하면 더욱 풍성한 글을 쓸 수 있게 된다. 글쓰기를 지도하다 보면 아래 제시한 각각의 단계를 어떻게 활용한 것인지에 따라 학생들의 글이 달라진다.

학생들에게 글쓰기를 지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글을 쓸 거리(소재, 주제)를 마련해주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1단계 : 신문 기사 정리하기 (훑어 읽기) : 5~10분간 독서

- ① 주로 표제나 부제, 표, 그래프, 사진 등을 훑어 읽으며 보도된 기사의 주요 흐름을 이해한다.
- ② 관심 있는 기사에 표시해둔다.
- ③ 관심기사는 보도기사보다는 의견이나 해설기사에 비중을 두고 기사를 살핀다.
학습목표에 따라서는 교사가 의도한 기사를 읽게 할 수도 있다.

2단계 : 표시된 기사 자세히 읽기

- ① 1단계에서 표시해둔 기사를 자세하게 읽는다.(교사의 읽기 지도방법에 따라 자세하게 읽게 한다.)
- ② 관심 있는 기사에 표시해둔다.(기사 내용 중 관심 있는 부분이나 중요한 내용에 표시해둔다.)
- ③ 관심기사는 보도기사보다는 의견이나 해설기사에 비중을 두고 기사를 살핀다.

3단계 : 토의 · 토론이나 또 다른 학습으로 사고 확장하기

- ① 기사에서 본 내용을 토대로 토의나 토론학습을 유도한다.
- ② 토의 · 토론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신문 이외에서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 공부하게 한다.
- ③ 토의 · 토론을 잘 하기 위해 토의 · 토론의 방법을 교사가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지도한다.

4단계 : 글쓰기

- ① 어떤 주제와 방법으로 글을 쓸지 정한다.
- ② 주제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맵핑이나 개요도 등을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생각한다.)
- ③ 위의 내용을 토대로 자신만의 글쓰기를 한다.
- ④ 다 쓴 후에는 수정과정을 거쳐 마지막에 완성된 글을 정서한다.
(글쓰기 포트폴리오에 넣어두면 자신의 글이 어떻게 향상되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물론 상급학교 전형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

1) 신문 요소를 활용한 글쓰기

신문 요소를 활용하여 글쓰기를 할 때에는 먼저 기사들의 특징을 알아야 한다. 이 기사가 사실을 보도하는 기사인지, 자신의 의견을 적은 기사인지, 해설기사인지를 알아야 학생들에게 글을 바르게 읽도록 지도할 수 있다. 글을 바르게 읽어야 이것을 활용하여 글쓰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설기사는 사건의 배경이나 원인, 생긴 문제들, 대안, 앞으로의 전망 등을 전문가가 전문성을 발휘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쓴 글이다. 이런 기사는 보도기사에서 얻을 수 없었던 또 다른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런가 하면 의견기사인 사설이나 칼럼 같은 경우는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이 깊이 담겨있다.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 기사를 읽고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글을 읽을 때에는 글을 쓴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비교하며 글을 읽도록 지도해야 한다.

무엇보다 글을 쓸 때에는 글을 쓰기 위한 준비가 충분해야 한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먼저 신문 기사를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그런 후에는 교사가 그 기사내용을 토대로 여러 가지 학습활동을 할 수 있다. 단순히 줄거리를 간추리는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 줄거리를 바탕으로 내용을 분석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일에 적용시키는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런 활동들을 마친 후에 글을 써야 다양한 글을 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신문 요소를 활용한 글쓰기를 할 때에는 과정중심 글쓰기를 해야 완성된 글을 쓸 수 있다. 과정중심 글쓰기란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는다.

- 먼저 주제와 관련하여 개요를 바탕으로 글을 쓰는 단계
- 쓴 글 고치기 단계
 - 내가 쓴 글을 소리 내어 읽으며 주제와 맞는 글을 쓴 것인지,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나 문맥이 서로 잘 통하는지, 철자법은 맞는지 등을 살핀다.
 - 친구와 바꿔서 읽어보고 이상한 부분이 없는지 서로 찾아준다.
 - 선생님의 지도를 받는다.
- 완성된 글 옮겨 쓰기 단계
 - 원래 쓴 글을 스스로, 친구의 도움으로, 선생님의 지도로 고친 글을 깨끗한 종이에 옮겨 쓴다.
 - 이 때 옮겨 쓴 글로 책을 만들 수도 있고 자신의 글쓰기 파일에 넣어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도 있다.

(1) 보도기사를 활용한 글쓰기

신문 기사는 스트레이트 기사(사실 전달 기사)가 대표적이다. 스트레이트 기사는 기사의 구성요소인 육하원칙(5W 1H)-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어떻게(How), 왜(Why)-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 요소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신문 기사는 보통 역피라미드 구조로 작성되며, 이는 독자가 그 기사를 전부 읽지 않고 요약된 첫 문장만 읽어도 기사의 핵심(요지)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도 기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스포츠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신문의 보도기사는 새로운 정보를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아래 기사를 읽고 다양한 글쓰기를 할 수 있다. 먼저 신문 기사를 읽고 어떤 글쓰기를 할 수 있을지 배워보자.

이산화탄소 배출량 10년 연속 증가

작년 2% 늘어... 한국 7위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총 315억t으로 2007년보다 1.94% 늘어났다. 한국은 6억6350만t을 배출,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내뿜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연구소(IWR)가 6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한 국가는 중국(68억970만t)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조사를 시작한 1990년 이후 줄곧 1위였던 미국은 63억6980만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처음으로 2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러시아(16억8760만t) 인도(14억850만t) 일본(13억9150만t) 독일(8억5730만t)에 이어 7위를 기록했으며 캐나다와 영국, 이란이

10위권에 올랐다.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90년 2억5700만t에서 2008년 6억6350만t으로 증가했다. 조사대상국 가운데 이산화탄소를 가장 적게 배출한 국가는 340만t을 기록한 아이슬란드다.

IWR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년 연속 증가해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년보다 5.2% 줄이자는 교토의정서가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IWR은 또 화석연료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연계시킬 것을 권고했다. 유럽의 탄소배출권이 t당 10유로라면 지난해 배출량 기준으로 중국은 681억유로, 한국은 66억 유로를 풍력 태양력 바이오연료 등 재생가능 에너지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

국민일보 2009년 8월 12일 12면

① 기사를 읽은 후 바로 할 수 있는 글쓰기

활동 1 : 보도기사를 읽을 때에는 읽은 기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위 기사에서 찾은 정보로 요약하는 글을 쓰게 해보자.

- 보도기사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육하원칙에 따라 글을 읽어본다,

- 누구에 관한 기사인가? (우리나라)
- 언제의 이야기인가? (2008년)
- 누가 어디서 조사한 내용인가?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연구소(IWR)가 65개국을 대상으로)
- 무엇에 관한 기사인가? (세계 여러 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한)
- 그 결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음)

- 기사를 읽으며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하는 글을 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위의 5가지 질문에 답을 찾아보며 그 결과를 연결하면 줄거리가 될 수 있다고 지도한다. 그러나 어느 부분을 먼저 쓰는지 학생들의 생각에 달려있다고 설명해준다. 학생들에게 글쓰기를 지도할 때 아무런 설명 없이 알아서 '요약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게 요약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보도기사의 특성을 살려 기사를 읽고 그것을 토대로 글을 요약하면 쉽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특별히 교사가 지도하지 않아도 학생들은 쉽게 기사문을 요약할 수 있게 된다.

활동 2 : 위 기사의 내용을 토대로 사칙연산을 활용한 글쓰기를 지도한다.

- 아래 문제를 잘 읽어보고 문제를 해결한 과정을 글로 써 보자.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사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했는지 아래 상자 속에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답을 구한 후 어떻게 답을 구했는지 문장으로 서술한다.

교토의정서를 보면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보다 5.2% 줄이자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2008년을 기준으로 볼 때 이산화탄소의 양을 얼마를 더 줄여야 할까?

○ 무엇을 묻는 문제인가? (2012년까지 우리나라가 줄여야 할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 답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 우리나라의 199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얼마였나? (2억 5,700만t)

- 2008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얼마였나? (6억6,350만t)

- 우리나라는 2008년에 1990년보다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얼마나 늘었는가?

(t)

○ 교토의정서는 2012년에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1990년 보다 5.2%를 줄이자고 했다. 2012년 우리나라가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얼마인가? 또 그것은 어떻게 구했는가?

(t)

()

○ 2008년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얼마나 줄여야 할까?

()

- 이 문제는 사칙연산만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실제 수업에 적용해보면 학생들은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문제를 풀기 위한 생각을 단계적으로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무엇을 묻는지 학생들이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처음 할 일이다. 다음으로는 단계별로 생각하는 방법을 지도해야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수학적인 사고력이 높은 학생이라면 굳이 이런 단계를 일일이 함께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생각하는 것을 어려워해서 문제를 풀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단계별로 생각하는 것은 논리적인 사고를 기르는 데 아주 중요하다. 교사는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위와 같이 단계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시행해야 한다.

- 교사는 학생들에게 위와 같은 사고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한 과정을 글로 쓰게 해보자.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잘 모른다면 다음과 같이 시작문장을 주고 완성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도 된다.

우리나라는 2008년 6억 6,350만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였다. 교토의정서는 2012년까지 각 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의 5.2% 이하로 줄여 배출하자고 의결하였다. 우리나라는 얼마를 더 줄여야 교토의정서에 부합할 수 있는지를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199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2008년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차이를 구하였다.

둘째, _____

② 기사 내용을 토대로 더 공부한 후 글쓰기

기자들은 기사를 쓸 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군더더기 없는 짧은 문장으로 나타내고자 한다. 기사를 읽은 학생들은 보도되는 내용 이상의 것을 알고 싶어 한다. 신문 기사로 동기 유발이 되었다면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탐구 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단계로 학생들이 탐구 학습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글로 쓰게 하면 학생들은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활동 1 : 학생들이 가장 의심을 품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교사가 찾아낸다.

(예)이산화탄소의 배출량과 우리들의 생활

활동 2 :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은 주제를 정하도록 지도한다.

(예)이산화탄소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 (활동 1)에서 교사가 제시한 주제보다 작은 것으로 정하도록 지도한다.

활동 3 : 정한 주제를 어떻게 탐구할 것인지 탐구계획을 쓰게 한다.

이 때 탐구계획서는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몇몇 친구들이 함께 할 수도 있다. 아래 탐구계획서 양식을 참고하여 학급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지도한다.

탐구 계획서

우리 팀 이름 :

우리 팀 구성원 :

○ 우리 팀의 탐구 주제는 ?

주제는 교사가 제안한 큰 탐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문제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학생들과 함께 교사의 주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주제는 무엇이 좋을지 브레인스토밍을 한 후 주제를 정하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다.

○ 주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은 어떤 것인가? (탐구문제 만들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주제와 관련지어 내가 무엇을 탐구할지 문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사는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질문인지 지도해야 한다.

○ 우리 팀은 이 탐구과제를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결)할 것인가?

자신이 만든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다.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조사하는 문헌조사의 방법, 인터넷을 통한 자료 수집, 설문조사, 현장학습, 인터뷰 등 여러 가지 학습을 할 수 있다.

○ 공부를 하기 위하여 어떤 자료를 활용할 것이며 그 자료는 어디서 구할 것인가?

신문뿐 아니라 백과사전, 책, 잡지 등 모든 자료를 다 볼 수 있다. 물론 컴퓨터에서 정보를 찾아도 된다. 이 때 교사는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책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다.

○ 우리 팀은 학습한 결과를 친구들 앞에서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

자신의 학습결과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발표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충분히 연습해 발표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 우리 팀은 각자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여 할 것인가?

어느 한 사람이 일을 도맡아 하지 않도록 협동학습 구조를 생각하고 무임승차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이 탐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우리 팀의 각오는 무엇인가?

학생들이 탐구계획서를 완성해오면 교사는 각각의 항목을 제대로 계획했는지 지도한다.

활동 4 : 계획에 따라 공부하기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이 계획한 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공부하는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며 학생들이 계획에 따라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활동 5 : 공부한 결과를 정리해 보고서 쓰기

공부한 내용은 주제설정 이유, 탐구문제, 탐구방법, 탐구결과 순으로 정리하되 컴퓨터 문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팀으로 탐구학습을 했다면 팀원이 각자 맡은 바에 따라 나누어 정리하고 나중에 서로 한 부씩 나누어 갖는다. 이 때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보고서를 쓰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넘치는 정보를 그대로 베껴 오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활동 6 : 탐구결과 발표하기

탐구결과는 창의적으로 발표하도록 안내한다. 큰 종이에 옮겨 적고 읽는 발표가 아니라 탐구결과를 완전하게 소화한 후 요약해서 발표하도록 지도한다. ‘다큐멘터리 형식’, ‘역할극 형식’, ‘인터뷰 형식’, ‘PPT 자료로 만들어 프레젠테이션하기’ 등)

활동 7 : 탐구학습을 통하여 자신이 알게 된 내용을 중심으로 ‘주장하는 글’이나 ‘알리는 글’ 쓰기

학생들은 탐구학습을 하면서 알게 된 내용, 느낀 점 등 스스로 공부하는 가운데 알아내거나 생각한 것도 많기 때문에 쉽게 글을 쓸 수 있다. 학생들의 글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 글을 누구에게 왜 쓰게 하는지 등 과정 중심으로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해설기사 및 의견기사(사설, 칼럼, 독자투고)를 활용한 글쓰기

먼저 해설기사와 의견기사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한다. 해설기사는란 보도기사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기사라고 보면 된다. 보도기사가 사건의 핵심만 적은 것이라면 해설기사는 사건의 원인이나 배경, 그로 인해 생긴 문제 등을 심층적으로 설명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올림픽에서 4강에 들었다면, 보도기사에는 우리 팀이 어느 팀과 싸워 4강에 든 내용을 신게 된다. 해설기사는 우리가 4강에 들 정도로 팀의 경기력이 향상된 이유 즉 훈련 방법, 선수

들의 태도, 감독의 작전 등을 소개하고 나아가 앞으로 경기에 대한 전망 등을 분석하여 쓴다. 해설기사와 보도 기사는 모두 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사설이나 독자투고는 어떤 사안에 대하여 해설기사처럼 원인, 배경, 앞으로의 전망이나 대책 등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독자를 설득이나 계몽 또는 지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기사를 읽힐 때에는 이렇게 기사의 특징을 생각하며 읽게 하는 것이 좋다.

① 해설 기사를 활용한 글쓰기

해설기사는 독자들에게 보도기사로 나온 사건을 좀 더 깊이 설명함으로써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쓴 글이다. 신문 1면은 그 날 기사 중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일을 보도하고 있다. 1면의 보도 기사를 읽은 후 신문을 한 장 더 넘기면 대부분 1면의 기사 중 대표적인 기사의 해설기사가 나온다.

활동 1 : 보도 기사와 해설기사의 차이를 활용한 글쓰기

- 같은 주제나 사건의 보도 기사와 해설 기사를 읽게 한다.
- 보도기사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요약하게 한다.
- 해설 기사를 읽게 한다.
- 해설 기사에서 다루는 소주제가 몇 가지인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주제에 따라 요약하는 글쓰기를 아래와 같이 지도한다.

예를 들어보자. 신문 1면에 ‘대한민국 파워 세계 13위’ 라는 보도기사가 났다. 3면에는 이 기사의 해설기사가 났는데 ‘과학기술 7위, 국방 8위, 경제력 11위’ 라고 쓰고 있다. 1면의 기사를 읽고 ‘아! 우리나라가 세계 13위의 힘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3면의 기사를 읽으면 세계 1위의 힘을 가진 나라가 어디인지 알 수 있다. 각각의 분야에서 힘이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부분, 없는 부분 그리고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등도 알게 된다. 이렇게 두 기사의 차이를 잘 활용하면 다양한 글을 쓸 수 있다.

보도기사	해설기사
주제(기사제목) : · 누가 · 언제 · 어디서 · 무엇을 · 어떻게 · 왜	주제(기사 제목) : · 해설하고 있는 부분은 모두 몇 가지인가? · 각각의 소주제를 쓰고 그 내용을 요약해보자.

· 보도기사와 해설 기사를 직접 비교하는 표를 완성하게 했다면 이번에는 보도기사로 얻은 내용과 해설 기사로 얻은 내용이 무엇인지 그 차이를 비교하는 글쓰기를 하게 한다.

활동 2 : 해설 기사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담은 의견 기사 쓰기

- 해설 기사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찾아 정확하게 읽게 한다.
- 읽고 난 후 자신이 더 관심이 있는 소주제를 정하게 한다.
- 그 소주제에 왜 관심이 있는지 생각해 말하게 한다.
- 생각한 내용을 발전시켜 해결 방법이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하게 한다.
-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의견 기사나 주장하는 글을 쓰게 한다.

② 의견 기사를 활용한 글쓰기

의견 기사는 사실과 의견이 함께 들어있는 기사다. 먼저 학생들에게 사실과 의견을 구별해 글을 읽게 하고 다음과 같은 글쓰기를 할 수 있다.

지평선

백상아리

프랑스 작가 쥘 베른이 1870년 발표한 <해저 2만리>는 지금 읽어도 재미있는 공상과학 소설이다. 현대적 잠수함이 등장하기 훨씬 전의 소설인데도 미래를 내다본 듯한 해저 탐험 이야기가 흥미진진하다. 소설에는 여러 '괴물'이 등장한다. 그 중에는 백상아리로 보이는 거대한 상어도 있다. 아로낙스 박사는 잠수함 노틸러스 호의 네모 선장과 함께 상어를 목격한 뒤 "은빛 배와 이빨로 빛나는 거대한 아가리가 피를 얼어붙게 만든다"고 말한다. 상어의 배를 가르자 물소 머리, 송아지, 심지어 제복차림의 선원 시체가 나왔다고 소설은 적고 있다.

■ 백상아리의 상징은 큰 아가리에 촘촘히 박힌 날카로운 이빨이다. 삼각형 이빨은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이다. 바다사자 등 먹잇감을 물고 단숨에 잘라 먹는데 유용하다. 이빨은 사람처럼 한 줄이 아니라 5~20개 줄을 지어 박혀 있다. 앞니가 빠지면 뒷줄의 예비 이빨이 앞으로 나와 자란다. 게다가 피부에는 피부치(皮膚齒)라는 이끼가 있다. 몸 전체가 공격 무기인 셈이다. 백상아리는 가장 난폭한 상어다. 400여종의 상어 중 식인 상어는 30종 정도인데, 백상아리 청상아리 뱀상어는 사람이 건드리지 않아도 먼저 공격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 백상아리 등 상어는 매년

4월 중순께 대만 난류를 따라 오키나와 쪽에서 한반도 해역으로 북상해 남서해와 제주도 연안 등에서 8월 말까지 서식한다. 정확한 북상 이유를 규명한 연구는 아직 없다. 번식과 먹이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증명되지 않았다. 2005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암컷 백상아리의 이동 경로를 관찰한 결과, 9개월 동안 호주까지 2만여km 거리를 왕복했다. 과학자들은 호주보다 남아공 인근 해역에 먹잇감이 더 풍부하기 때문에 번식을 위해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것으로 추정했을 뿐이다.

■ 인천 영종도 해변 갯벌에서 백상아리가 발견됐다. 수백kg의 바다사자를 한입에 해치우는 백상아리가 왜 갯벌까지 올라와 버둥대다 죽었을까. 과학자들은 관박이처럼 난류와 먹이가 원인일 거라고 말한다. 궁금증을 쫓기엔 미흡하다. 1959년 첫 희생자가 발생한 이후 식인 상어에 의한 인명 피해와 연안 경제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조심하라'는 말뿐이다. 한반도 주변해역 상어의 생태학적 습성 등에 관한 면밀한 실태 조사가 없이는 과학적인 상어 예방과 퇴치가 힘든 데도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인천 등 서해안 피서지 업소들이 여름철 장사를 망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황상진 논설위원 apri@hk.co.kr



한국일보 2009년 8월 12일 30면

활동 1 :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알리는 글쓰기

· 이 칼럼을 쓴 사람은 글의 시작을 <해저 2만리>라는 소설을 예로 들고 있다. 학생들에게 왜 이 소설을 예로 들었는지 물어본다.

· 또한 이 칼럼은 식인상어인 백상아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전해주고 있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얻은 정보를 찾아 기사에 줄을 긋게 한다.

· 마지막 문단에서는 과학자, 정부, 서해안 피서지 업소들에게 각각 다른 말들을 하고 있다.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 이제 글쓰기를 지도한다.

위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과학자, 정부관계자, 피서지 업소, 서해안으로 피서를 떠날 사람, 서해안 피서지 부근의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자신이 정한 사람에게 알리는 글, 부탁하는 글 등을 쓰게 한다.

글쓰기를 할 때 주의사항

- 누구에게 쓸 것인가?

-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가?

(상대방이 여러분의 글을 읽고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글을 써야 한다.)

- 글을 설득력 있게 쓰기 위한 예시 자료로 어느 것을 활용할 것인가?

(기사를 참고로 하지만 더 풍성한 글을 쓰기 위해 자신의 배경지식과 다른 곳에서 자료를 활용하여 써도 좋다.)

활동 2 : 의견 기사를 활용하여 설명하는 글쓰기

이 기사는 우리나라 서해안에 백상아리가 나타난 사실을 토대로 쓴 의견기사다. 이 기사는 글쓴이의 생각을 좀 더 잘 나타내기 위하여 두 번째 문단은 백상아리, 세 번째 문단은 상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쓰게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설정을 하고 설명하는 글을 쓰게 해볼 수 있다.

· 학생들에게 백과사전 집필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게 한다.

· 두 번째 문장은 '백상아리'에 대한 설명과 사전에서 설명하는 방법과는 무엇이 다른지 생각해 보게 한다.

· 먼저 국어사전, 과학사전, 백과사전에서는 '상어'를 각각 어떻게 설명하는지 찾아 읽고 차이점을 말하게 한다.

· 백과사전의 특성을 생각하고 '백상아리'를 설명하는 글을 쓰게 한다.

· 다 쓴 후에는 과정 중심 글쓰기 방법대로 읽고 수정하고 다시 정리해 완성된 글을 쓰도록 지도한다.

(3) 신문 광고나 신문 사진을 활용한 글쓰기

① 신문 광고를 활용한 글쓰기

광고는 광고하고 싶은 물건이나 내용을 신문에 돈을 내고 자신이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싣는 것이다. 광고는 그 내용을 그대로 믿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광고는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장점을 부각한 나머지 소비자들이 물건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활동 1 : 광고에서 얻은 정보를 글로 쓰기

- 관심 있는 광고 하나를 고르게 한다.
- 이 광고를 통해 내가 얻은 정보(물건 이름, 가격, 좋은 점, 물건을 살 수 있는 곳 등)를 나열해 본다.
- 광고에서 찾은 정보들을 이용해 다음과 같은 글쓰기를 하게 한다.
 - 새로 나온 상품을 소개하는 글쓰기
 - 가족들 중 한 명에게 광고에서 찾은 상품 정보를 활용하여 알리는 글쓰기
 - 광고의 내용을 보도기사나 해설기사로 쓰기

활동 2 : 광고의 좋은 점, 부족한 점을 찾아 그 이유를 글로 쓰기

- 학생들과 함께 하루치 신문에서 여러 가지 광고를 수집한다.
- 수집된 광고(의약품, 여행, 각종 상품 광고 등)를 분류한다.
- 분류된 광고가 서로 어떻게 자신의 상품을 광고하는지 비교하게 한다.

	A사	B사
광고 방법	- 상품의 좋은 점을 직접 설명	- 인기 있는 사람(모델)의 이미지를 활용
광고 내용		
가장 나타내고 싶은 부분		
카피내용		

- 두 회사 광고의 좋은 점과 부족한 점을 찾아 알리는 글쓰기를 지도한다.
 - 누구에게 글을 쓸지 대상을 결정하게 한다.
 -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쓸지 생각하게 한다.
 - 자신이 찾은 점을 중심으로 광고대상에 맞는 글쓰기를 하게 한다.
 - 글을 쓰고 수정한 후 깨끗하게 옮겨 쓰게 한다.

- 완성된 글을 '보낼 대상'에게 직접 보내게 한다.
- 활동을 하고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을 글로 쓰게 한다.

② 사진을 활용한 글쓰기

사진은 기사의 내용을 한 눈에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다. 따라서 기사 전체를 보지 않더라도 사진만으로도 기사의 내용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활동 1 : 사진 속 인물의 특징을 묘사하는 글쓰기

묘사란 글을 보고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장면을 자세하게 표현하는 글쓰기이다. 사진을 보고 묘사하는 글을 쓴다고 하면 실제로 글쓴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글을 보고 여러 장의 사진 중에서 글쓴이가 묘사한 사진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 인물의 얼굴이 크게 나온 사진 여러 장을 고른다.
- 학생들과 함께 이들 사진 속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는지, 왜 이런 표정인지 등을 함께 이야기한다.
- 눈, 코, 입 등 특정 부분만을 묘사하는 글을 쓰게 한다.
- 한 부분을 묘사한 여러 사람의 글을 한 명씩 발표하며 누가 가장 정확하게 묘사했는지 찾아보고 그 이유를 공유한다.
- 각자 자신이 선택한 인물 사진을 보고 묘사하는 글을 쓰게 한다.
- 글을 쓴 후 학급 학생들의 글과 사진을 섞어 놓고 서로 짝짓기를 해보게 한다.
- 친구들이 자신의 작품과 사진을 정확하게 짝을 지은 친구는 스스로 글을 읽어보고 수정한 후 정서하여 묘사하는 글을 완성한다.
- 친구들이 짝을 맞추지 못했다면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찾아 글을 보완하여 완성한다.

활동 2 : 사진 대상 정하고 선정 이유 글쓰기

같은 기사를 다룬 여러 신문사의 사진을 모아 학급 친구들과 함께 '사진 대상' 을 뽑는 심사를 하고 심사평을 써 보게 한다.

- 이렇게 무엇을 평가하는 학습은 높은 사고를 요하는 학습이므로 개별학습보다는 모둠 학습이 더 효과적이다.
- 학생들과 함께 '사진 대상' 을 뽑기 위한 심사 기준(척도)을 정한다.

심사 척도	심사 결과		
	상	중	하
· 주제가 잘 나타나는 사진인가?			

- 심사 기준을 보며 모둠원들이 심사를 한다.
- 각각의 기준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의견 중 대표 의견을 정리한다.
- 각각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고 순위를 정한다.
- 심사평을 쓴다.

심사평은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심사위원들이 심사 과정에 나누었던 특별한 이야기와 이 사진이 대상으로 뽑히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중심으로 글을 쓴다.

- 모둠원들과 함께 어떤 부분을 부각해 쓸 것인지 정하게 한다.
- 각각 한 부분씩 맡아서 글을 쓴다.
- 어느 것을 먼저 쓸 것인지 글의 순서를 정한다.
- 모둠원들의 글을 연결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한다.
- 다 같이 읽어보고 수정한 후 완성한다.

(4) 통계자료(표·그래프)를 활용한 글쓰기

신문에는 많은 통계자료들이 숫자로, 혹은 표와 그래프로 나타나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신문에 나오는 통계 자료들을 활용한 패스पोर्ट를 만들어 학교 교육을 돕고 있다. 한국신문협회의 '숫자와 신문 패스포트' (2009)를 참고하면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 홈페이지(www.presskorea.or.kr) 접속 후 '신문활용교육' - '한국신문협회 NIE' 메뉴에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먼저 숫자, 통계, 통계조사, 통계표, 그래프가 어떤 것인지 '숫자로 만나는 신문 속 세상이야기'에서 살펴보자.

- 신문 속 숫자 : 신문에는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숫자 중에서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통계입니다.
- 통계 : 사람들이 관심을 갖거나 살아가는 어떤 모습에서 하나하나의 현상을 모아서 숫자로 계산하여 그 전체적인 상태나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1위는 단순한 숫자이지만, 중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모두 모아서 평균을 구해서 순위를 정하게 되면 통계가 되는 것이지요.
- 통계조사 : 어떤 집단의 어떤 특별한 현상을 숫자로 밝혀내기 위해 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통계조사는 여러분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반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많은 친구를 조사하는 경우도 통계조사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좀 더 복잡하게 이루어지지만 사실 여러분 반 친구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친구를 조사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 통계표 : 통계조사를 하고 나면 그 내용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야겠죠. 통계에 대한 결과를 숫자로 정리할 때 그 내용을 표로 그려서 정리하는 것을 통계표라고 합니다. 표에는 아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 그래프 : 통계조사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 중 하나가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는 점그래프, 원그래프, 막대 그래프, 선 그래프 등 다양합니다.

활동 1 : 통계자료를 글로 쓰기

- 신문에서 통계자료가 나온 기사를 찾아 기사는 읽지 말고 통계자료만 자른다.
- 무엇에 대한 자료인가?
- 이 통계자료를 통해 얻은 정보를 3가지 이상 나열해 보도록 유도한다.
- 나열한 내용을 연결하여 글로 쓰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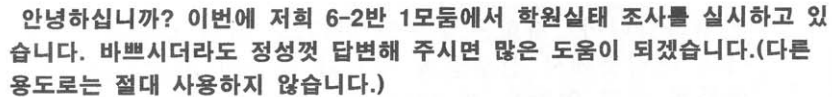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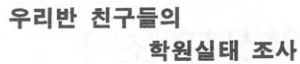
활동 2 : 직접 통계자료를 만든 후 보고서, 알리는 글이나 주장하는 글쓰기

- 통계, 통계조사, 통계표 등의 용어를 익히게 한다.
- 우리 반 친구들이 관심을 갖고 조사해 보고 싶은 주제를 정한다.
- 그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취할 것인지 정한다.
- 정한 방법에 따라 자료를 수집한다.
-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통계를 낸다.
- 통계결과를 바탕으로 각 항목의 통계결과를 설명한다.
- 조사 동기, 조사 내용, 조사 결과, 알아낸 점 등을 토대로 글을 쓴다.

다음 내용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통계를 낸 후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이다. 학생들은 협동학습 구조에 따라 조사, 분석, 통계 등 각각의 활동을 나누어 맡았다.

이 학급에서는 7개의 주제를 모둠별로 나누어 조사했으며 학원실태 조사는 그 중 하나다.

각 모둠이 보고서를 낸 후에는 전체 학생들에게 발표하고 발표 결과는 큰 종이에 옮겨 적어 교실에 게시하였다. 게시된 통계결과와 발표 내용을 들은 후 마지막에는 '주제와 관련지어 주장하는 글'이나 '알리는 글'을 쓰는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다.



1. 여러분은 학원을 몇 군데 다니십니까.....()
1. 한 군데 2. 두 군데 3. 세 군데 4. 네 군데 5. 기타()
2. 여러분은 이 학원들을 왜 다니십니까.....()
1. 강요받아서 2. 자신이 원해서 3. 기타()
3. 여러분은 자신이 다니는 학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3. 기타()
4.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학원을 다니십니까(모두 적어주세요).....()
1. 교과공부 2. 체력단련 3. 음악 4. 미술 5. 컴퓨터 6. 기타()
5. 여러분은 어떤 학원을 가장 다니고 싶으십니까.....()
1. 교과공부 2. 체력단련 3. 음악 4. 미술 5. 컴퓨터 6. 기타()
6. 여러분께서 지금 다니고 계신 학원의 비용은 모두 얼마입니까.....()
1. 5만원이하 2. 5~10만원 3. 10~15만원 4. 20만원 이상 5. 기타()
7. 혹시 집에 배달되는 가정 학습지를 하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3. 기타()
8. 만약 하고 계신다면 어떤 과목을 하십니까(주관식)
()
9. 학습지가 여러분의 수준에 맞으며 만족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3. 기타()
10. 만족하지 않으시다면 왜 못하십니까(주관식)
()

감사합니다.

* 설문조사 학습일지

국어 시간에 설문조사 방법을 배웠다. 그래서 우리들은 각모듬 별로 나누어서 설문조사를 직접 해보기로 하였다. 설문대상은 우리반 아이들 39명이였다. 첫 번째 작업은 제일 중요한 작업으로서 설문조사를 할 주제를 정하고 설문지를 만드는 것이다. 주제는 요즘 과다한 사교육비가 문제되고 있고, 우리반 아이들이 학원은 얼마나 다니는지 어떤 학원을 다니는지 학원 비용은 과다하지 않은지 꼭 필요한 학원을 다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우리반 아이들의 학원실태’라는 주제를 정했다. 설문지의 질문은 10가지로 중요한 질문으로는 ‘학원은 몇군데 다니는 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지금 다니는 학원을 강요에 의해서 다니는가’, ‘학원비용으로 한달에 쓰여지는 돈은 얼마인가’ 등을 집어 넣었다. 두 번째 작업으로 설문지를 잘 나누어 주고 빠짐없이 회수하는 작업이였다. 이 작업은 비교적 다른 작업들 보다 수월했다. 설문지를 나누어주고 빠짐없이 회수 하는 일밖에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도 잘 읽어보지 않은채 성의없게 답변을 해 준 사람이 많아서 기분이 매우 상했다. 나도 다른조의 설문지에 성의 없이 답변해 준 것이 후회 되었다.

세 번째로 했던 작업은 답변을 한 설문지를 갖고 그 질문에 대하여 통계를 내고 이 통계에 대하여 분석을 하는 것이였다. 일일이 설문지 한 장 한 장을 넘겨가며 답변한 내용을 적어서 이를 통계를 내고, 이 통계를 가지고 왜 이런 통계가 나왔는가 하는 것들을 분석하여 써야 했다. 이 작업에서 설문지를 한 장 잃어버리는 사태가 일어나서 큰 소동이 일어 났었다.

이 한 장의 설문지가 빠지니까 통계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왔다. 이 작업을 하면서 답변이 적혀있는 설문지 한 장 한 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다음 설문 조사때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네 번째 작업은 이 통계와 분석을 잘 정리하여 하나의 조사 보고서로 만드는 일이었다. 우리들이 통계내온 것을 그대로 타이핑 해오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는 보고서의 표지를 맡았다. 마지막 작업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서 A4 용지에 차트를 만드는 것이었다. 비교적 글씨를 잘 쓰는 여자 아이들은 글씨를 쓰고 우리 남자아이들은 각각 주제에 필요한 그래프를 만들었다. 선생님께서 역할 분담을 잘 하여 체계적으로 차트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조를 칭찬해 주셨다. 차트를 멋지게 만들어 걸어놓고 보니 그동안의 설문조사의 노력의 결실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뿌듯했다. 요번은 첫 번째 설문 조사라서 설문지도 잃어버려 통계도 잘못나오고, 적절한 그래프도 잘 설정하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사회 조사에 바빠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못한 것 같다. 다음에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좀더 나은 설문조사를 해야겠다.

설문조사를 해보았어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설문조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모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선생님께서 재미있다고 하셨거든요.

먼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제 정하기'입니다.

우리 모둠에서는 처음에 두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하나는 제 의견인데 우리 친구들이 용돈을 얼마나 받고 어디에 쓰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다른 의견은 학원실태 조사로 주이가 낸 아이디어였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학원실태 조사가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7모둠이 주제로 정하기도 했구요. 그래서 우리 모둠의 주제는 학원실태 조사로 결정이 났어요.

두 번째로 할 일은 설문지를 만들어야죠.

설문조사란 문제, 물음을 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점을 설문지로 만들었어요. 물론 답하기 쉽게 만들었어요. 두 가지는 주관식이었는데 선생님 말씀처럼 정말 통계내기 어려웠어요. 가장 많이 애쓴 건 신완이에요. 우리가 말한 걸 잘 써주고 연습해놓은 것도 다시 써주었어요.

세 번째로 할 일은 컴퓨터로 쳐오는 일이었어요. 이번 주에는 제가 해오기로 했는데 하필 잉크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착한 주이가 해오기로 했어요.

네 번째로 할 일은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일이에요. 이 일은 선생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이번에는 안규도 큰 몫을 했답니다. 발표를 했지요. 선생님께서 설문지를 나눠주셨는데 친구들이 문제를 보고 시험같이 느꼈나 봐요. 얼굴 표정이 달라지더라구요.

다섯 번째로 할 일은 통계를 내는 거예요. 이번에는 두 명씩 조를 짜서 했는데 나와 남궁이, 신완이와 안규, 기태와 주이 이렇게 조를 짰답니다. 각 조에 계산을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정확하게 계산했답니다. 통계 내는 법은 아주 쉬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능숙하게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정성껏 답해주지 않아서 화가 좀 났어요. 사소한 거 묻지 말라는 등, 알아서 뭐하게 등 정성껏 답해 달라고 했는데 까맣게 잊었나 봐요.

여섯 번째로 할 일은 분석하는 거예요. 저는 최종 분석을 맡았는데 그만 제가 큰일을 벌이고 말았어요. 배경을 바꾸려고 했는데 바꾸는 순간 자료가 전부 다 없어진 거예요.

정말 모든 작업은 끝까지 차근차근해야 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설문조사는 친구들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알아보는 재미있는 방법이었어요.

(5) 신문 만화나 만평을 활용한 글쓰기

① 만평을 활용한 글쓰기

신문의 만평은 한 컷의 그림으로 사건(일)의 전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만평은 한 장의 그림 속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지도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예측하고 그림을 분석하면서 만평과 같은 내용을 다룬 기사를 찾아보는 학습을 계속하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게 된다.

활동 1 : 만평을 통해 기사를 예측하고, 기사 내용을 찾아 비교하는 글쓰기

· 만평에는 대부분 사람이 등장한다. 오늘의 만평에 등장한 사람은 누구인지, 왜 등장했다고 생각하는지 등의 의견을 나누게 한다.

· 만평의 내용을 보고 기사를 예측해 보게 한다. 예측을 할 때에는 왜 이런 예측을 했는지, 만평의 어느 부분에서 이런 예측을 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게 한다.

· 만평의 배경이 된 기사를 찾아 읽어본다.

· 내가 만평을 보고 예측한 것과 기사가 어떻게 다른지 찾아본다.

만평(오려 붙이기)	내가 예측한 것(근거)	만평의 배경이 된 기사

· 만평을 읽으며 기사내용을 예측한 것과 원래 기사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찾아 비교하는 글쓰기를 지도한다. 글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 본인의 예측이 맞은 부분은? 만평의 어떤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나?
- 예측이 틀렸다면 무엇을 잘못 이해했나?
- 전체적으로 만평을 해석하고 예측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

활동 2 : 만평에서 등장인물의 풍자를 묘사하는 글쓰기

신문의 만평은 세상의 일이나 사람들의 행동을 풍자하고 있다. 어떻게 풍자하고 있는지 묘사하는 글을 써 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 여러 가지 만평을 골라 모둠학습으로 내용을 예측하면서 무엇을 풍자했는지 찾는 공부를 하게 한다.

· 그림으로 풍자하는 것은 일정한 원칙들이 있는 것을 학생들이 발견하게 한다. 말이 많은 사람에게는 입을 유난히 크게 그리기도 하고, 서양 사람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코를 다른 생김새보다 더 크고 높게 그리는 등이 해당된다.

· 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묘사하는 글을 쓰도록 지도한다.

- 국민을 계도하기 위하여 만평으로 나타낸 것(기부, 절약, 헌혈, 환경보호, 다문화 이해 등)을 보고 묘사하는 글쓰기

- 성격이 다른 사람(착한 사람, 욕심쟁이, 소심한 사람, 말 많은 사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등)을 만평으로 나타낸 것을 보고 묘사하는 글쓰기

- 사회적으로 특이한 현상을 나타내는 만평(수십 년 만에 발생한 큰 태풍이나 화재, 홍수, 사고 등의 재해나 해파리떼 출몰 등)을 보고 묘사하는 글쓰기

② 만화를 활용한 글쓰기

만화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습소재로 잘 활용하면 재미있는 글쓰기 수업을 할 수 있다.

활동 1 : 4컷 만화의 각 장면을 글로 쓰기

-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네 컷 만화를 한 컷씩 잘라 옆의 표에 붙인다.
- 학생들과 이 만화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 각각의 만화 내용을 글로 쓴다.

만화	만화의 내용을 글로 쓰기
	만화 이름 (각 신문에 기고되는 만화들의 이름을 쓴다.) 지은이 (만화가의 이름을 쓴다.) 설명한 이 (자신의 이름을 쓴다.)
장면 1	
장면 2	
장면 3	
장면 4	

활동 2 : 만화의 내용을 기사로 쓰기

· 만화의 내용을 보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일어난 일인지 4가지 이상을 찾아본다. 이 때 정확한 날짜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자신이 생각한 날짜를 넣을 수 있다고 말해준다.

- 육하원칙에 따라 만화의 내용을 기사로 쓰게 한다.
- 기사를 쓴 후 친구들과 쓴 글을 돌려 읽어본다.
- 친구들이 잘한 점과 내가 보완해야 할 점을 찾아 기사를 완성한다.

2) 신문을 만들기 위한 글쓰기

4학년 2학기 '말하기 · 듣기 · 쓰기' 교과서 셋째 마당에는 신문 만들기를 위한 기사 쓰기가 나와 있고, 5학년 2학기 '말하기 · 듣기 · 쓰기' 교과서 다섯째 마당에는 우리 반 신문 만들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학생들이 직접 신문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신문은 어떻게 만들까? 먼저 학생들이 신문이 무엇인지 알도록 지도해야 하고, 신문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 각각의 글쓰기를 통한 신문제작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1) 신문을 만들기 전에 할 일

① 신문이 어떻게 꾸며졌는지 알기

이 부분은 이 책의 앞에서 다룬 '신문 지면은 어떻게 꾸며져 있나?' 를 보고 지도한다. 학생들이 신문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책의 제2부에서 신문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② 신문을 만들기까지의 과정 알기

- 신문 만들기에서 먼저 생각할 것들
 - 어떤 신문(학급신문, 가족신문, 독서신문, 건강신문 등)을 만들 것인지 정한다.
 - 이 신문을 몇 면으로 만들 것인지 정한다.
 - 신문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지 결정한다.
 - 각각의 지면에 어떤 내용들을 배치할 것인지 의논한다.
 -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취재하고 사진을 찍고 기사를 쓴다.
 - 최종 편집위원들이 기사를 배치하고 신문을 완성한다.(편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신문 지면을 만들어 제시하고, 그 속에 자신의 기사를 써 넣도록 하면 편하게 할 수 있다.)

· 5학년 2학기 ‘말하기 · 듣기 · 쓰기’ 교과서 다섯째 마당에서 신문 만들기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 알리고 싶은 내용 정하기
- 자료 수집하기
- 기사 쓰기
- 지면 구성 계획하기
- 기사 배치하기
- 편집하기
- 신문 출력하기

③ 신문을 만들기 위한 글쓰기 지도

신문을 만들기 위한 글쓰기는 사실을 육하원칙에 맞춰 쓰는 보도기사,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통한 분석 및 해설기사, 어떤 사건이나 일을 주제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사설기사, 그 외 만화나 만평, 광고 등이 있다. 각각의 특징에 맞는 글쓰기를 사전에 지도한다. 신문을 만들기 위한 글쓰기는 신문 지면을 활용한 글쓰기에서 공부한 내용을 참고하여 지도한다.

(2) 학급신문 만들기 예시

① 제작회의하기

학급 신문을 만들기 전에 학급신문을 어떻게 만들지에 관하여 학급 전체가 회의를 했다. 회의 결과 우리 반 학급 신문은 다음과 같이 만들기로 결정했다.

· 신문은 하고 싶은 친구들끼리 모둠을 만들고, 그 모둠(한 모둠의 인원수는 2~6명)이 한 팀이 되어 신문을 만든다.

· 신문은 4면으로 제작한다.

· 각 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넣는다.

- 1면에는 우리 반에서 있었던 가장 큰 일을 보도기사로 써 넣는다.

- 2면과 3면, 4면에는 해설기사, 인터뷰 기사,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해설 또는 분석하는 기사, 특집기사, 사설, 만화나 만평, 광고를 넣는다.

② 모둠을 구성하고 역할 분담하기

신문을 함께 만들 모둠을 구성하고 각 팀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신문 이름을 정하고 기사 등을 작성한다.

③ 모둠별 기획회의하기

모둠별로 신문을 어떻게 만들지, 각 면에는 어떤 내용을 넣을지 등에 관하여 회의를 한다. 회의과정에서 학생들이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가 조언해 준다.

④ 신문 기사를 쓰고 편집하기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각각의 기사를 나누어 맡아 쓴 후 교사의 지도를 받고 편집한다.

⑤ 만든 신문을 출력하여 읽어보고 수정하기

⑥ 신문 완성하기

완성된 신문은 자기 팀뿐만 아니라 학급에 게시하여 각 팀의 좋은 점을 공유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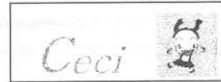
다음은 필자가 6학년 담임을 했을 때 우리 반 학생들이 만든 모둠별 학급신문이다. 이 신문의 각각의 면에는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배치되었는지 살펴보자.

아래는 위의 내용을 신문 기사로 제작한 예시자료이다.

1면	날짜	신문이름	발행인 편집인 등
	발행호수		
	한 해를 대표할 만한 가장 대표적인 기사, 광고, 만화, 만평 등		
2면	해설기사, 분석기사, 의견기사 등		
3면	집중 탐구 학습내용 기사, 인터뷰기사		
4면	특집기사		

단기 4332년 1999년
 미통달 11월
 스물닷새 25일

중심일보



제 62호

독자의 눈과 귀와 입이 되겠습니다.

발행인-강주이, 고승현

-드디어 만국박람회 개최-



6학년 2반의 한 팀중 북유럽 팀이 손님들에게 설명을 하고있다.

영훈초등학교 6학년 2반에는 요즘 뭔가 색다른 방법으로 사회 공부를 하고있다.그것은 바로 만국박람회...

한달에 걸쳐서 성공 시킬수 있었던 이 행사는 총 7개의 모둠으로 자신이 맡은일에 최선을 다하고 책, 홈페이지등 어른이 해낼수 없을 만큼의 일 까지도 완성 시켰다. 이러한 방법으로 6학년 사회과 3,4 단원을 공부하고 있다. 또한 어른들은 상상도 못한 박람회를 완벽하게 소화해 냈다. 각 팀에서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개성으로 여러 이벤트와 조형물을 만들어 냈다. 6학년 2반 어린이들을 만나보자.

지도교사-심옥령 선생님

첫번째 관인 일본관은 기모노에 대해서 집중탐구를 하였다. 이 팀의 조형물은 일본의 기와집을 만들어 보았다. 이 팀은 실물자료를 만화책, 잡지, 기모노 의상등 여러 가지를 준비 하였다. 다음은 로마와 그리스 관이다. 이곳은 신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트로이 목마를 직접 만들어 보았다. 그것을 이용해 재미있는 이벤트를 벌이기도 해서 많은 손님들의 호응을 받았다. 세계의 축제관은 이번 만국박람회 에서 가장 많은 재미를 얻었다. 독일의 맥주축제를 이벤트 삼아, 재미있게 꾸며 나갔다. 다음은 미국관, 이곳은 우리가 가장 잘 알면서도 먼 미국을 맡은 미국관은 다른 모둠과는 달리 POverPOINT를 제작하였고, 애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메직 페이퍼로 만들었다. 이 팀의 이벤트는 아주 특이한 것으로 지도에서 찾기 게임이다.

다음은 오스트레일리아 관이다. 이 팀은 호주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시드니 항과 야생동물에 대해서 하였다. 이곳의 이벤트는 오 엑스 게임이다. 자신이 만든 조형물과 실제 모형을 비교해 보기도 하였고, 실물자료를 손님들에게 만져보게 하거나 보여주는 등 여러가지 자료들이 많았다. 다음은 유럽 건축관이다. 상당히 어려운 분야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소화해 내었다. 우리에게도 가장 재미있는 관 이었던 곳으로 뽑혔다. 포세이돈 신전을 직접 만든 팀 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북유럽관 이다.산타의 본고장인 북유럽을 맡았다. 과자를 만들어 직접 손님들에게 시식을 권하기도 하였고 자기의 소원을 적어드리는 이벤트도 준비하였다.



오늘의 만평	99년 만국박람회	음	99만국박람회

"정말 초등학교가 무서워 못 보내겠어요."

요즘 어머니들은 고 민하심 것 입니다. 우리아이 는 정말 좋은 학교로 보내야 한다는
고 민때문 에.. 이것을 저희가 속 시원히 풀어드 리겠습니다.이곳으로 오 세요~!
오 시는 길-미아삼거리역 바로 앞
영훈
법 는 날- 12월 10일(꼭 오 세요)

사 설

올 겨울 방학은 이렇게

겨울방학이 시작되면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들은 덩연이 놀러 가기도 하고 싶고, 이것 저것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마음가는 대로 한다면 자기 자신은 정말 신나겠지만 의미가 없는 방학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면 의미있는 방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첫번째로 책을 읽는 것이다. 책이란 지식에서 대부분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책을 너무 안 읽는 사람도 책을 자기의 수준대로 골라 읽는다면 공부도 쉽게 되는 의미있는 방학이 될 것이다.

두번째로는 자기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수행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동화쓰기가 주제라면 어떤 주제로 할 것인지, 어떻게 짜임새가 탁탁 들어맞도록 할 수 있는지, 계획을 세워가며 자기만의 프로젝트를 한 번 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방학이 될 듯 싶다.

지금까지 방학을 의미있게 지내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정말 방학이 논다고만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시 새겨보는 방학이 되길 바라며 후회없는 방학이 되기를 바란다.

강주이 기자

기말고사를 이렇게

기말고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기말고사 프로젝트는 공부한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부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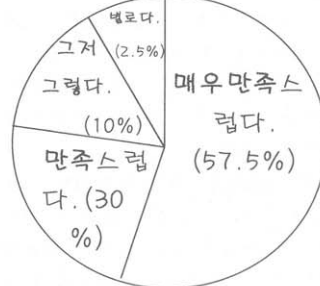
그럼 기말고사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 지 알아보자. 그 방법으로 먼저 선생님 말씀을 잘 듣자. 선생님 말씀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자.

둘째로 교과서를 이해하자. 교과서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선생님 말씀도 귀에 들어올 리가 없다. 교과서에 있는 질문에 하나하나를 답에 보고 문제집 보다는 교과서를 보고 핵심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과서를 완벽하게 이해한 후에는 문제집을 풀어보자. 문제는 여러가지를 풀어보는 것이 좋다. 문제지를 풀어보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확실히 빈틈없이 공부하자.

지금까지 학습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다. 앞으로 보게 될 기말고사를 교과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빈틈없이 공부해서 중학교 시험을 대비하는 좋은 계기로 만들어 시험공부 방법을 확실히 터득하자.

고승연 기자

우리가 생각하는 만국박람회 만족도



박태진, 손가락 찢겨서 바늘로 꼬매다.

만국박람회를 한 참 준비하고 있던 때였다. 박태진(영훈초등) 군이 종이를 자르려고 칼로 긁고 있던 순간이었다. 너무 힘을 주었는지, 칼이 손이 있는 쪽으로 빗나가 손이 거의 찢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비었다. 급히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해 더 큰일은 막았지만 정말 사고는 한 순간 이라는것을 알려주는 순간이었다.

강주이 기자

기말고사,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뒤흔드는가...

이제 기말고사도 며칠 안 남았다. 우리에게겐 아직도 진정한 시험이라는 낱말이 생소한데 이 진정한 시험이 바로 코앞으로 닥쳐왔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단지 점수를 얻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연습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우리들의 목표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무엇을 배웠는가? 시험을 볼 때 체계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들이 우리가 기말고사를 보는 최대 목표이다. 그것을 다시 풀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중학교에 대비한 시험을 보는 것 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우리는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기회로 모두가 공부하는 방법을 다 터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강주이 기자

세상에 단 한개밖에 없는 우리들의 책



역사책, 프로젝트 파일, 현장학습 책, 만국박람회저널...
이것은 우리가 작가가 되어 직접만든 책들이다.

우리는 역사를 왜 배워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든 첫 책의 주제이다.

우리가 새로이 만든 역사와 새롭게 배우는 역사를 알기위해 역사책을 6-2반 모두가 작가 가 되어 만들었다.

1학기때 편집0점. 내용 빙정이던 아이들이 심옥령 선생님 덕택으로 지금은 신문 하나도 똑딱 만들수 있는 실력도 되었고, 자신들의 톡톡튀는 개성을 가지고 책을 재미있고, 알차고, 이쁘게 꾸밀수 있는 실력이 되었다. 그 뒤 프로젝트 파일, 2학기에 들어와서는 현장학습 파일, 저널 파일등 여러가지를 만들어서 4가지의 책을 완성했다.

새로운 방법으로 현장학습을 다녀와서 조의 팀워크도 기르고, 실력도 높이고, 실력도 기르고, 앞으로는 6학년 2반 학생들 모두가 자신의 가족들의 대표가 되어 리더 할수 있을 정말 까지 되었다.

고승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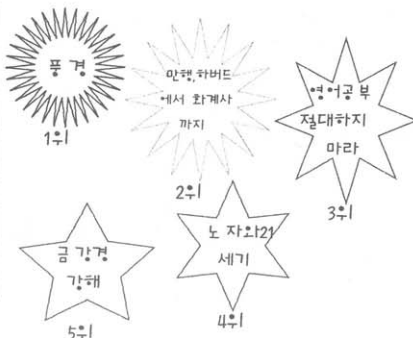
6-2반이 뽑은 '우리반의 베스트 셀러'

1위	오체불만족
2위	한국, 한국인 비판
3위	풍경

화

♠이 이외에도 많은 책들이 올라왔다.
우리반은 생각할 수록 문학의 반 인
것 같다. ♡

6-2반이 선정한 '11월달의 신책소개'



제23화 오체불만족을 읽고...

오토다케. 그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존재이다. 그는 연예인도 아니며, 정치인도 아니다. 그런데 그는 왜 그렇게 유명해졌을까?.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지 않아 많다. 그래서 더욱 오토다케씨가 더 유명해진 것 아닐까.. 장애인이, 게다가 팔, 다리가 모두 없는 맨 몸 동아리로 대학도 가고, 책도

써내고, 정말 대단하다.

장애인이 이렇게 큰일을 하기에는 매우 힘이 든다. 설사 이 일을 못 한다 해도 장애인이라면 힘든 몸이라도 한번쯤 자신이 일을 하고 싶어한다. 오토다케를 보면서 나도 장애인이 혼자 독립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장애인은 자신만의 싸움이 되겠지만은 주위의 환경도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난 이책을 읽고 느낀것이 많다. 장애인이 정말 힘든것이구나,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정상인과 다를게 없구나.. 를 정말 실감나게 느꼈다. 다른 장애인들도 자신감을 갖고 항상 도전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강주이 기자

4면 "우리는 친구가 되고싶어요." 한.일 문화교류-이따미 프로젝트-

요즘 6학년 2반 아이들은 우리와 가깝고 먼 곳의 사람들인 일본의 학생들과 컴퓨터로 서로 연락을 주고 받기도 하면서 서로에게 알고싶었던것, 묻고 싶었던것을 묻고, 답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고있다. 6학년 2반 학생들과 일본의 학교와 서로 교류를 시작한 것도 어느새 2달 남짓 되어간다.

그동안 서로 많은 정보를 얻게되었을 것이다. 상당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 한 번 알아보자.

일본 학생과

처음에는 화상 6-2반 학생과 통화가 안되어 글로만 주고 받을 때 서로 각자의 대안 소개를 주고 받 의 만남 모 았다 하며, 일본 측에서는 자기 나 두들 화제 라에 와줬나, 자기 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기 나라의 중,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등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화상으로 보이게 되었을때에 주고 받은 이야기는 그 때 한창 만국박람회를 준비 하던 때여서 주로 만국박람회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우리측에서는 일본을 소개하는 6모동이 일본에 대해 조사 한다는 것과 각 모둠에서는 각 나라에 대해 책을 만든다는 것, 일본측에서는 자신들의 교육이 어떻나면서 보여 주는등 여러가지 정보를 주고 받았다.

작은 곳에서부터 한.일 문화교류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곳에서도 한 일간의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겠다.

home page

teleclas@mbd.sphere.ne.jp

생활속의 지혜

"잘 때 기침이 심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기침이 멎나요?"

준비물-우유, 꿀

이럴때 우유를 냄비에 자신이 마실 한 컵 정도를 붓고 약한불에 우유가 데워질 정도로 3~4분 동안 데우신 후 꿀을 한 술갈 정도 떠서 데운 우유에 넣어 골고루 잘 섞고, 컵에 따라 마시면 됩니다.

하지만, 드시고 난 후에는 꼭 이를 닦을것!!!

우리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야구 선수 선호도

1위-박찬호 2위-이승엽 3위-김기태
4위-김동수 5위유지현



today

Interview

박.찬.호



6학년2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로 나타났던 박찬호 선수. 이 선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박

찬호씨와 인터뷰를 했다.

-요즘 근황은?

>>아주 좋습니다.

-만일 야구 선수가 아니었다면?

>>육상선수나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을 것이다.

-하루 연습량은?

>>4~5시간

-가장 존경하는 선수

>>놀란 라이언

-언제쯤에 은퇴할 생각인가?

>>가능하다면 마흔이 넘어서 하고 싶다.

-앞으로의 계획

>>야구에만 전념하고 싶다.

이처럼 박찬호씨는 우리에게 친절하게 다 대답을 해 주었다. 요즘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나고 하니까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 소원이 꼭 이루어 지기를 바라며 언제나 우리나라를 빛내주는 선수가 되길 바란다.

3. 신문 기사를 활용한 토론은 어떻게 해야 할까?¹⁾

1) 토론하기 전에 신문 기사 준비하기

(1) 신문에서 토론 주제 선정하기

토론할 때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것은 주제를 정하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신문을 활용하여 토론을 할 때 주제 선정을 제대로 해야만 좋은 토론을 이끌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토론 주제는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사실을 판단하는 주제’, ‘가치를 선택해야 하는 주제’, 그리고 ‘행동의 결정을 해야 하는 정책 주제’로 나누기도 한다.

우선 사실을 판단하는 주제를 살펴보자. 사실을 판단하는 주제는 어떤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토론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참, 거짓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와 같은 경우가 이에 속한다. 사실을 다루는 주제의 경우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와 같이 간단한 자료 제시만으로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어떤 사실은 수많은 자료를 통해 객관적인 논증을 거쳐야만 입증되는 경우가 있다. 과학·수리 토론이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판단은 대부분 사실을 판단하는 주제를 다루는 토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는 가치를 선택해야 하는 주제이다. 가치를 선택해야 하는 주제는 어떤 증거 자료를 대더라도 참인지 거짓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사람에 따라 선호하는 가치가 달라 대답이 일어나는 주제이다. ‘붉은색 장미가 아름다운지, 노란색 장미가 아름다운지’는 각 사람에 따라 자신만의 다양한 가치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하는 가치가 개입된 주제이다. 그러나 이런 간단한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는 아주 대립적인 가치가 개입된 문제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게임은 아동에게 해롭다.” 또는 “인터넷 게임은 사람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와 같은 주제는 사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가치를 통해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다.

셋째, 정책적인 면을 다루는 주제이다. 정책 주제는 사실상 관련된 사실이나 가치를 확인하고 의사결정을 통해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기에 더욱 복잡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정책을 다루는 주제는 대부분 논쟁문제의 성격을 가진다. “폭력적인 인터넷 게임은 아동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경우 ‘폭력적 게임’이 어떤 것인지 사실적인 판단을 하여야 하고, 해로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치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따라서 정책적인

1) 이 부분은 구정화(2009)의 내용을 참조한 것임.

면을 다루는 주제는 상당부분 논쟁문제의 성격을 갖는다.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토론을 통해 관련된 사실이나 가치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나도 되지만, 궁극의 경우에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이다. 대표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와 같은 경우가 이러한 주제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토론에서는 이러한 정책적인 면을 다루는 주제가 대부분 토론문제로 선택된다.

이와 달리 토론 주제의 특성에 따라서 ‘가치 갈등이 강조되는 주제’, ‘사회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주제’, ‘의사결정을 강조하는 주제’, ‘사회적·역사적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주제’ 등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우선 가치 갈등이 강조되는 주제는 대립되는 가치가 개입되어 있는 질문을 던지고 어떤 가치를 더 우선해야 하는지를 토론하는 것으로 위의 가치를 선택해야 하는 주제와 비슷하다. 이 경우의 사례로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도둑질을 한 홍길동은 정당한가?”, “국가의 이익과 나의 이익이 부딪히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 해당된다.

다음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주제’이다. 이것은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북한과의 정국 경색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와 같은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 중에 나은 의견을 파악하는 등의 토론이 행해진다.

‘의사결정을 강조하는 주제’는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으로 현안이 되는 쟁점문제에 대하여 어떤 대안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소풍을 가야 하는가, 가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 고장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가, 찬성하는가?”, “새만금 개발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사회적·역사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주제’도 있는데, 이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적인 사건에 대하여 정당성이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하는 주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위화도 회군은 역사적으로 정당한가?”,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세우자는 이승만의 주장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통일 정부를 세우자는 김 구의 주장 중 누구의 의견이 옳은 것인가?”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토론 주제 중에서 NIE에서 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제는 무엇일까? 바로 ‘사회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주제’나 ‘의사결정을 강조하는 주제’이다. 이들 주제는 ‘지금 바로 여기’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진 토론이기 때문에 신문 기사에서 이런 내용은 항상 다루어지고 있어 별 어려움 없이 신문 기사를 활용할 수 있다.

자, 토론 주제 영역을 정하였다면 구체적으로 토론 주제를 수업에 적합하게 제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토론의 주제를 정확하게 정하고 이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데, 교사가 토론의 주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Freely, 1996: 38-41, 강태완 외, 2001: 37재인용).

첫째, 토론 주제에는 단 하나의 중심적인 토론 주제가 담기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을 한 번 보자. “천성산 터널과 새만금 공사는 금지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는 두 가지 문제를 담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자연을 훼손하는 공사는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상위의 개념으로 주제를 정하면 학생들이 토론과정에서 매우 다양한 사례를 가져와 사례를 나열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토론 주제는 좀더 구체적이면서 최근의 사례인 “천성산 터널 공사는 금지되어야 한다.”로 잡는 것이 좋다.

둘째, 일반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토의 형태의 토론이 아니라 대립적인 의견을 내는 토론 주제에는 어느 한 쪽의 관점이나 주장에 치우치는 정서적인 감정이 담긴 표현은 배제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자연을 훼손하는 천성산 터널 공사는 금지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에는 이미 천성산 터널 공사 금지를 찬성하는 감정적 표현이 들어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미 토론 주제가 편파적으로 흐르는 문제가 생긴다. 필요한 경우에는 “금지나 찬성” 등의 표현도 없애고 의문형으로 제시해도 된다. “천성산 터널 공사는 금지되어야 하는가? 계속 되어야 하는가?”와 같이 말이다.

셋째, 토론 주제는 대립하는 양 주장의 관점에 따라 결정하는 의견의 방향이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긍정 측 토론자(현상에 변화를 가하려는 입장)가 개선의 필요성과 대안을 보다 많이 제시할 수 있는 형태의 논제로 제시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사형제도는 좋은가?”와 같은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질문보다는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와 같이 분명한 문장으로 표현하거나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폐지되어야 하는가?”와 같이 분명한 방향성이 드러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학생들에게 문제의식을 자극시킬 수 있는 논제로 표현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쟁점을 다루는 토론문제에서는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폐지되어야 하는가?”라는 양방향을 다 제시하는 주제보다는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등과 같은 주제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현재의 제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을 해봄으로써 토론의 핵심이 현실에 비추어 무엇이고 어떤 문제의식에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토론을 위해 좋은 신문 기사 구하기

자, 이제 토론 주제를 정하였다면 토론 주제에 맞는 신문 기사를 구해야 한다. 앞에서 신문 기사의 종류 등은 이미 살펴보았으니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토론에서 신문 기사를 활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토론 수업을 위한 주제 제시를 위해 신문 기사

를 활용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 자신의 주장을 펴거나 상대방의 의견에 대하여 반박하기 위해 활용하는 경우이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상황에 따라 신문 기사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르며, 이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신문 기사의 유형도 달라진다.

우선 신문을 활용하여 토론 수업에서 토론 주제를 알려줄 때 적합한 신문 기사는 무엇일까? 토론 초기에 토론 주제를 알려주는 경우 적합한 기사는 바로 보도기사이다. 어떤 주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상황을 알려주는 보도기사는 보통 기사문의 형태로 구성되며 첫째 문장에서 육하원칙이 드러나고, 그 다음 문장부터는 이 내용을 상세하게 풀어내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보도기사는 어떤 상황에 대한 문제 상황을 알려주는 것으로 토론 주제를 학습자들에게 상기시키기에 좋은 자료이다.

예를 들어 ‘천성산 터널 공사 문제’를 주제로 토론을 한다면 “천성산 공사가 진행되다가 자연 훼손의 문제로 반대 여론이 생기자 공사가 중지되었다.”라는 사실까지만 보도한 기사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하면 된다. 바로 이 이점까지 있는 기사만 제시해야 학생들은 스스로 신문 기사에서 문젯거리를 발견하고 논쟁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토론 수업에서 문제제기를 할 때 의견 기사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견 기사를 사용할 경우, 주로 사용하는 신문 기사는 토론 주제를 다룬 사실이나 칼럼이다. 이들 기사는 사회적 문제나 현상에 대하여 간결하게 의견을 정리한 것이기에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하거나 반대 의견이나 다른 주장 등을 하는데 활용하도록 도울 수 있는 자료로는 좋다. 그러나 이들 기사에는 이미 토론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미리 알려주는 내용이 담겨있어 토론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미리 알려주게 되거나 한 관점에 치우친 자료가 되어 토론에서 공정성을 확보해줄기가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면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에 좋은 기사는 어떤 것일까? 주로 신문을 활용하여 사회문제나 의사결정 문제를 다루는 주제에 대하여 토론을 할 경우 찬반 의견을 나누는 쟁점 토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토론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활동이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신문 기사는 의견기사가 더 좋다.

의견기사는 신문 기사 중에서 비중이 있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신문이나 전문가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기사로 가장 주관적인 글이다. 일반적으로 사실, 칼럼, 비평 등이 이러한 의견기사에 해당한다.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자신과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 좋은 토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의 주장에 유리한 기사도 찾아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

(3) 토론을 위한 준비로 신문 기사 정리하기

토론을 위해서는 의견 기사를 찾아서 정리하고 미리 공부를 하여야 한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 먼저 토론에 필요한 신문 기사를 잘라서 신문 스크랩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엔 신문 기사의 내용을 보고 토론을 위한 자료 전략을 세워야 한다. 자, 이 방법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먼저 '토론 주제에 맞는 기사 스크랩하기' 이다. 주어진 주제에 따라 신문 기사를 스크랩한다. 토론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기사문의 관점은 무엇이며 어느 관점을 지지하는지, 토론의 어떤 과정에서 활용하면 좋은지 등을 기록하면서 스크랩해야 한다. 이 때는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자신과 의견이 다른 관점의 기사도 같이 모은다.

토론 자료로서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기 위한 기본 양식은 다음과 같다.

토론 주제	반	변	모둠	이름
			자료의 중요도	★★★★★
				(별 다섯 개 중 몇 개에 해당하는지 색칠해주세요.)

신문 기사 요약하기

1. 신문 기사는 뒷면에 붙여주세요.
2. 신문 기사의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그어주세요.

자료 출처		
주장하는 내용		
자료 분류 (해당 칸에 ○)	찬성의견 자료	반대의견 자료
토론 활용 전략		

*자료 : 강대현 외(2007).

두 번째는 신문 기사 이해하기이다. 자, 이제는 신문 기사에서 자신의 토론에 유리한 자료 준비를 위해 신문을 열심히 읽고 신문의 내용을 충분히 소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위해 두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 하나는 '신문에서 찾기' 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신문 이해하기' 활동이다.

'찾기' 활동은 기본적으로 학습자가 신문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지식이나 정보, 사실 등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문의 다양한 요소가 되는 기사, 사진, 표와 그래프, 광고 등을 활용하여 숫자, 단어, 주제와 관련한 사항, 사실, 의견 등을 찾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활동을 보면 다음과 같다(이태중, 2007).

- ① 육하원칙으로 정리하기: 신문 기사 중에서 보도기사를 읽고 그 기사에 담긴 육하원칙을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 ② 일어난 차례 알기: 일반적으로 신문에 나타난 기사는 그 사건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과 관계 등 관련한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기사를 읽고 관련한 사건의 일지를 순서대로 찾아 정리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 ③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 신문 기사에는 사실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주장이나 의견이 담겨있는 내용이 있다. 해설기사나 의견 기사를 이용하여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도록 한다. 사실은 진위의 구분이 정확한 것이고, 의견은 가치가 개입된 문장을 말한다.
- ④ 시사용어사전 만들기: 신문을 읽어가면서 새로운 용어나 모르는 용어에 대한 뜻을 풀이하고 정리하여 시사용어사전을 만들어 가는 활동이다.
- ⑤ 축약어 사전 만들기: 신문 기사는 국제기구 등의 이름을 다 적지 않고 축약하여 제시한다. 경제 기사의 경우에도 요약하여 제시하는데 이를 정리하는 자신만의 사전을 만드는 활동이다.

이와 달리 ‘이해하기’는 신문의 요소를 읽고 그에 담긴 정보를 이해하는 활동이다. 우리가 신문을 학습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신문 기사를 읽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읽고서 그것에 담긴 내용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앞 단계인 ‘찾기’를 확장하여 ‘이해하기’를 할 수도 있고 독립적으로 ‘이해하기’를 행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한 활동을 보면 다음과 같다(이태중, 2007; 정문성 외, 2008).

- ① 기사를 이용한 K-W-L 학습: 신문 기사를 읽고 그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내용(Know)을 파악하고, 기사를 통해 알고 싶었던 점(What to know)을 정리하며, 기사를 통해 실제 알게 된 점(Learned)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다.
- ② 원인과 결과 구분하기: 기사를 읽고 기사에 드러난 사건이나 상황의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를 구분하도록 하는 활동이다.
- ③ 줄거리 알아내기: 기사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서 기사에서 말하는 핵심 줄거리를 파악하게 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신문 기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게 되었으면 세 번째는 기사를 활용한 토론의 과정 전략 짜기를 해야 한다.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의 주제에 대하여 토론 과정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은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은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모은 신문 스크랩 자료와 그에 따른 신문 기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토론절차에 따라 어떻게 활용할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기본 양식은 다음과 같다.

년 월 일 요일				토론자 :	
논제				자신의 주장	
근거(이유)		예상되는 질문		자신들의 반론	
①		①		①	
②		②		②	
③		③		③	
상대의 주장					
예상되는 근거		생각할 수 있는 문제점			
①		①			
②		②			
③		③			
최종 결론					

* 자료: 박순희(2007).

(4) 신문 기사를 활용한 주장과 반박하기

토론에서 핵심과정은 '입론-반론-재반론'의 논리적 과정이다. 이 과정을 먼저 살펴보고 신문 기사를 활용하여 이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먼저, 입론은 토론에서 각 관점이나 입장에서 행하는 최초의 주장을 말하는데 토론 주제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거와 함께 제시해야 한다. 입론 시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입론은 토론에서 자신의 주장에 견고한 방어를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다음에 이어질 상대방의 공격인 심문에서 이야기 거리를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논리적이고 충실한 자료를 통해 튼튼한 방어를 할 수 있는 논리적 주장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반론은 상대의 입론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것으로 주로 질문 형태로 하는 것이 좋다. 이는 종종 반박이나 심문(입론에 대한 반박하는 질문)이라고도 불린다. 반론이 없다면 토론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에 토론 수업에서 반론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론이 갖는 논증의 오류를 찾아내야 한다. 더불어 반론에서는 상대방이 파악하지 못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심문하여야 하며 이 과정을 잘하는 것이 토론에서 우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따라서 반론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단순히 반대해서는 안 되며 특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논리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들어서 반론을 구성해야 하며, 상대방이 주장한 입론에 비추어 논리적이고 합리적 근거가 있는 상대방의 입론의 주장은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 주장 중에서 논리적 오류나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의 형식을 빌려 반론을 한다.

마지막으로 재반론은 상대의 반론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서 합당한 근거자료를 이용하여 상대의 반론을 꺾는 과정인데, '반론꺾기' 혹은 '재반박' 등으로 불린다. 재반론은 단순히 입론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의 반론 질문에 대하여 논리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새로운 주장을 해야 한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입론과 반론, 재반론에서 신문 기사를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입론과 재반론부터 보자. 입론이나 재반론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관점을 주장하면서 그에 맞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문에서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조사 결과나 여론 결과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찬성'하는 입장을 취할 경우 지역 주민이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후 '찬성' 의견이 많이 나온 조사 결과를 제시한 결과를 활용하여 "△△신문에 따르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런저런 조사를 한 결과 주민의 ○○%가 찬성한다고 하여 지역 주민 또한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입론이나 재반론에서 자신의 주장을 위해서는 자신과 같은 관점을 갖는 사실이나 의견 기사를 잘 읽고 그 사람이 사실이나 의견 기사에서 제시한 논리를 따라가면서 자신의 주장을 해도 된다. 그러나 사실이나 의견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단순히 읽는 형태로 단순 응용해서는 안 되고, 그런 주장에 다른 자료를 보강하여 자신의 논리를 더욱 견고하게 다듬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사실이나 의견 기사는 자신이 어떤 논리로 주장해야 하는지를 안내하는 지도와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다면 반론에서는 신문 기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반론을 위해서는 상대의 입론에 대한 반박질문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의 관점에 반하는 증거 자료를 모으거나 상대의 주장에서 오류를 찾아야 한다. 따라서 신문 기사를 활용할 경우 상대의 주장과 반대되는 논거를 가진 사실이나 의견 기사를 읽고 그 논조에 비추어 반론을 준비하되 반론을 풍부하게 해주는 다양한 자료를 찾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토론에서 사용하는 신문 기사는 주로 사실 등의 의견 기사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단순히 신문 기사에만 의존하여 그대로 논리를 전개하지 말고 기사가 보여주는 논리적인 사고의 과정과 반론의 과정을 따라가면서 자신이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반론을 할 것인지를 사고하면서 토론의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은 토론자의 준비 자세이다.

2) 신문 기사를 활용할 수 있는 토론 수업방법 보기

(1) 신호등 토론

■ 기본 이해

신호등 토론 수업은 다른 토론 수업과 달리 학생의 참여도 강조하지만 교사의 질문에 따라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교사 주도의 문답법 수업을 변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토론 수업방법은 교통 신호등의 원칙을 활용하는데 토론 참가자들이 교통 신호등의 색깔인 빨강, 노랑, 초록의 카드를 들고 토론을 진행시켜나가는 방식이다.

토론 참가자 모두 빨강, 노랑, 초록색의 카드를 한 세트씩 준비하게 하고, 교사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카드 색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초록색은 '찬성'을, 노랑색은 '중립', 빨강색은 '반대'를 의미한다. 카드는 색종이를 앞뒤로 붙여서 코팅한 후 사용하면 좋다.

신문을 이용하여 신호등 토론을 할 경우, 사실 등의 의견 기사를 하나 선택하여 같이 읽고 그 내용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등으로 토론을 이어나가면 된다.

■ 준비물

- 개별 학생별로 빨강색/초록색/노랑색 카드(앞뒤로 색깔이 있는 것)
- 사설 등의 의견기사

■ 자리 배치

다른 토론 방법과 달리 신호등 토론은 교실에서 학습자들이 앉은 자리를 그대로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토론 방법이다. 즉 토론을 위해 수업 중간에 자리 배치를 조정하거나 학생들을 모듬으로 앉혀야 하는 부담 없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신호등 토론이 대집단 토론 형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신호등 카드만 보고 학생들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수업을 위해 자리 배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 토론 진행 방법

첫째, 교사는 준비한 신문 기사를 학생들과 함께 잘 읽은 후 신문에서 학생들이 어려워 할 내용이나 용어에 대하여 정리해주고, 의견기사에서 제시된 주장이 무엇인지 학생들과 함께 정리한다. 그런 후 학생 수별로 신호등 토론 카드를 준비하고 학생들에게 세 가지 신호등 토론 카드를 나누어 준다(평상시에 교사가 학생 수만큼 준비하고 있다가 수업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3가지 세트를 나누어 주는 것이 관리에 효율적이다).

둘째, 학생들에게 빨강, 노랑, 초록색 카드의 의미와 자신의 생각에 맞는 색깔의 카드를 든다는 것을 설명한다. 빨강색은 반대, 노랑은 잘 모르겠다고 판단했을 때 그리고 초록색은 찬성할 때 들게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셋째, 교사는 신문 기사의 의견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카드를 들어 올리게 한다.

넷째,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각에 맞게 카드를 들게 하고, 학생들 전체에게 반 학생들의 카드 색상의 분포를 파악하게 한다.

다섯째, 교사는 초록색, 노랑색, 빨강색의 각 카드를 든 학생 중 발표를 잘 할만한 학생을 한 두 명 정도 마음으로 선정한다. 초록 카드를 든 학생 한 명을 지적하여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발표하게 한다. 그런 후 발표한 학생과 다른 이유로 초록색을 든 학생이 있는지 확인하고 한 명 정도 더 발표하게 한다. 노랑색과 빨강색 카드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로 학생들의 발표를 시킨다.

여섯째, 교사는 이런 절차를 활용하여 신문 기사를 몇 편 더 읽고 학생들에게 의견을 묻고 발표시킨다.

(2) 피라미드 토론 수업

■ 기본 이해

피라미드 토론은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모든 사람의 의견을 하나씩 줄여가면서 최종적으로 남는 가장 우수한 의견을 선택하는 토론을 말한다. 토론의 과정에서 처음엔 모두 의견을 냈다가 정점에서 하나의 의견만이 남기에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은 피라미드의 아래 변에서 제일 위의 꼭지점에 도달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기에 피라미드 토론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피라미드 토론은 소집단 토론에서 대집단 토론으로 점진적으로 토론이 확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자신이 제시한 의견이 최후로 남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설득과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토의·토론 시합에 나온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둔다. 일반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는 몇몇 대표 학생이 의견을 발표하고 토의·토론을 하지만, 피라미드 토론에서는 모든 학생이 카드에 자신의 의견을 적고 발표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이 수업은 모든 학생이 참여하여 자연스럽게 하나의 의사결정을 수렴하게 되는 과정이 확연히 드러나는 매우 재미있고 역동적인 토론 형태라 할 수 있다.

피라미드 토의·토론기법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역피라미드 토론방식의 의견수렴 및 합의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자신의 카드(의견 제시 개수에 따라 카드는 모두가 하나만 사용할 수도 있고, 많을 경우 의견을 각자 5개 정도 적을 수 있다.)에 기입한 후, 다른 사람과 1:1로 토론과 토의과정을 거쳐 카드의 매수를 압축한다. 다시 다른 팀과 2:2, 4:4, 8:8, 16:16으로 만나 토론을 거쳐 최종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방법이다.

■ 자리 배치

피라미드 토론은 사실상 1명에서 2명, 4명, 8명 등 그 이상이 모여서 의견을 조정해 가는 토론방법이기 때문에 특별한 자리 배치나 모둠 구성이 필요없다. 그냥 2명이 짝을 이루고 있는 교실 상황에서 그대로 사용되, 교사가 토론이 진행되는 중간 중간 2명, 4명, 8명, 16명으로 토론구성원이 증가할 때 누구, 어느 팀이랑 짝을 이루어야 할지에 대하여 구성원을 조정해 주기만 하면 된다.

■ 토론 진행 방법

첫째, 신문 기사를 읽는다. 집단 간의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는 문제를 제시하는 신문 기사를 선택하여 같이 읽고 이해한다. 이 때 정확한 갈등 상황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기사를 다 읽은 후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각자 2가지 정도 자신의 생각을 생각 카드(또는 붙임쪽지)에 적도록 한다. 생각해야 할 것이 2가지이기에 생각을 적을 명함 크기의 카드(또는 붙임쪽지)도 2개를 나누어 준다.

셋째, 자신의 생각 적기이다. 모든 학생은 '신문 기사에서 본 갈등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적는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카드 한 장에 하나씩 적는다.

넷째, 다른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의견을 줄여가는 과정이다. 먼저 옆에 있는 한 명과 1:1로 만나서 자신의 생각카드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생각한 해결방안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 중에서 좋은 의견을 처음에 주어진 카드의 수만큼 줄여간다. 즉 2명이 모이면 해결방안이 각 2개씩 4개이기에 서로 의논하여 4개 중에서 좋은 의견 2개를 선택하게 하고 나머지 의견은 버리게 한다.

이렇게 1:1로 한 후에 이제 2명이 한 팀이 되어 자신의 팀이 정한 2개의 생각을 또 다른 2명이 만든 다른 한 팀과 다시 2:2로 토론하여 다시 앞에서처럼 카드(또는 붙임쪽지)를 줄여간다. 이렇게 다시 4:4로, 다시 8:8로 의견을 줄여간다. 학생수가 더 많다면 중간에 빨리 끝난 팀과 빨리 합의하면서 팀 수를 줄여도 된다.

다섯째, 최종 결과 발표하기이다. 최종적으로 나누어진 두 팀의 의견을 발표하고 이에 대하여 공개적인 논의를 거친 후 한 반 전체가 합의에 도달하여 결정한 결과를 발표하면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과정에 대하여 정리하고 토론을 마치면 된다.

(3) 찬반논쟁협동학습(PRO-CON 모형)

■ 찬반논쟁협동학습 모형의 기본 이해

일반적으로 쟁점을 다루는 토론은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대립되는 의견을 가지고 서로의 주장을 강조하기에 협동적인 요소보다는 대결적인 요소가 강한 편이다. 우리가 대체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토론은 이런 대립적인 양상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립하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토론 주제에 따른 관점”이라고 강조하지만 토론이 끝나고 나서 집단 간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교실에서 학습으로 토론 수업을 진행하고 난 후에 학생들 간에도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러한 문제점을 수정할 수 있는 토론 수업 유형으로 Johnson & Johnson(1994)이 제안한 '찬반논쟁협동학습'이 있다. 이 유형은 협동학습 모형을 기초로 하여 또래 집단 간의 토론과정을 정교화 하여 논쟁문제

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협동학습을 기초로 하여 토론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찬반논쟁협동 학습’이라고도 불리는데, 종종 Pro-con 모형으로 불리기도 한다. Pro-con 모형에서 의미하는 ‘Pro’는 주어진 찬반 토론에서 ‘찬성 쪽을’, ‘Con’은 반대쪽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쟁점 토론도 대부분 Pro-con 모형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Johnson & Johnson의 pro-con 모형이라고도 불린다.

■ 찬반논쟁협동학습 모형의 특징

찬반논쟁협동학습 모형은 협동학습 구조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토론 수업과 달리 갈등 요소가 집단의 대립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토론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하나의 모둠 안에 소모둠을 구성하기는 하지만 크게 보아 모둠 전체가 하나의 집단으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집단의 갈등은 일시적이다. 둘째는 토론 과정에서 입장 바꾸기를 통해 상대의 토론내용에 대하여 느낀 점을 이야기함으로써 더 많은 토론 주제가 망라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찬반협동학습 모형은 모둠 토론이 끝난 후 모둠에서 찬(Pro), 반(Con) 중 하나를 모둠 전체의 의견을 모아서 정하도록 하고 그 이유를 밝히도록 함으로써 토론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을 해소하고 집단 내의 합일성을 강조하는 과정을 부여한다. 따라서 찬반논쟁협동학습 모형은 찬성과 반대라는 첨예한 쟁점을 가진 주제에 대한 토론에서 갈등보다는 협동을, 대립보다는 합의를 강조하는 특이한 쟁점 토론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찬반논쟁협동학습 모형에서는 토론 주제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미리 읽고, 그 신문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앞에서 살펴본 토론 전략을 기록하고 토론을 진행하면 된다.

■ Johnson and Johnson의 Pro-con 모형의 절차

Johnson and Johnson(1994)이 제안한 찬반논쟁협동학습 모형은 수업의 구체적인 진행을 위한 절차라기 보다는 논쟁문제를 대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즉 학생들이 논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논쟁에 대한 개인적인 활동과정을 통해 논쟁이 어떻게 정리되는가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설명되어 있다(정문성, 2004에서 재인용).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토론 주제인 논쟁문제와 관련하여 정보를 조직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이 시기에 학생은 주제와 관련하여 제안된 자신의 경험과 불완전한 정보에 기초해 자신이 찬, 반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된다.

둘째, 토론 주제에 대한 찬반 중 자신의 입장을 발표한다. 이 시기에 학생들은 일시적으로 정한 ‘찬, 반’ 중 자신의 주장 하나를 발표하고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다른 학생에게 지지를 이끌어 내려고 한다.

셋째, 논쟁이 되는 토론 주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관점의 내용을 경험하게 된다. 학생들은 한 모둠에 속하지만 자신과 반대 의견을 가진 학생들로부터 반대되는 의견과 그 이유를 듣고 서로에 대하여 비판하는 경험을 한다.

넷째, 논쟁이 되는 문제에 대하여 자신이 처음에 생각한 의견과 관련하여 개념 갈등과 불확실성을 경험한다.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듣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자신이 가진 관점에 대한 불확실함을 인식하면서 혼란이 일어나는 과정이다.

다섯째, 논쟁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적 호기심과 관점 채택의 경험을 하게 된다. 이 시기에 학생들은 적은 경험과 불완전한 정보에 의존한 첫 번째 판단에서의 문제를 인지한다. 그리고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어야겠다는 인식을 하며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분명한 관점을 채택하게 된다.

여섯째, 논쟁문제에 대한 재개념화와 종합을 통한 통합적인 해결을 경험한다. 이 시기에 학생들은 더 많은 근거자료에 기초하여 논쟁문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재개념화 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의견을 종합하면서 통합하게 된다.

■ 토론 진행 방법

위에서 제시한 Johnson and Johnson의 Pro-con 모형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수업 절차를 제안한 것은 정문성(1996)이다. 정문성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Johnson & Johnson(1994) 모형의 한국적 적용을 시도하면서 미니 소집단(2인) 중심의 찬반 입장을 정한 후 토론과 반박 그리고 종합 과정에 이르는 6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신문 기사에 근거한 토론 수업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정문성, 2004).

첫째, 협동학습 구조에 기반을 둔 4명으로 구성된 이질적 모둠을 나눈다. 기존에 4명으로 구성된 모둠이 있을 경우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²⁾

2) 이질적인 모둠 구성 등 협동학습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위해서는 정문성(2004)을 참조할 것.

둘째, 교사는 신문 기사를 통해 토론 주제가 되는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준다.

셋째, 4명의 모둠 구성원은 주어진 논쟁문제에 관하여 찬성과 반대 또는 서로 다른 입장을 선택하는 2인으로 구성된 또 하나의 미니 소모둠을 구성한다.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가진 2명이 나란히 앉아 반대의견을 가진 미니 소모둠과 마주보고 앉도록 한다.

① 학생	③ 학생	① 학생	③ 학생	① 학생	③ 학생	① 학생	③ 학생
② 학생	④ 학생	② 학생	④ 학생	② 학생	④ 학생	② 학생	④ 학생

교탁

* ①, ②, ③, ④ 학생은 '소모둠(4명)'이며 ①, ②학생과 ③, ④학생은 '미니 소모둠(2명)' 이 된다.

넷째, 미니 소모둠은 주어진 논쟁문제에 대하여 '문제 정의 - 사실 문제와 가치문제의 확인 및 분석 - 연역적, 귀납적 등의 논리적 구조로 자기 의견 정리하기 - 상대방 비판할 증거 준비하기' 순으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현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 자료, 경험에 근거하여 소집단 내에서 발표할 자신의 주장 및 근거를 정리한다. 미니 소모둠 구성원 2명은 이 과정에서 서로 조사해온 신문 기사 자료를 공유하고 그 자료에 기초하여 주장하거나 반박할 의견을 나누면서 토론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미니 소모둠에서 주장할 내용을 문장 형태로 정리한다.

다섯째, 소모둠 내 각 미니 소모둠은 각자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바탕으로 번갈아 가면서 소모둠에서 각자 발표한다. 이 때 자신이 위치한 찬성과 반대에 맞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발표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주장에 적합한 신문 기사의 내용(인지적 자료나 통계 자료, 관련된 다양한 가치 등)을 동원하여 자신의 관점의 근거를 주장하여야 한다.

여섯째, 미니 소모둠 발표에서 나왔던 관점을 기초로 토론을 벌이는 시기이다. 이 때는 상대방의 주장을 분석한 것을 기반으로 비판을 가한다. 또한 자신의 주장에 대한 상대의 비판을 이해하고 그 비판에 대하여 반박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반박과 재반박을 거치면서 새로운 의견이나 주장을 내놓을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소모둠원 2명은 서로 전략적으로 한 사람이 주장하고 기록하는 등의 역할을 나눌 수 있으며, 상대에 대한 반박이나 재반박 준비를 같이 공유하면서 한 팀으로 기능한다.

일곱째, 두 미니 소모둠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바꾸어 본다. 이 시기에는 입장을 단순히

바꾸어 다시 토론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토론에서 논의되지 않았거나 상대가 주장하지 못했던 가장 강력한 근거를 제시하여 본다. 또는 상대방이 이런 주장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다. 이런 활동은 일반적으로 토론과정에서 자신의 관점에 파문혀감으로써 자신의 입장에서는 사고하지 못했던 것을 상대방이 생각해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 바꾸기 토론이 가능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협동학습 구조이기에 가능하다.

여덟째, 소모둠은 지금까지 나왔던 의견과 주장, 근거 등에 비추어 4명의 의견을 종합하여 찬성이나 반대 또는 새로운 의견 등 하나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찬성이나 반대를 다수결 등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의견과 자료를 분석하고 결합하여 종합한 결과로 하나의 결론을 이끌어 내도록 한다.

아홉째, 모둠별로 결정된 의견을 학급 전체에 발표한다.

참고 문헌

- NIE 한국위원회(2005). 『NIE 가이드북』. 서울: 한국신문협회.
- 강대현 외(2007). 『초·중·고 토론학습 지도 자료(3)』.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교육인적자원부(1997). 『제7차 교육과정: 사회』.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2007). 『개정교육과정: 사회』.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구정화(2009). 『학교 토론수업의 이해와 실천』. 서울: 교육과학사.
- 구정화(2009). 『학부모 NIE 워크북』. 한국신문협회.
- 구정화 · 권영부 · 허병두(2009). 『숫자와 신문 패스포트 2009』. 서울: 한국신문협회.
- 김정실 · 안현효(2004). “NIE를 활용한 경제교육의 효과 : 고등학교 1학년 경제단원을 중심으로”, 『교과교육학 연구』. 제8권 3호.
- 김영순(2005). 『미디어와 문화교육』. 서울: 한국문화사.
- 김영순 · 최상희 · 심옥령(2008). 『신문 활용도 향상을 위한 '신문자료 활용 학습 캘린더' 및 '학습 자료 제공을 위한 신문보도 매뉴얼' 개발 연구-초등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조사연구보고서』. 신문발전위원회.
- 김훈순(1994). “신문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연구원 연구서(25) 『청소년과 인쇄매체』.
- 박순희(2007). 초등학교 토론학습의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편). 『미래를 준비하는 토론학습』.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신헌재 외(1996).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 심옥령(1999). 『역사책 만들기를 통한 6학년 사회과 지도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 석사학위논문,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태중(2007). 『NIE 원론』. 서울: 교육과학사.
- 정문성 외(2008). 『사회과 교수학습법』. 서울: 교육과학사.
- 정문성(1996). “사회과 협동학습에서의 논쟁교수 모형”.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논총』, 13, pp.259-276.
- 정문성(2004). “토의·토론 수업의 개념과수업에의 적용 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열린교육학회 2003년도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토론학습 모형과 토론기술』, pp.7-32.
- 정문성 · 구정화 · 박미영(2004). 『학교 NIE 알아보기-학교 NIE 실태와 개선방안』. 서울: 한국신문협회.
- 정문성 · 구정화 · 성태모 · 김용순(2007). 『NIE 수업 모델 알아보기』. 서울: 한국신문협회.
- 정태선 외(1999). 『문제팡팡 생각 토크』. 서울: 중앙일보사.

- 최상희(2003). 『NIE의 이해와 활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최상희(2009). 『고등학교 사회과 수업에서 신문자료의 구성주의적 재구성』.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 최상희 · 오주석(1999). 『NIE 지도전략』. 서울: 도서출판 대일.
- 허병두(1997). 『신문활용교육이란 무엇인가?』. 서울: 중앙 M&B.
- DeRoche, Edward F.(1991). The Newspaper - A Referene Book for Teachers and Librarians. ABC CLIO.
- Johnson, D. and Johnson, R.(1994). Learning together in the social studies classroom, In R. J. Stahl(Ed.), Cooperative learning in social studies: A handbook for teachers. New York: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한국신문협회, 신문협회 회보지

한국신문협회 사이트 www.presskorea.or.kr

한국언론진흥재단 사이트 www.kpf.or.kr

● 초등학교 교과서

〈4학년 2학기〉

국어(말하기 · 듣기 · 쓰기), 교육과정평가원(김왕규 외 12인), 교학사, 2001(2007년 7쇄).

국어(읽기), 교육과정평가원(정구향 외 12인), 교학사, 2001(2007년 7쇄).

〈5학년 2학기〉

국어(말하기 · 듣기 · 쓰기), 교육과정평가원(김왕규 외 13인), 교학사, 2002(2007년 6쇄).

국어(읽기), 교육과정평가원(김왕규 외 13인), 교학사, 2002(2007년 6쇄).

readers are Leaders

읽는 사람이 세상을 이끈다

www.presskorea.or.kr